

여사매

(제16호)



횡성문화원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蟾江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을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精神과 愛鄉心을 이어 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叡智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城 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 郡民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복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踐으로 豐饒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創造,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황성의 상징



군기

21세기를 향한 황성군민의 무한한 도약과 인간 중심의 밝고 희망찬 삶을 뜻한다.



군의새 / 백로

은백의 눈부신 자태는 군민의 순결함을 뜻하며 서원면 압곡리 일대에 무리지어 여름을 난다.



군의꽃 / 함박꽃

녹색의 넓은 잎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말하며 탐스럽고 화려한 꽃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밝은 미래를 뜻한다.



군의나무 / 느티나무

군목의 느티나무는 나무의 수명이 길뿐만 아니라 우람하며 무한히 성장하는 황성군을 뜻한다.



제6회 무릉서예대전
대상수상

횡성서원면출신



松禪 金榮浩

수상경력

-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분입선
- 농민신문사주최 농업인서예대전
입선2회
- 강원서예대전 입선2회
- 무릉서예대전 특선 대상
- 김삿갓회화대회 입선 차상
동대회 초대작가

張籍先生的 秋思
대상수상작품

洛陽城裏見秋風
 欲說不盡行
 人臨重復恐
 忽忽封
 不家

辛巳年夏錄
 張籍詩
 秋思
 松禪金榮浩

- 발 간 사 횡성문화원장 심진항 · 9
- 축 사 횡성군수 · 10
- 축 사 횡성군의회의장 · 11
- 축 사 횡성교육청 교육장 · 12

I. 어사매의 자랑

- 순박한 횡성 사람들 권용환 · 15

II. 21세기를 선도하는 전통문화

- 21세기 우리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강대덕 · 23

III. 향토문화 연구문

- 반곡리의 “허수아비축제”와 허수아비 이야기 김의숙 · 29
- 횡성의 골짜기 지명에 대한 유래 이영식 · 35
- 목은선생영당(牧隱先生影堂) 이희구 · 105



IV. 어사매 문화마당 (수필시.한시.기행문)

-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 정금자 · 111
- 노인을 경애하고 사랑을 맺자 이송윤 · 113
- 침묵 박현숙 · 115
- 천마는 자작나무 숲에서 산다 김연일 · 116
- 엄마는 김정자 · 117
- 初冬十二月 (漢詩) 정병류 · 118
- 유적답사기행문 한현숙외 · 119

V. 향토문화행사 입선작

- 제15회 태기문화제 입선작 133
- 이연승시비건립4주년기념입선작 141

VI. 부록 및 문화원 소식

- 족보상식(부록)150
- 문화원소식162
- 임원 및 회원명부167



發 刊 辭



심 진 황
황성문화원 원장

향토문화의 脈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고장의 대표적 鄉土誌인 「어사매16호」의 發刊을 군민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鄉土史의 研究와 發掘 그리고 地域文化暢達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文學同好人을 비롯한 先後輩 諸位 여러분께 심심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새천년과 함께 맞은 새로운 세기는 산업사회를 마감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 하여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文化遺産과 아름다운 美風良俗들을 繼承, 後孫에게 물려주는 것 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세대가 지향해야 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고장의 향토사료연구위원이신 이영식 선생께서 오랜시간에 걸쳐 직접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황성의 골짜기 命名에 대한 유래” 研究文을 금번호에 收錄하게 되어 군민의 愛鄉心은 물론 고장의 정체성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어사매 16호」가 군민여러분의 文化欲求를 充足시키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며 귀중한 玉稿를 보내주신 투고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關心과 愛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황성군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창조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어사매 제16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는 민족의 혼이 살아 쉬쉬는 유산이며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전통문화 예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만의 문화적 정서에 근거한 감성의 계발을 통해 삶을 보다 운택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산업문명의 발달로 인한 삭막함과 공허함 등의 심리적 공황을 보상해 줄 것은 순수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세기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황성 문화원을 정점으로, 여러 문화계인사들의 힘과 뜻을 모아 새로운 시대의 지방 문화를 선도하는 향토문화의 중심 축이 되어 주민들의 문화수준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해주시길 기대 합니다.

다시 한번 향토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사료가 될 “어사매 16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황성문화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횡성군의회 의장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문화예술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신 심진황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열여섯번째를 맞이한 어사매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첨단 기술과 정보화로 대변되는 시대에도 문화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향수와 존엄성을 일깨우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수준은 한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함은 물론 경제적 가치창출과 선진복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화경쟁의 시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전통성과 선조의 얼과 혼이 깃든 문화유산이 그 바탕을 이루며 우리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문화예술을 꽃피우며 문화를 창조하고 즐기는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정통성이 담겨 있는 어사매가 향토사의 맥을 지키며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사료로서 군민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한번 어사매 16호 발간에 열과 성을 다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김 광 기
황성교육청 교육장

애국의 고장 황성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지 『어사매』 제16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21세기는 인터넷,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우리의 생활전반에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경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인프라(Infra)로 하는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도 전통적인 교육방식보다는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원격학습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소중한 지켜 보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전통문화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정신이며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비록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고유의 문화를 잃은 민족은 뒤쳐질 것이며, 문화 역량이 뛰어난 민족이 주도해 갈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 속에서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것을 알고 새것을 익힌다는 溫故知新의 교훈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어사매』가 조상의 슬기와 긍지를 일깨우고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가는 우리 군민의 教育紙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황성의 향토문화가 강원문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애향심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향토의 문화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심진황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6호 『어사매』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매 (제16호)

1. 어사매의 자랑

순박한 횡성사람들



순박한 횡성사람들!



권 용 환(횡성읍 조곡리)

어사매! 횡성인들의 삶이 꿈틀대는 밭이요 어머니이다.
유일한 향토지 어사매가 어연간 16년의 세월 속에서 횡성의 얼을 가다듬어 왔다.
횡성의 긍지와 희망과 후회의 실타래가 꾸리로 삼겨 향아리에 가득한 어사매-
이제 점점 삶의 터에서 순하고 소박한 횡성의 얼을 쌓아 밭둑에 논두렁에 개울가에 들판
에 산등성에 소복소복한 정겨움에 낙원으로 변한다.
여기에 또 횡성을 노래하고자 한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 고운 하늘을 이고 앞내개울 뒷내개울이 흐르다 합쳐진 기름진 횡성
앞뜰을 안고 우람한 남산 덕고산이 울 삼아 호위하는 충절·애국의 고장 우리 횡성, 고요와
평온과 화평을 누리며 이웃사촌의 정겨움에 오손도손 모여 앉은 마을은 부잣집 장독같은 풍
요함에 젖어 있다. 순하디 순한 사람들이 굽은 길을 급하지 않게 오고가니 온화하고 소박한
삶의 흐름이 노래처럼 흐른다. 장닭은 꿩을 치고 길게 울며 뜨문뜨문 개짓는 소리 어미소의
우렁찬 긴 부름에 송아지 못들은체 대꾸도 않는 마을이 내가 사는 내 고향 횡성이다.

홍풍을 모르고 하늘의 노여움을 모르는 내 고향 횡성.

천재지변이 피하여 가고 천운과 횡재가 노적가리처럼 고이는 살기 좋은 금수강산내 고향 횡성.

봄이면 이산 저산 뺨꾸기 높게 울고 쌍쌍이 날개 치는 꾀꼬리 숲속을 요란케 하며 종달새
하늘 높이 떠올라 지저귀는 하늘아래 나물 캐는 처녀들의 치마폭이 총각들의 휘파람소리에
몸부림치며 남산중턱 노송위 백로 때는 길쌈하는 여인네들을 닮았다. 야산의 진달래 철쭉은
지천으로 피고 개울가 절엽(천렵)패들은 고기 잡아 양은술에 불을 피우니 모락모락 하얀 연
기 속에 동네 사람들을 부른다.

앞뜰 논 소 모는 소리 고개 너머 사라진 밭 소 모는 소리에 시어머니 며느리는 점심과 참
순비에 치마폭에 불이 난다.

그저 괜히 좋았다. 산, 들, 나무, 풀, 개울, 기는 짐승, 나는 새, 별레까지도 좋았으니 까 그것 가운데 사는 사람도 저절로 흥에 겨워던 것이다.

자연보호란 말이 좌측통행이란 말이 공중도덕이란 말이 없었으니 까 말이다.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굽은 길을 그냥 걸었기 때문이다.

여름이면 아이는 매놓고 황혼의 들길을 소 풀짐 푸짐히 지고 새끼 달린 큰 암소 앞세우고 집으로 향하는 농부가 흥얼대며 대문을 들어서면 부엌에서 허리 잘록한 부인이 인사대신 미소로 맞는다. 마당에 명석갈고 두리반 위에는 누런 옥수수, 감자, 고구마가 김을 뿜으며 주인을 기다린다. 그 옆에 무명밭 배추 엇저리 얼큰하게 무쳐놓고 애호박 채썰어 넣은 장갈국수가 흐드러지게 냄새로 입맛을 돋군다.

사내놈들은 개울가 모래터 옆 너렁바위로 모여든다. 초저녁에는 모래터에서 동네별 씨름판이 벌어진다. 좀 이속하면 낮에 달은 뜨끈뜨끈한 바위에 배를 깔고 자기도 한다. 개구쟁이 몇 놈은 수박, 참외 서리가 한참이고 밤이라 덜 익은 것을 따와 반은 버린다. 날이 밝으면 참외밭 주인은 서리 흔적에 빙긋이 웃고 만다. 자기도 그전에 그랬으며 알고보면 큰집, 작은집, 사돈집, 이종, 고종네 개구쟁이들이 한 짓이기 때문이다. 너그러운 마음 후한 인심 이웃의 정이 흘러 넘쳤다. 떡을 해도 제사를 지내도 어른들 생신이 돌아와도 손자들 백일이 돌아와도 다들모여 먹고 마시고 떠들썩하게 정을 나누었다.

어느 집 액운이 들어 불이 나면 그 다음날 석가래 메고 오는 이 이영을 틀어지고 오는 이 가까운 산에 가서 대들보 큰나무를 베어 왔었다. 목수들이 쟁기 들고 거들어 대변에 원상복구를 해 놓았다. 품앗이도 네 일 내 일이 없었다. 다 우리들의 일이었다.

순하고 부드러운 고운 인정이 효자 효부를 길러냈다.

청정지역의 황성사람들의 삶이었다.

가을이면 오곡백과가 부르익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벼는 풍년으로 이삭이 부겨워 고개를 숙여 서서 있기에 힘겨워하고 지붕 위 하얀 박과 누런 호박은 소담스러우며 마당 명석 위에 붉은 고추는 윤기가 흐르며 밤도 털어야 하고 대추도 따야하며 밭에 가도 일거리 눈에 가도 일거리 온 식구가 일손이 모자란다.

산은 누렇게 물들고 눈은 황금물결을 이룬다. 벼 베어 마당 한구석에 난가리를 만들면 흐뭇한 농부의 기침소리가 안방까지 들린다. 새벽부터 타작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온 동네의 단잠을 깨운다. 오후가 되어 타작이 끝나면 마당 가운데 벼더미가 산더미 같다. 경험 많은 노인들이 겨냥을 한다.

“한 칠 팔십은 되겠는걸!”

취를 단돌이 하고 쌓아놓은 노적가리를 몇 번씩이나 어루 만져보는 농부의 흐뭇한 마음. 순하고 착한 마음, 횡성사람들의 행복한 마음이었다.

방앗간에서 밤 새워 방아를 찧어다가 햅쌀로 부시부떡, 콩떡, 인절미 잔뜩하여 큰떡, 작은 떡, 사돈떡, 이모떡, 고모떡 일가친척 모두 불러 배불리 먹고 싸서 보내 붓 온 식구까지 챙긴다.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우리 횡성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친하다는 우리 횡성사람들-

풍년이 드는 해는 잔치가 많았다. 온 동네가 다 모여 음식을 만들고 며칠씩 북새거리며 먹고 마시고 춤추었다.

야산 등성의 흐름이 순하여 우리 횡성인들은 참 순하고 덕스러우며 인정이 넘쳤다.

겨울이면 가마솥에는 소죽이 평치솥에는 콩밥 팥밥이 노구솥에는 김칫국과 된장국이 그리고 화로 위 구멍쇠 위에는 큰 냄비에 돼지고기 비계가 섞인 두부찌개가 얼큰하게 끓고 있었다.

낮에는 나무 두서집 해다 쌓아 놓고는 맛있는 음식으로 온식구가 정에 넘치는 겨울이었다. 엿을 고아서 밤이면 콩엿도 먹고 인절미도 화롯불에 구워먹고 땅에 묻었던 배추뿌리나 시원한 무를 꺼내다 먹기도 한다.

눈이 쌓이면 창우와 돛으로 짐승을 사냥하여 만두국 김치찌개로 식구들이 정겨웠다. 설이 돌아오면 명절 준비에 온식구가 바빠지며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하였다.

조상을 섬기는 정성이 놀라웠다.

어른들 모시는 효성이 지극하였다.

좀 거친 타관 놈이 있으면 불매로 다스렸다. 불량배가 살수가 없었다.

도둑이나 불량배가 있을 수가 없었다.

온동네 어른들이 모두 격려하고 훈계하는 선생님이었다. 적은 실수로 야밤 도주하는 이들이 있었다.

모든 면이 청정지역이었다.

참 살기 좋은 횡성이다.

자랑스러운 횡성이다.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며 어른들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는 문화가 발달하여 좋은 것이 많아졌다. 집(아파트)도 음식도 옷도 도로도 많은 소모품도 좋아졌다. 가전제품도 좋은 것이 많아졌다. TV, 김치냉장고, 렌지, 선풍기, 에어컨, 자동차, 비행기, 농기계, 컴퓨터 암만 좋은 것이 많아도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더러워지고 자연이 파괴되면 소용이 없다. 모두다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신경통 환자가 많아지고 정신성질환자가 많아지고 인심이 사나워지고 도둑이 늘고 밤이 부서워지고 이웃이 의심스러우면 그 사회는 무서운 사회요 죽음의 사회가 되고 만다. 이 이야기는 우리 횡성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횡성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도 없다.

우리 횡성은 깨끗한 도랑물을 그냥 쪽 들이키는 살찐 소가 있다. 사료와 함께 풀을 먹고 콩까지, 옥수수대를 먹인 쌀찐 소가 맛이 좋아 그것으로 유명한 우리 횡성이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가축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풍요하게 하는 소는 음식문화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망의 2000년대를 준비한 80년대 90년대에 횡성 소고기는 전국에서 맛으로 명성이 높아졌다. 송림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계곡에서 흐르는 청정 물을 마시며 후덕한 주인이 정성을 다하여 기른 우리의 소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제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다. 더 연구하고 개발하여 소고기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여 소고기로 승부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또한 산채 중의 황제인 더덕과 도라지도 우리의 자랑이다. 더덕과 도라지는 귀빈과 시아버지 진지상의 반찬으로 제일을 차지하니 그 더욱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깊은 산자락에서 여러 해를 자라야하는 향기가 드높은 고급음식으로 유명한 더덕과 도라지가 유명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횡성사람들의 인품에서 돌아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흙과 물과 계곡의 나무와 맑은 공기와 인품을 자본으로 하는 더덕, 도라지, 포도, 옥수수, 산채, 꿀, 장미 역시 횡성의 자랑이다. 더덕과 산채와 도라지는 향내를 더하는 개발과 포도는 달게 옥수수는 차지고 고소하고 달게 꿀은 믿을 수 있게 장미를 비롯한 모든 꽃은 더 곱게 오래 견딜 수 있게 개발하여 시대와 소비자에게 부응하는 계획이 있을 때, 우리 횡성의 자랑은 더욱 커지며 살기 좋은 우리 횡성!

돈도 벌고 공기 좋고 물 맑은 소나무 계곡에서 도랑치고 가재잡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내 고향 횡성이 되리라!

횡성의 북쪽은 산이 높으나 남쪽이 트여 진입하면 야산이 암전하게 앉아 등성이나 허리의 선들이 완만하여 순하고 소박하며 논밭에 돌이 없고 벽석이 풍화되어 흙이 깨끗하고 기름지며 맑은 앞내와 뒷내가 촉촉히 적셔주는 농토는 다 텃밭과 같다. 교통은 사통오달로 서울과 강릉이 한시간여를 달리면 도달하는 살기 좋은 곳이다.

이제는 부산도 비행기가 있어 제주도 서해도 쉽게 갈 수 있어 좋다.

자-! 이제 대망의 2000년대에는 신선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살기 좋은 낙원의 고장으로 키워가야 할 것이다.

산 좋고 물 좋은 청정지역에서 텃밭과 무논에는 무공해 건강식품을 생산하며 비탈 밭마다 더덕과 도라지씨를 뿌리고 산채와 들판의 나물캐어 들기름에 볶아 놓고 산과일, 머루, 다래, 콩팥에 도토리 철 따라 캐고 뜯고 주워다가 앞집 뒷집 이웃간에 주고받고 후한 인심 옛날의 덕을 찾고 태고의 인심 인정 이것이 낙원이라 이곳이 횡성이라!

이제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에 시달리어 찌들은 피곤을 개울가 남향밭에다 작은집짓고 고요와 평화와 화평을 그리고 온화하고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덕과 선이 감도는 조용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낙원을 이루고 싶어한다.

선하고 착하고 순박한 선비의 후손들이 찾아오는 횡성-. 그들이 와서 활개치고 사는 횡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 민족의 본선이요 근본이요 마음의 고향인 것이다. 백의민족 선한 민족이 서양 물질문화에 빠져 허둥대고 허덕이다가 타락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선한 본연의 마음으로 갈 곳을 찾아 향하는 발길이 횡성이어야 한다.

‘고달픈 현대인들에게 어머니 품 같은 횡성을 만들어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삶을 누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땅으로 가꾸어 갑시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사는 횡성-!

경치 좋고 인심 좋은 이웃사촌이 사는 횡성-!

흰쌀밥에 살찐 암소고기, 산채, 더덕, 도라지가 풍요하여 밥상머리에 웃음꽃이 피는 우리 횡성!

앞내 뒷내 맑은 물이 골짜기마다 맑게 흐르고 빨래하는 아낙네들 신이 나는 우리 횡성!

효자 많아 열녀 많아 정자 그늘 아래 어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네-

공해 없는 청정지역 샘물 파서 물 마시고
나무숲에 맑은 공기 그냥 마셔 힘이 솟네.
인심 좋고 인정 넘쳐 서로 믿고 의지하니
대문 열고 잠을 자네.
귀여운 손자 업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춤이 절로 나며
아들 손자 머느리 효성으로 부모공양
방마다 웃음이요 동네 방네 태평성대
이것이 낙원이라 이곳이 황성이라!

다시 말하노니 2000년대는 사람들이 자연환경이 깨끗한 무공해 청정지역을 찾을 것이며
산 좋고 물 맑은 농촌지역으로 인심 좋고 후덕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웃 사촌들이 모인 곳 도
독과 불량배가 없는곳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곳 선한 사람과 효자 열녀가 모인 곳 우리 황
성같은 경근지역으로 너도나도 물려 올 것이 분명하니 우리 모두는 이것을 대비하여 황성의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제3의 새마을운동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어사매 (제16호)

II. 21세기를 선도하는 전통문화
日本 大衆文化의 開放속에서
21세기 우리 傳統文化의 현대적 계승



21세기를 선도하는 전통문화

日本 大衆文化의 開放속에서 21세기 우리 傳統文化의 現代적 계승

姜 大 德 (文學博士 · 江原大學校 史學科)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새로운 문화의 세기에는 무엇보다도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사회문화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리고 그 내용과 방향을 모색해 가는 전통문화교육기관의 교육적 기능도 날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환과 수집이 발달되면서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회문화교육도 다양한 패러다임의 프로그램과 밀레니엄의 중심가치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새 천년에는 창조적 비전을 위한 문화발전만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중심이념이 될 것이며, 과학기술의 발전논리만으로는 인류행복의 한계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문화도 21세기는 창조적 비전을 위해 새로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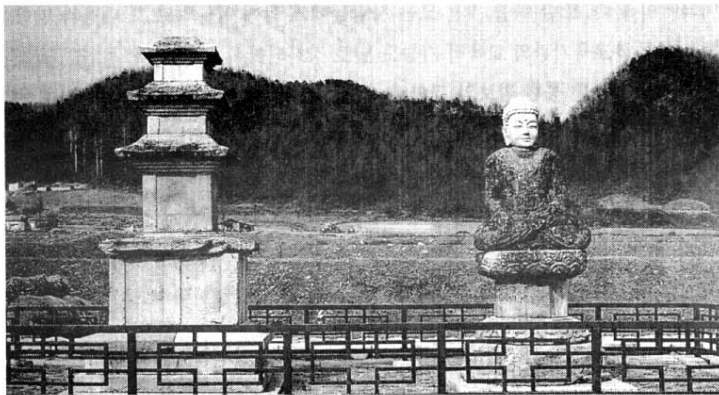
현재 높은 사회문화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문화원은 물론 타 시도 문화원도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며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사회문화교육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가 및 地自體 행정기관에서 사회교육 전문인력 확충과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우리 나라 전통문화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우리들의 사회문화교육기관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생활문화의 길잡이 역할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가 발견되고 표현되는 문화교육의 장으로 문화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전통문화의 재생산과 사회문화교육 활동공간으로 발전하는 사회문화교육기관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韓 · 日 대외관계에 있어 말도 많던 일본 대중문화가 정부로부터 개방이 발표되자, 문화관광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대중문화개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 어떻게 만

들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본대중문화에 민감함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외래문화에 대한 아무런 비판없이 일본문화는 선진문화이고 우리의 전통문화는 후진문화라는 잘못된 등식의 문화인식은 사회문화교육을 통하여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人衆文化의 開放속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은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의적 미래문화에 접목시키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전통문화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古蹟·遺蹟·遺物·文化財 등 踏査와 체험을 통해 歷史文化意識을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민족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이를 통해 한국전통문화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보편적 세계주의를 추구하는 개방된 문화, 열린 문화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21세기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문화와 함께 새 천년이 지금 새로운 르네상스가 꽃피는 시대로 한국의 전통문화가 세계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전통문화의 프로그램을 제작·확산하여야 하며,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질화 된 남·북 분단문화의 다양성을 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남북교류를 통하여 韓民族 화합과 동질성 회복을 창의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남·북 분단문화의 화합과 동질성이 창의적으로 회복만 된다면,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은 별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백일장, 사생대회, 봉사활동 등과 연계된 우리전통문화교실 등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사회문화교육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개설되어야 한다.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정책으로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며,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하여 방학기간에는 전국에 있는 국·공·사립박물관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잊혀져가는 전통세시풍속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전통세시행사도 설·대보름·단오·추석 등 절기에 맞추어 일년 내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통공예교실, 우리민속교실, 역사문화교실 등 우리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21세기는 동서대립의 이데올로기도 이미 무너져 국경선의 개념도 없어지고,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무한경쟁의 시대로 앞서가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신기술과 사상을 길러 세계화의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국가와 민족의 장벽을 허무는 지구촌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대문을 열고 살수록 집안단속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계화시대가 될 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고유색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성공한 국가들은 모두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하다.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것도 자국가·자민족·자문화 중심의 전통문화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神道를 통한 日本魂, 대만은 三民主義, 싱가포르는 儒敎的 民族主義로 성공했고, 중국도 최근 敎條的 社會主義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유교질서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모두 儒敎의 儒道文化精神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즉 유도의 성실성, 교육열, 근면성, 가족주의, 중앙집권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정체성이 부족한 나라이며 이것이 오늘날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위기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주지하다시피 일제시대의 식민정책으로 인하여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건전하게 발전된 한국문화를 창조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운 21세기의 한국문화는 우수한 전통문화의 계승 위에 선진 미래문화의 창조와 외래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세계문화 속에서의 한국문화를 조화롭게 창조하여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일이 있다. 남·북 민족통일의 시대로 우리는 최초로 통일세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물리적 통일이 아니라, 문화적 통일로 완

성되어야 한다. 문화적 통일은 젊은 청소년들이 하여야 할 몫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부터 模倣의 時代를 청산하고 創造의 時代를 열어야 한다.

우리 모두 日本 大衆文化의 開放속에서 우리는 傳統文化의 現代적 繼承으로 知識·知性·知慧의 혁명을 가져와 새로운 世界文化를 만드는데 앞장설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21 세기는 반드시 세계를 先導하는 우리들의 시대가 될 것이다.

어사매 (제16호)

III. 연구문

반곡리의 <허수아비축제>와 허수아비 이야기
황성의 골짜기 지명에 대한 유래
목은선생영당(牧隱先生影堂)



반곡리의 <허수아비축제>와 허수아비 이야기

김 의 숙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문학박사)

1. 횡성읍 반곡리의 허수아비축제

2001년 10월14일, 횡성읍 반곡리 마을의 가을들판에서 “허수아비가 웃고 메뚜기가 뛰노는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세요”라는 주제로 <허수아비축제>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허수아비만들기」「메뚜기잡기」「농악한마당」「장기자랑」등을 즐기면서 반곡리 90세대 300여명의 주민과 ‘일일농촌체험’을 위해 서울 등 타지역에서 참여한 30여명이 함께 어울리었다.

반곡리 주민들은 매년마다 전통민속놀이 재현을 비롯하여 잊혀져가는 농촌문화 계승을 위해 봄과 가을에 각각 <대보름맞이행사>와 <허수아비축제>를 벌여 왔다. <허수아비축제>에서 선보인「허수아비만들기」야말로 허수아비를 통해 농촌문화의 진수와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다.

‘허생원’으로도 부르는 허수아비는 헛+(우)+아비 또는 허(虛)+수(竝)+아비로 이루어진 말이다. 한마디로 거짓으로 세운 아비라는 말이다. 아비는 아버지로서 집안의 가장이고 지킴이다. 이 아버지가 논밭에서 귀중한 곡식을 지키는 지킴이로 서 있는 것이다. 이는 마을을 지키는 장수의 역할이나 기능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민속학에서 재조명하고 상기하여야 할 민속문화이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갖가지의 축제나 한마당잔치를 펼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존재가치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용성이나 창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반곡리 마을에서 창안하여 낸 이 <허수아비축제>는 농촌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창출한 민속으로서 실용성과 창조적 예술성이 존재하고 나아가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마음 잔치이다.

여기서는 ‘허수아비’에 관한 의미를 살펴봄으로써『아는 것만큼 느낀다』는 명제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하며, 이로 말미암아 <허수아비축제>가 횡성군민 전체의 큰잔치로

확대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2. 허수아비의 기능과 말뚝

1) 허수아비의 기능

역사적으로 허수아비는 4가지의 기능을 지니고 전통민속의 현장에 등장하여 왔는데, 그것은 농촌의 들녘과 가정 그리고 축제와 마을굿의 현장이다.

첫째로 가장 큰 기능인 곡식 지킴이로서의 허수아비는 농촌의 들녘에 등장한다. 새와 동물을 쫓기 위한 허수아비의 모습은 농부의 형상이 보편적이거나 장대를 지닌 모습과 나아가 활과 총을 든 사냥꾼의 모습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둘째로 가정에서는 제화초복(除禍超福)하기 위해 '제웅'이라고 하는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제웅은 통일신라시대의 인물인 처용(處容)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처용>제웅>제웅으로 전음(轉音)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제웅은 들녘에 세워지는 허수아비보다는 작게 길쭉으로 20-30cm 정도로 만드는데 환자의 질병퇴치, 정월대보름의 액막이, 저승혼사과 성주올리기 등에서 망자의 시신을 대신하는 상징물로 존재한다.

셋째로 허수아비는 축제의 현장에 나타난다. 8월 하순경에 개최되는 전남 무안군의 <연꽃 축제> 때는 관광객을 환영하기 위해 환영하는 문구를 쓴 허수아비를 많이 제작해서 길가와 논밭이나 세움으로써 축제의 이미지 부각과 농작물 보호라는 이중효과를 얻고 있다.

끝으로 허제비로도 불리는 허수아비가 마을굿을 행할 때 제작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3마을의 사례를 들어보자.

전라북도 무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에 원당제와 용왕제를 지내는데, 마을의 액을 없애고 바다의 원혼을 달래는 용왕제 때에 허수아비가 등장한다. 주민들은 액과 원혼을 띠배에 실어 용왕에게 보내면 용왕이 액을 없애고 풍어를 가져다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띠배를 만들고 배를 향해할 허수아비 선원을 만든다. 제작된 띠배와 허수아비는 용왕제가 모두 끝나면 먼 바다로 내보낸다.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마령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에 동제(洞祭)를 지내고 10년을 주기로 戊(술)자가 든 해에 별신제를 지낸다. 별신제 때에 잡귀와 호랑이를 퇴치는 놀이를 행하는데 여기에 허수아비가 잡귀로 등장한다. 주민들은 잡귀를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포수에게 잡히게하고 불로 태움으로써 마을의 평안을 유지한다고 믿는다.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에서는 제화초복과 풍년을 소망하여 음력 정월 대보름에 토지신을 위하는 별신제를 드린다. 그때 토지신의 신체(神體)를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만든다. 주민들은 경건히 제사를 올리고 허수아비를 허제비골에 버리면서, “토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액을 멀리 멀리 내치시고 우리 마을에 복을 갖다 주십시오.”라고 고촉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허수아비의 제작은 실제적 목적과 주술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과 축제의 마당에 나타나는 허수아비는 전자에 해당하고, 가정과 무속적 세의에 등장하는 허수아비는 후자에 해당한다. 허수아비는 본래 실제적 목적에서 제작되었는데 이것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주술적인 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2) 허수아비의 말뜻

‘허생원’ ‘허깨비’ ‘허세비’로도 부르는 허수아비는 헛+(우)+아비 혹은 허(虛)+수(堅)+아비로 이루어진 말이니 곧 ‘거짓으로 세운 아비(아버지)’라는 뜻이다. 본래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인 것처럼 허수아비는 귀중한 곡식을 지키는 논밭의 지킴이이다. 허수아비는 영어로 scarecrow인데 이는 까마귀를 쫓는데서 유래하였다. 허수아비의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민간에는 이렇게 전승한다.

허수라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계모의 학대에 못이겨 집을 뛰쳐나가 남의 머슴살이를 하였다. 허수의 주인은 허수에게 갖은 일을 다 시키고 또 논밭으로 내몰아 새를 쫓게 하였다. 한편 허수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나섰다가 걸인이 되어 어느 논둑에서 지쳐 쓰러졌다. 그때 힘겹게 새를 쫓던 허수는 논둑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였다. 아버지는 꺼져가는 눈으로 아들을 지켜보며 논둑에서 쓰러져 죽었다. 허수는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심하게 불러들여 허수를 괴롭히던 새들이 인근의 논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허수 아버지의 혼령이 아들을 위해 새들을 쫓아주는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그뒤로 사람들은 걸인이 되어 죽은 허수의 아버지처럼 허름한 옷을 입힌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논둑에 세워두고 새들을 쫓았다. 그리고 그 형상을 ‘허수아비’라고 하였다.

허수아비에 대한 낱말풀이에 “어떤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자리만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다. 곧 괴뢰(傀儡)라는 뜻이다. 비와 서리를 맞고 퇴약벌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허수아비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허수아비는 절대로 자기 구실을 못

하는 존재가 아니다. 허수아비는 축제의 마당에서 협동과 미학적 기술이 어울리어 만들어지고, 그것은 다시 논밭에서 곡식을 지키는 지킴이로 존재한다. 따라서 허수아비아말로 마을을 지키는 장승의 기능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민속학에서 마땅히 조명받아야 할 존재이다.

3. 허수아비 이야기 셋

1) 허수아비 꿈의 해몽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 자신이 허수아비가 되는 꿈이었다. 허수아비가 되서는 칠팔월 나라(벼)밭에 떡 서있었다. 그사람이 꿈을 깨고 나니까 기분이 나빴다.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웃에 꿈 해몽을 잘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해몽을 하여달라고 갔다.

“아, 할아버지! 나 간 밤에 묘한 꿈을 ?임터.”

“뭘 꿈을 꿬?”

“아, 들력에 들녘에 나락이 잘 된 논이, 참 수천 평, 만 평 들녘이 있는데, 내가 허수아비가 되었고, 활개를 벌리고 내가 서있고 있었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यो?”

“아, 자네 미구(未久)에 큰 부자가 되겠네.”

“왜 그렇단 말씀이여?”

“아이, 고사하고 보소. 삼 년 내에 큰 대부(大富)가 되네. 천 석 부자 되구문.”

그사람이 다시 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후로 과연 그 말대로 무슨 장사를 하든간에 잘 되어서 삼 년 내에 천 석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한번은 꿈을 꾸었는데 또 허수아비가 되어 서있는 꿈을 꾸었다. 전번과 다른 것은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거울철에 서있는 꿈이었다. 하도 이상해서 다시 할아버지께 물으러 갔다.

“아, 할아버지! 간 밤에 나는 또 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뭘 꿈을 꾸었는가?”

“아, 간 밤 역시 나가 허수아비가 되는데, 들녘에 곡식을 다 거둬 들여뿌리고 아무것도 없는 꿈을 꿸시다.”

“금일 낙상(落傷) 조심하소.”

그런데 그사람이 다음날 변소길에 가다가 과연 넘어졌다. 그리고서는 그만 죽어버렸다. 그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게 물었다.

“아, 먼침은(먼저는) 어찌 부자가 된다 했고, 내증(나중) 허수애비는 그렇게 낙상을 조심 해라 했소?”

“아, 이 사람들아! 들어 보소. 허수아버가, 눈이 나락이 가득할 때 서갓고 있었으니 전부가 지것(자기것) 아닌가, 허수아버 거. 그런게 부자가 될 꿈이고, 곡식 다 수확해뵈 연에(연후에) 허수아버란 건 자연히 넘어지기 마련인께, 애들이 다 차뿌러, 응. 나자빠져뵈 것이지. 전부 넘어지부러. 그래 곡식 없이 허수아버가 됐으니, 지가 넘어질 거 아닌가? 낙상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낙상해 죽었다. 꿈이란 것은 같은 허수아버라도 그렇게 틀리다는 것이다. [구비문학대계 6-3, 576쪽]

2) 허수아버를 보고 찾아낸 소 도둑

어떤 사람이 소를 잃었는데 아무리 다녀도 찾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마을에서 수단이 제일 좋은 사람을 찾아가 말했다.

“아부개 양반. 내가 소를 잃었는데 소 조개(좁) 찾아주소.”

그러자 그 양반이 무슨 수가 없을까 하고 쪼그리고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저 멀리 밭에 허수아버가 보였다. 그것도 머리에 삿갓을 쓴 허수아버가. 그 양반은 밭 가운데에 삿갓을 쓴 허수아버라는 뜻으로 전중립(田中笠)을 찾아가 라고 하였다.

그사람은 전중립을 찾아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서 전중립이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자기네 소가 있었다. 그는 잃었던 소를 찾아서 너무나 고마워 사례를 하려고 그 양반을 찾아갔다. 그리고 찾아온 용건을 말하였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허수아버가 보여서 그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소를 찾았던 것이다. 아무튼 이상한 일이지만 양반은 대접을 잘 받았다. [구비문학대계 5-5, 329쪽]

3) 허수아버를 두고 농담을 한 임금과 신하

숙종대왕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조(我朝) 5백년 적에 아주 선정(善政)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는 당파싸움으로 폐해가 매우 심했다. 특히 사색(四色)이라고 해서 노론(老論)이니 소론(少論)이니 해서 시도때도 없이 서로 헐뜯고 죽였으므로 세상이 어수선하였다. 왕이 그것을 뜯어고쳐야겠는데 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세상에는 웃음이 없었다. 왕은 농담을 잘하였다. 그렇게라도 웃어야 하였다. 한번은 어디로 행차를 되었는데 보니까 들판에서 허수아비를 세우고 있었다. 그렇게 허수아비를 세우는 것을 '경어부'라고 한다. 왕은 뒤를 따르는 정승에게 농담을 하였다.

“아 저기 경(卿)에 부(父)가 저기 있네.”

정승 곧 경에 부니까 정승의 아버지란 말이다. '경어부'를 '경에부'라고 발음을 하니깐 그 정승이 욕을 얻어먹은 꼴이었다. 그러자 정승이 금방 반격을 하였다.

“아니올시다. 그게 '에부'가 아니라 '어부(御父)' 올시다, 어부.”

어부라고 하니 곧 임금의 아버지란 뜻이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그 재치를 칭찬 하였다. 왕과 신하가 농담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왕은 그렇게 농담을 잘하였다고 한다. [구비문학대계 3-3, 739쪽]



횡성의 골짜기 命名에 대한 유래의 유형 및 특징



이 영 식 (횡성문화원 향토사료조사위원)

차 례

1. 머리말
2. 분류기준 및 유형
3. 각 읍면에 나타난 유형의 특징
4. 맺음말

1. 머리말

횡성군은 우리나라 중부지방, 강원도의 서남부인 영서지방에 위치해 있다. 동쪽은 평창군, 서쪽은 경기도 양평군, 남쪽은 원주시와 영월군, 북쪽은 홍천군과 각각 접하고 있다. 총면적은 997.69km²로 강원도 면적 20,569km²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약 77.9%인 777.2km²가 임야이다.1) 이렇듯 횡성군의 총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횡성 군민이 그만큼 산에 대한 의탁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횡성군의 횡성읍, 갑천면, 강림면, 공근면, 둔내면, 서원면, 안흥면, 우천면, 청일면 등 1읍 8면이 임야의 비중에 있어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각 읍면의 전체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횡성읍은 59.3%, 갑천면은 81.4%, 강림면은 82.0%, 공근면은 79.0%, 둔내면은 68.5%, 서원면은 86.6%, 안흥면은 77.3%, 우천면은 73.1%, 청일면은 84.2%이다. 여기서 우리는 횡성읍과 같이 도시화된 곳은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횡성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토박이들은 거주지명 사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정지명

보다는 자연부락명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2) 이러한 사정은 골짜기명에 있어서 더욱 뚜렷하다.3) 이는 예전에 여러 골짜기를 다니며 땀감으로 쓸 나무를 한다면지, 약초, 나물 등을 채취하러 다니던 경험들이 풍부하고,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 자주 이용하던 길이에 그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보다도 골짜기의 이용율이 더 많은 까닭에 그 골짜기의 이름은 물론 특징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골짜기들이 다양하게 이름지어져 있다. 예를 들면 골짜기가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뒷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어떤 것은 골짜기가 길다고 해서 질골이라 한다면지, 그리고 참새골, 밤나무골, 옴터골, 배내미 등 마을에 있는 골짜기마다 독특한 이름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에 이름을 붙이게 된 내력들이 구비전송되고 있는 것이 많다.

본고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골짜기 命名에 대한 유래는 다양하지만 이들을 서로 비교한다면 공통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보고, 그 유래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어서 분류된 각 유형들을 바탕으로 횡성군의 각 읍면에 나타나는 유형별 유래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4)

2. 분류기준 및 유형

횡성군은 임야의 비중이 높은 까닭에 골짜기 또한 많다.5) 발표자가 조사·정리한 횡성군의 골짜기 수는 총 1,554개이다. 이들 중 유래는 전하지 않고 골짜기명만 전해지고 있는 것이 432개가 있는데, 본고는 골짜기명이 아닌 命名에 따른 유래를 통하여 분류하는 작업이므로 이들의 골짜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6) 그리고 횡성읍 개천리의 산수골과 같이 골짜기에 마을이 정착되어 자연부락마을명으로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주민들이 골짜기보다는 마을로 인식하고 있는 까닭에 제외하였다. 또 갑천면 포동리의 저고리골과 같이 한 골짜기에 2개의 유래가 함께 구전되는 골짜기도 있는데, 이들을 분석대상으로 정리할 경우

1) 『橫城郡年鑑』1997-1998, 橫城郡, 1999, 11쪽 참조.

2) 발표자가 거주하고 있는 안흥면의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안흥 어디 사느냐?”고 물을 때는 ‘양짓밭(안흥1리)’, ‘말무덤이(안흥4리)’, ‘새계(안흥3리)’, ‘거리뜰(안흥2리)’, ‘단지골(안흥2리)’, ‘새터(안흥2리)’, ‘신배골(안흥2리)’, ‘웃거리(안흥1리)’, ‘관밭(안흥1리)’, ‘둔곶밭(안흥1리)’ 등과 같이 자연부락명으로 대답을 해야 쉽게 알아 듣는다.

동일한 골짜기를 중복해서 분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제외하였다. 이와는 달리 안흥면 안흥리에 큰다리골과 작은다리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것은 다리골을 그 크기에 따라 다시 세분한 것으로 '사람의 다리처럼 양쪽으로 벌어져 있어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동일한 유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골짜기의 수는 2개이지만 유래가 하나만 구전되는 골짜기는 하나로 묶어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리한 결과 분석대상의 골짜기 수는 발표자가 조사·정리한 전체 골짜기수의 약 68%인 1,069개이다. 이들은 위에서도 밝혔듯이 그 命名에 대한 유래는 다양하다.

먼저 각 골짜기들의 命名에 대한 유래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골짜기의 위치에 따라 명명된 경우가 있는데, 뒷골(횡성읍 개천리, 남산리, 목계리, 정암1리, 정암2리, 학곡1리)은 모두가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명명된 것으로는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 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새골(우천면 양적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큰골(갑천면 매일2리), 구용골(갑천면 삼거리), 곰음골(안흥면 성산리), 험한골(우천면 하대리), 국자골(공근면 공근리), 썰골짜기(우천면 정금2리), 뱀골(우천면 상대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골짜기가 크다고 해서 큰골, 소 규유처럼 생겨서 구용골, 골짜기가 곧다고 해서 곰음골, 험하다고 해서 험한골, 국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국자골, 썰기처럼 좁다고 썰골짜기, 뱀처럼 길다고 해서 뱀골 등과 같이 골짜기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다.

③ 뱀골(우천면 양적리), 여우박골(횡성읍 내지리), 곰내미(서원면 유현3리), 고슴도치골(서원면 유현1리), 노루종골(우천면 용둔리), 오소리바우골(우천면 용둔리), 범낭골(안흥면 지구2리), 둔너미(갑천면 병지방1리) 등과 같이 다른 골짜기에 비해 뱀이 많다거나, 여우, 곰, 고슴도치, 노루, 오소리, 호랑이, 산돼지 등 특정 동물이 자주 나타나던 곳이라던지, 새끼를 쳤거나 살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命名된 경우이다.

④ 밤나무골(공근면 매곡리), 느릅나무골(공근면 부창리), 동박골(공근면 삼배리), 새골(횡성읍 북천리), 박달골(강림면 월현1리), 신배골(강림면 강림5리), 익모초골(강림면 강림

3) 물론 그 까닭은 자연부락을 행정단위로 묶어서 리명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민간에서 통용되는 골짜기명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행정 편의 및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산 ~번지' 등으로만 구획하고 각 골짜기에 이름을 부여하지 않은 결과 자연스럽게 고유 지명이 민간에서 구비 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리), 갈거리(횡성읍 갈풍리), 갈밭골(안흥면 안흥4리), 자작나무골(안흥면 송한리), 옷나무 배기(우천면 정금2리), 닥밭골(우천면 산전리) 등과 같이 특정한 나무나 풀 등이 많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다.

⑤ 돌가마골(횡성읍 갈풍리), 횃골(횡성읍 학곡2리), 찰돌골(갑천면 매일2리), 녹박골(횡성읍 정암2리), 안반대골(안흥면 가천리), 선바우골(우천면 하궁1리), 줄바우골(우천면 오원2리) 등과 같이 골짜기에 돌이 많거나 특정한 광물이 생산되는 경우, 그리고 특징있는 바위 즉, 큰 바위가 있어서, 바위가 서 있어서, 여러 개의 바위가 연속적으로 있어서 등과 같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이한 바위가 있어서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다.

⑥ 약물탕골(횡성읍 갈풍리), 샘골(갑천면 매일2리, 우천면 하대리), 못골(우천면 우향2리)과 같이 다른 골짜기에는 없는 샘이나 못이 있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다.

⑦ 이새미골(횡성읍 내지리), 전서방네미골(횡성읍 내지리), 유산이골(횡성읍 정암3리), 강길어골(갑천면 병지방1리), 정개골(갑천면 병지방1리), 박씨네사이골(둔내면 영랑리)과 같이 이씨, 전씨, 유씨, 강씨, 정씨, 박씨들이 살았다고 하여 명명된 경우도 있다.

⑧ 산지당골(횡성읍 정암2리, 학곡2리, 갑천면 구방2리), 서낭당골(갑천면 구방2리), 지당골(갑천면 병지방1리)과 같이 예전에 산지당이 나 서낭당이 있었던 까닭에 명명된 경우도 있다.

⑨ 곳집거리(횡성읍 추동리), 곳집골(갑천면 전촌리)과 같이 상여를 보관하던 곳이나, 지금도 보관장소로 활용하는 곳집이 있는 골짜기라 명명된 경우도 있다.

⑩ 가마골(횡성읍 학곡1리), 숯터골(갑천면 구방2리), 숯가마골(갑천면 상대리), 와둔지(갑천면 상대리)와 같이 옹기, 숯, 기와 등을 굽던 가마터가 있던 곳이라 하여 명명된 경우도 있다.

⑪ 별통골(횡성읍 반곡리), 설통골(횡성읍 정암2리), 설통바우골(갑천면 매일2리)과 같이 별통을 설치하던 곳이라 하여 명명된 경우도 있다.

⑫ 절골(횡성읍 갈풍리, 내지리, 정암2리), 불당골(횡성읍 정암3리, 학곡2리)과 같이 예전

4) 본고의 자료는 발표자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접 현지를 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거르지 않고 정리한 것이다. (이영식, 『횡성의 지명 유래』, 횡성문화원, 2001 참조) 그러므로 검증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분류한다는 것은 국어학, 역사학, 지리학, 민속학 등 지명과 관련된 인접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횡성군민 사이에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는 골짜기명의 유래를 중심으로 유형 및 분포 양상을 정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에 절이 있던 곳이라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다.

⑬ 논골(횡성읍 학곡2리), 무채밭골(횡성읍 정암3리)7), 좁섬목이(갑천면 병지방2리)와 같이 논이 있던 골짜기, 특이한 방식으로 곡식을 심던 곳, 좁쌀을 많이 생산하던 곳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다.

⑭ 덕골(횡성읍 학곡2리), 원골(횡성읍 학곡2리)과 같이 예전에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으로 죽으면 덕을 설치하여 임시로 옮겨 놓았던 곳, 원이 묶어 갔던 곳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다.

⑮ 왕덕골(횡성읍 내지리), 용사골(횡성읍 청룡리)과 같이 왕이 날 묘자리가 있다거나, 용이 승천하다가 사람의 눈에 띄어 죽었다는 등 풍수설이나 전설에 의해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바람부리(횡성읍 마옥리), 사태골(횡성읍 조곡리), 벼락박골(둔내면 궁중리), 지르러미(횡성읍 내지리), 피난박골(횡성읍 정암2리), 독가마골(횡성읍 정암2리), 도독골(갑천면 대관대리), 초당골(우천면 두곡리), 동서죽은골(우천면 오원3리), 움골(안흥면 성산리), 공동묘지골(안흥면 안흥2리), 미골(안흥면 지구2리), 중사린골(강림면 강림2리), 예배당골(강림면 강림4리) 등과 같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사태가 나서, 벼락을 맞아서, 질러 가는 골짜기, 피난한 곳, 가마타고 온 곳, 도독이 있던 곳, 서당이 있던 곳, 묘가 있는 곳, 절이 있던 곳, 사람이 죽은 곳, 움집이 있던 곳, 증을 화장한 곳, 교회가 있던 곳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다.8)

이상으로 유래가 정리된 골짜기를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을 공통된 특징에 의해 더 큰덩어리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①과 ②의 경우는 골짜기가 뒤에 있어서, 건너 편에 있어서, 길어서, 막혀서, 넓어서 등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의 관계이다. 즉 이들은 골짜기의 방향과 형태에 의해서 각각 명명된 것이므로 이들은 자기 다른 묶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③, ④, ⑤, ⑥의 경우 그 골짜기에 자주 나타나거나 터를 잡고 사는 동물, 그리고

5) 골짜기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수가 증감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횡성군의 주민들이 골짜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6) 발표자의 무주의로 조사·정리하지 못한 골짜기가 많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7) 무채밭은 무채농사 방식으로 밭을 만든 것으로, 풀이 있는 곳에 흙으로 덮고 그 위에 곡식을 심는 농사법이라고 한다.

주위의 다른 골짜기에 비교할 때 특이한 나무나 풀, 암석, 샘 등이 있어서 명명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자연물이라는 한정된 것에 의해서 명명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동일한 자연물이라고 하여도 ③의 경우 동물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유동적인 것이라 고정적으로 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나무, 풀, 돌, 샘 등에 의해서 명명된 ④, ⑤, ⑥과는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호랑이, 곰과 같은 동물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도 이들과 관련된 지명유래가 구비 전송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호랑이 곰 등이 그 곳에 존재하였기에 명명된 당시의 골짜기명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으며, 아울러 특정의 풀이나 나무, 돌, 샘 역시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골짜기명은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유동적인 것과 고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연물에 의해서 명명된 것이라하여 하나로 묶어도 큰 부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의해서 명명된 것이지만, ⑮의 경우는 풍수설이나 전설에 의해서 명명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모두 인간의 삶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⑮의 경우는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간접적인 사항이므로 이들을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한편 바람부리, 사태골, 벼락박골 등은 그 골짜기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사태가 나서, 벼락을 맞아서 명명되었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은 어떠한 형태로 골짜기가 훼손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명명된 것이 아니라 바람, 산사태, 벼락 등 자연현상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명명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어느 곳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독립적인 사항들이다.

사정이 이와 같기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자 한다.

- 첫째, 골짜기의 위치에 따라 명명된 것인가?
- 둘째, 골짜기의 형태에 따라 명명된 것인가?
- 셋째, 골짜기에 있는 어떤 특징적인 자연물에 의해서 명명된 것인가?
- 넷째, 사람들의 삶의 흔적에 의해 명명된 것인가?
- 다섯째, 전설 또는 풍수지리에 의해 명명된 것인가?
- 여섯째, 자연현상에 의해 명명된 것인가?

8) 강림면 강림4리에 있는 예배당골은 일제 때 교회가 있었던 관계로 명명된 것인데 해방되면서 교회건물은 없어졌다고 한다. 이 곳에 교회가 생긴 것은 근처에 금을 캐던 광산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관계로 교회가 들어섰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여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각기 묶여지는 골짜기들을 유형이라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분류된 각 유형에 이름을 붙인다면, 위치에 따라 命名된 골짜기들을 '위치 유형'이라 하며, 크기나 생김새 등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골짜기들을 '형태 유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있는 특정 농물, 나무, 돌, 샘물 등에 의해서 명명된 골짜기들을 '자연물 유형'이라고 한다. 또 사람이 그 골짜기에서 생활을 했거나, 논이나 밭이 있어서, 옹기나 솥을 굽던 가마터, 절, 예배당 등 특정한 건축물이 있었던 곳, 묘가 있어서, 광산이 있어서 등과 같이 사람의 삶의 흔적에 의해서 명명된 경우를 '생활 유형'이라 하며, 전설이나 풍수지리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골짜기들을 각각 '전설·풍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바람, 산사태, 벼락 등에 의해서 명명된 골짜기들을 '자연현상 유형'이라고 한다.

이상의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각 유형에 포함되는 골짜기 수를 각 읍면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읍면별 유형의 골짜기 수 및 백분율)

읍면 \ 유형	위치 (백분율)	형태 (백분율)	자연물 (백분율)	생활 (백분율)	전설, 풍수 (백분율)	자연 현상 (백분율)	기타 (백분율)	골짜기수 합계
횡성읍	15 (18.29%)	17 (20.73%)	19 (23.17%)	27 (32.92%)	2 (2.43%)	2 (2.43%)	0 (0%)	82
갑천면	21 (12.35%)	28 (16.47%)	55 (32.35%)	58 (34.11%)	4 (2.35%)	3 (1.76%)	1 (0.58%)	170
강림면	5 (14.70%)	8 (23.52%)	13 (38.23%)	5 (14.70%)	3 (8.82%)	0 (0%)	0 (0%)	34
공근면	28 (15.50%)	38 (20.32%)	58 (31.01%)	52 (27.80%)	7 (3.74%)	3 (1.60%)	0 (0%)	187
둔내면	11 (13.92%)	19 (24.05%)	18 (22.78%)	21 (26.58%)	7 (8.86%)	3 (3.79%)	0 (0%)	79
서원면	15 (12.50%)	23 (23.12%)	45 (37.50%)	32 (26.66%)	8 (4.16%)	0 (0%)	0 (0%)	120
안흥면	17 (20.50%)	19 (23.17%)	15 (18.29%)	25 (30.48%)	5 (6.09%)	1 (1.21%)	0 (0%)	82
우천면	16 (9.24%)	28 (16.18%)	58 (33.52%)	58 (33.52%)	6 (3.46%)	2 (1.15%)	5 (2.89%)	173
청일면	21 (17.78%)	20 (14.08%)	39 (27.46%)	56 (39.43%)	4 (2.81%)	2 (1.40%)	0 (0%)	142
소계	150 (14.03%)	200 (18.70%)	320 (29.93%)	334 (31.24%)	43 (4.02%)	1 (1.49%)	6 (0.56%)	1069

3. 각 읍면에 나타난 유형의 특징

위에서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이 여섯 유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골짜기 명명의 유래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먼저 도표상에 나타난 각 읍면의 골짜기에 나타난 유형을 백분율이 높은 것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횡성읍: '생활' → '자연물' → '형태' → '위치' → '전설·풍수', '자연현상' → 기타
 갑천면: '생활' → '자연물' → '형태' → '위치' → '전설·풍수' → '자연현상' → 기타
 강림면: '자연물' → '형태' → '위치, 생활' → '전설·풍수' → '자연현상', 기타
 공근면: '자연물' → '생활' → '형태' → '위치' → '전설·풍수' → '자연현상' → 기타
 둔내면: '생활' → '형태' → '자연물' → '위치' → '전설·풍수' → '자연현상' → 기타
 서원면: '자연물' → '생활' → '형태' → '위치' → '전설·풍수' → '자연현상', 기타
 안흥면: '생활' → '형태' → '위치' → '자연물' → '전설·풍수' → '자연현상' → 기타
 우천면: '자연물', '생활' → '형태' → '위치' → '전설·풍수' → 기타 → '자연현상'
 청일면: '생활' → '자연물' → '위치' → '형태' → '전설·풍수' → '자연현상' → 기타

위에서 보듯이 각 읍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유형은 '생활' 또는 '자연물'임을 알 수 있다. 즉 읍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생활'과 '자연물'에 의해서 골짜기가 명명되는 것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읍면이 '위치', '형태', '자연물', '생활'에 집중되어 있는데, 둔내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횡성군 전체의 백분율을 보면 더욱 뚜렷하다.

'생활'은 예전에 사람들이 활용한 결과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¹⁰⁾ 다시 말해 골짜기에 논이나 밭을 일구고, 서낭당과 산지당을 짓고, 광산을 개발하고 살았던 것이 '생활'로 분류된 것이기에 '생활'의 백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골짜기를 폭 넓게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림면과 같이 '생활'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은 백분율을 보이는 것은 예전에 골짜기의 활용도가 다른 곳보다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살필 수 있는데, 앞에서 밝혔듯이 강림면은 82%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유래가 밝혀진 골짜기 수는 34개로 다른 곳의 절반도 안되는 숫자이다. 그리고 인구밀도 역시 횡성군 관

9) 각 유형에서 '유형'이라는 말은 생략한다. 이후 설명이 없이 '위치', '형태' 등과 같이 표기한 것은 '위치 유형', '형태 유형'을 의미한다.

내에서 가장 낮은 1.5이다. 이렇듯 강림면에서 '생활'이 적은 수치를 보이는 까닭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¹¹⁾

'전설·풍수'에 있어서 강림면과 둔내면은 각각 8.82%, 8.86%로 다른 면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둔내면은 말부담이골(마암1리), 백장골(마암1리), 대제터골(삼교2리), 땡자골(석문2리) 등 다양한 전설과 풍수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강림면은 조선 태종(강림2리 마치골, 부곡2리 원통골)과 각림사(강림2리 정양골)라는 절과 관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림면에 전해오는 지명중 '노고소', '횡지암', '태종대' 수레님이 등에도 태종의 전설이 함께 전해오는데, 골짜기명에 태종과 관련된 유래가 함께 구전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겠다.

기타로 분류된 갑천면의 충충골(삼거리), 우천면의 아차골(오원3리), 공골, 물언골, 미안골(용둔리), 검은동굴(하궁1리) 등 6개가 있는데, 이들은 위에 설정한 여섯 유형 중 어디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방아다리(둔내면 영랑리), 다리골(안흥면 안흥1리)은 같은 형태의 골짜기를 명명한 것임에도 그 비유를 하나는 디딜방아에서, 다른 하나는 사람의 다리에서 유추하여 명명한 것이 이채롭다. 또 동일한 다리골(안흥면 안흥1리, 우천면 오원3리)이라고 하여도 오원3리의 경우는 다리가 놓여 있어서 명명된 경우로 안흥1리의 유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횡성군의 골짜기는 추상적인 의미의 내용으로 명명되는 것이 아니다. 즉 횡성군은 '생활(31.24%)' → '자연물(30.02%)' → '형태(18.70%)' → '위치(14.03%)' → '전설·풍수(4.02)' → '자연현상(1.49)' → 기타(0.56%)의 순으로 정리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명명한다. 따라서 횡성군의 골짜기 명명은 전설이나 풍수지리와 같은 추상적인 사항을 가지고 명명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골짜기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0) 물론 '위치', '형태', '자연물' 등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골짜기는 활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활용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11) 현재 인구밀도가 낮은 것이 화전민정리사업이나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이농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정은 다른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예전에도 강림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낮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4. 맺음말

횡성군은 임야가 전체 면적의 77.9%를 차지하는 관계로 많은 골짜기가 있다. 그리고 그 골짜기마다 먼저 이땅을 살다 돌아가신 선조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골짜기 命名에 대한 유래는 물론 그 이름마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통이 발달하고 빨간인 나무를 석탄이나 석유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화전민정리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발표자가 조사·정리한 횡성군의 지명유래 중 골짜기부분만을 발췌·정리하여 명명에 대한 유래를 중심으로 분류 기준을 세워서 유형을 나누어 본 것이다. 따라서 잘못 설정한 기준에 의한 오류도 있을 것이며, 그 오류에 의한 잘못된 해석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강림면의 경우처럼 조사되지 못한 지명 및 유래가 더 조사·정리되어야 보다 충실한 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횡성군 골짜기명 자료]

횡성읍(橫城邑)

<갈풍리>

갈거리 [골] 우렁바우에 있는 골짜기로, 갈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른골 [골] 능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나무골 [골] 능골에 있는 골짜기로, 대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가마골 [골] 재삼이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골 [골] 능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골 [골] 갈풍리 1,2,3반에 걸쳐 있는 골짜기로, 성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탕골 [골] 재삼이에 있는 골짜기로, 약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우렁바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능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골 [골] 능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호랑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천리>

뒷골 [골] 옷개밭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곡교리>

송각시당골 [골] 굽은다리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송각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궁천리>

밤나무골 [골] 궁천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태골 [골] 궁천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잎과 줄기가 쓴 소태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앞골 [골] 궁천리에서 송전리와 통하는 골짜기로, 송전리의 옛 이름이 솔앞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오목골 [골] 궁천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오목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남산리>

뒷골 [골] 남산리를 바라보며 우측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 앞에 마을이 있었던 까닭에 당시는 마을 뒤에 해당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이 골 아래에는 마을이 없다.

<내지리>

여우박골 [골] 예지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여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왕덕골 [골] 분터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왕이 날 묘자리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새미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생원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서방네미골 [골] 이새미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전서방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마을 앞 개울 건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큰절골과 작은절골이 있다.

지르러미 [골] 질갓말에 있는 골짜기로, 마옥리 가늑골을 질러가는 길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집넘애 [골] 뒷배루 가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옥리>

바람부리 [골] 소구니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앞골 [골] 소구니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로, 송전리와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소구니 저수지 뒤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평리>

귀용골 [골] 옷말에 있는 골짜기로,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우부골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목계리>

막내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마지막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안말 뒤에 있는 골짜기로, 우묵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반곡리>

벌통골 [골] 사려울에 있는 골짜기로, 벌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챗골 [골] 아랫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오씨 성을 가진 분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려울과 부리개로 통한다. 20여 년 전에 이 골에서 동전도 나왔다고 한다. '오쳐동' 이라고도 한다.

짹바우 [골] 무리개에 있는 골짜기로, 짹바우라는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새골 [골] 옷말에 있는 골짜기로, 참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사려울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북천리>

새골 [골] 뒷내 건너에 있는 골짜기로, 새초(역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생운리>

곳집골 [골] 양지땀에 있는 골짜기로, 곳집이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빠진골 [골] 음짓말 뒤 덕고산에 있는 골짜기로, 산능성이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жат나무골 [골] 양지땀에 있는 골짜기로, жат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공동산이 있다.

진골 [골] 자빠진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옥동리>

방아골 [골] 옥동리 방아골과 통하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방아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암1리>

뒷골 [골] 누룬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암2리>

독가마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좋은 약수가 있어서 예전에 고관대작(高官大爵)들이 가마를 타고 드나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독박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독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명복바우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명복바우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곳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설통을 많이 설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나무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신배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룡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청룡리와 통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난박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피난바우라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병자호란 때 이 바위로 피난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암3리>

도둑골 [골] 안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도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채밭골 [골] 망백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무채농사를 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망백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유산이골 [골] 망백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유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유산이골과 작은유산이골이 있다.

진골 [골] 망백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풍바우골 [골] 망백에 있는 골짜기로, 골에 있는 바위가 병풍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곡리>

사태골 [골] 도일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룡리>

동막골 [골] 동쪽 덕고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골 [골] 석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뱀처럼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사골 [골] 이곳에서 청룡이 이른 아침에 등천하려고 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느 부인이 보고 “저기 용이 올라간다”고 했다. 그래 용이 등천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었다고 한다.

절골 [골] 절이 있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빈대로 인하여 절이 망했다고 한다. 20년 전에 사리탑을 마을로 옮기던 중 골짜기로 떨어졌는데, 지금도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추동리>

곳집거리 [골] 안추동에 있는 골짜기로, 곳집을 두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광지랭이 [골] 안가래울에 있는 골짜기로, 농경지가 광주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가래울 [골] 안가래울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마을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집념애 [골] 안가래울에 있는 있는 골짜기로, 광지랭이 너머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학교1리>

가마골 [골] 쇠판이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옹기가마와 숯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팔봉골 [골] 큰골에 있는 골짜기로, 산봉우리가 8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곰내미 [골] 화채봉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막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골 [골] 하일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전염병이 돌 때 전염된 사람이 죽으면 덕을 설치하여 시체를 임시로 옮겨 놓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막골 [골] 하일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막골과 웃막골이 있다.

먹골 [골] 숲밖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곰내미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숲밖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자골' 이라고도 한다.

원골 [골] 숲밖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원님이 목어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жат나무골 [골] 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ж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학곡2리>

회골 [골] 하일에 있는 골짜기로, 회(灰)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갑천면(甲川面)

<구방1리>

남대골 [골] 은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남쪽으로 난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동대골 [골] 은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쪽으로 난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말밭골 [골] 은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위에 말 발자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응달말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방2리>

골막 [골] 한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짜기가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서낭배기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당골 [골] 한치저수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터골 [골] 좁은농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숫을 많이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무골 [골] 산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로 피난을 가서 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수골 [골] 한치저수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홍수풀이'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수풀이'는 누가 물에 빠져서 죽거나 하면 부당이 곳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관대리>

고사리골 [골] 세목다리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사리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바우골 [골] 물위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바위에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골 [골] 삼배골 진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둑골 [골] 삼배골을 접어들며 우측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도둑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장거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학골 [골] 사기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옥농리 방학골과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보리밭골 [골] 장거리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보리를 많이 심어 붙여진 이름이다.

심난골 [골] 사기막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서 산삼이 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사기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삼배골을 접어들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1리>

떼수 [골] 뒷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용성사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수장골'이라고도 한다.

<매일2리>

돌장자골 [골] 매일2리에서 검두고개를 올라가며 왼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돌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장자로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새끼친골 [골] 샘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돼지가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샘골 [골] 매일2리에서 검두재를 가며 오른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샘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샘골과 웃샘골이 있다.

설통바우골 [골] 옷소구니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설통을 많이 설치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소구니 [골] 청일면 유평리 소구니와 통하는 골짜기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찰돌골 [골] 돼지새끼친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찰돌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섬동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3리>

옷나무골 [골] 옷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지방1리>

가는골 [골] 장승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고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래나무골 [골] 장승재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길어골 [골] 정개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강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길어골'이라고도 한다.

곤드레골 [골] 수리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곤드레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돈너미 [골] 새터간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돼지가 잘 다니는 길복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뒤골 [골] 완상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사태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복상나무골 [골] 샘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복숭아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빈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태골 [골] 달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골 [골] 병지방리 하천이 발원하는 지역으로, 샘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골 [골] 가래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리바우골 [골] 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수리가 해마다 새끼를 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옷밤골 [골] 공서울 초입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은 복화가 잘 되어서 그것으로 옷을

해 입고, 또 그것을 팔아서 곡식을 구입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움골 [골] 된내미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움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개골 [골] 전신애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정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증개골'이라고도 한다.

지당골 [골]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당골 [골] 곤드레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터골 [골] 옷밭골 맞은 편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골 [골] 셋말 서낭당 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장골 [골] 망태덕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황장목으로 쓰던 소나무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지방2리>

두루목이 [골] 석벽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의 형상이 두루몽실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두루목이와 작은두루목이가 있다.

먼골 [골] 곧은골에 있는 골짜기로, 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먼골과 작은먼골이 있다.

석벽골 [골] 곧은골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석벽골과 큰석벽골이 있다.

승지골 [골] 어답산 아래 귀옹소가 있는 골짜기로, 정사를 돌보던 승지들이 거주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탕골 [골] 산뒤골에 있는 골짜기로, 약물이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잡골 [골] 산뒤골 안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갈래의 골짜기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좁섬목이 [골] 산뒤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뒤골에서 조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조를 수확해도 골짜기마다 수확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춧골 [골] 당거리에서 병지방1리로 가는 길복에 있는 골로, 골 입구에 있는 바위가 마치 주춧돌을 엮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바우골 [골] 화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호랑이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장골 [골] 큰자차골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남긴 시체를 이 골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동리>

절골 [골]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거리>

고사리골 [골] 홍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용골 [골] 동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소 구유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점골 [골] 어염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사금을 많이 채취하여 금점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도둑골 [골] 어염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도둑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무리골 [골] 골짜기가 포동리 마무리에서 동막까지 이어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동막골과 어염골이 이 골안에 있다.

배나무골 [골] 동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골탕골 [골] 어염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한약재인 산골이 많이 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선다래이골 [골] 동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논 한 마지기가 원다래이로 갈라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식염골 [골] 비독치재 옆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먹는 소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골 [골] 안말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퍼리골 [골] 홍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높이 있어 골이 짙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충충골 [골] 선바위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에 나무들이 많아 어둡침침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안말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쟁이 [골] 예전 태기왕 이곳에 군사를 이끌고 주둔 시에 부기와 식량 및 각종 물자를 저장

하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골 [골] 골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대리>

감투바우골 [골] 차돌곡지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마치 감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거성바우골 [골] 웅골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호랑이가 상복을 입은 상주를 해치고 건만 바위에 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곰신골 [골] 누릅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곰이 겨울잠을 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뒤골 [골] 버덩말에 있는 골짜기로, 서낭당 뒤에 위치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서낭당이 없다.

대골 [골] 곰신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산죽이 자생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자미골 [골] 웅골 초입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의병장의 시신을 묻은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대장미골'이라고도 한다.

바랑골 [골] 증사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증을 해치고 증의 바랑만 남겨 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버덩말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바우골 [골] 분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골에서 예전에 호랑이가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벼락바우골 [골] 웅골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벼락을 맞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람죽은골 [골] 누릅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금실 좋은 부부가 이 골에서 살다가 남편이 질병으로 죽자 그리움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시래골 [골] 설통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사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밭골 [골] 솟가마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삼밭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골 [골] 버덩말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많은 철새들이 겨울을 보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바우골 [골] 누릅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설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죽은골 [골] 옷말 솔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로, 풀을 먹이기 위해 매어두었던 소가 밧줄에 감기어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숫가마골 [골] 옷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숫을 구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와둔지 [골] 소죽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기와를 굽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터골 [골] 옷말에 있는 골짜기로, 6.25 때 이 골에서 움집을 짓고 난을 피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사른골 [골] 웅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중이 죽으면 화장을 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당골 [골] 뱀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차돌곡지 [골] 주안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차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율동리>

당치성골 [골] 반장골 위에 있는 작은배나무골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밤골에 있는 큰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지방골 [골] 큰배나무골에서 병지방으로 통하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리밭골 [골] 산구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큰 보리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골 [골] 보리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통을 많이 설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도롱골 [골] 되롱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짙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세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촌리>

검정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응달쪽에 있는 관계로 어두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곶집골 [골] 안말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부터 상어를 보관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구비 [골] 도화목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이 굽이쳐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어택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다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박술 [골] 도화동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화목 [골] 병지방으로 가며 초입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도화암(桃花菴)이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뒫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막이 [골] 돌목재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태기왕이 어답산에 있을 때 병사들이 이 골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제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문막이와 작은문막이가 있다.

밤나무골 [골] 어택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봉굽이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병지방계곡과 삼거리 저수지 물이 합수되는 지점에서 신봉산 아래 물이 굽이도는 현상을 이르는 것이다.

오리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청둥오리가 많이 서식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재상머리 [골] 어택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임금이 떠나갈 때 이곳에서 재상들이 배웅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진양지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금리>

논골 [골] 쟁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논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둔텃골 [골] 예전에 군대 주둔지가 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뒫골 [골] 중금교회 좌측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당바우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서 무당이 굿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예전에 암자가 있던 자리로, 큰 불당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빙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는 것으로, 응달쪽에 위치한 관계로 눈이 늦게까지 쌓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삼밭골 [골] 마당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새삼이라는 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등애골 [골] 쟁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소 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추농리>

골말 [골] 추농출장소가 있던 자리의 뒤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가리킨다.

닥밭골 [골] 들깨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닥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둘깨골 [골] 옴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옴무골과 나란히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골 [골] 염수골 안 우측으로 마지막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멧돼지를 많이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뿃골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띠밭골 [골] 횃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띠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면화밭골 [골] 띠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면화를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목내미 [골] 큰버드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근면 삼배리로 넘어가는 복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버드나무골 [골] 진서덕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복상나무골 [골] 염수골로 접어들며 좌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복송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재피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골 [골] 가래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벌을 많이 치던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수채골 [골] 도화목 좌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눈에 물을 대는 수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나무골 [골] 중방바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홉다래이골 [골] 주치재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홉 다래이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다랭이 [골] 최좌수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지쪽에 논다랭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염수골 초입 좌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우묵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이 나온다.

움무골 [골] 수채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다랭이 [골] 산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응달쪽에 논다랭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작은염수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진골과 큰진골이 있다.

지피골 [골] 여내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서덕 [골] 큰진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나무가 많다고 한다.

최좌수골 [골] 큰가래울 우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최좌수라는 분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횃골 [골] 복상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서 백회를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포동1리>

가는골 [골] 작은석곶이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골 [골] 논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갈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석골 [골] 가는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고래골에 있는 골짜기로, 고래고개에서 고래골로 내려오며 오른쪽 첫 번째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천수답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포동2리>

가래나무골 [골] 부영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래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둘째골 [골] 첫재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영이골에서 두번째 있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둘째건넌골'이라고도 한다.

뒤골 [골] 참샘물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랫장터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엉바우골 [골] 부엉바우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첫째골 [골] 부엉바우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첫번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대1리>

곤드레골 [골] 웃너부리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곤드레 나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주래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치성을 드리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대촌에 있는 골짜기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대2리>

사태골 [골] 아랫너부리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골 [골] 아랫너부리에 있는 골짜기로, 옷이 올랐을 때 먹으면 낫는 약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전리>

곶은골 [골] 큰골 옆 부명용사 위령탑이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곶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림면(講林面)

<강림1리>

밤나무골 [골] 선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가골 [골] 선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개골'이라고도 한다.

익모초골 [골] 이 골에서 익모초가 많아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새골 [골] 골 모양이 팽이처럼 원을 그리면서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림2리>

마치골 [골] 보건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 태종이 그의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고, 이 골에서 배향산을 향해서 배향을 하므로써 자신이 일을 마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치골'이라고도 한다.

정양골 [골] 버덩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각림사라는 절이 있을 때, 중이 많아서 한 번 쌀을 씻으면 쌀뜨물이 영월 법흥사까지 흘러갔다고 한다. 그 당시 중이 입적하면 화장하는 장소를 이 골로 정했으나, 마을이 가까이 있던 까닭에 중사된골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렇게 번창하던 절이 빈대로 인해서 망했다고 한다. 각림사에 있던 종은 치악산 구룡사로 가 있고, 부처는 오대산 월정사에 있다고 한다.

<강림3리>

고사리골 [골] 고사리재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고사리골과 작은고사리골이 있다.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나무골 [골] 송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웃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림4리>

가운데골 [골] 아랫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랫골과 뱀장골 사이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산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제 때 금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안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이 골을 안고 돌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이 부곡리 횡지암으로 향해 있다.

밤나무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장골 [골] 아랫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재골 [골] 강림4리에서 안흥3리 새재와 통하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골 [골] 아랫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배당골 [골] 수레넘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제 때 이 골에 교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림5리>

강화리밭골 [골] 이 골에 강활이라는 약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더랭이골 [골] 골이 도롱이를 펼쳐놓은 것처럼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른골 [골] 골이 바르게 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부채골 [골] 이 골에 부채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골 [골]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큰신배나무골과 작은신배나무골이 있다.

췌기골 [골] 골이 췌기처럼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곡1리>

뒷갈골 [골] 갈골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갈골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횡지암골 [골] 가래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횡지암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곡2리>

고든치골 [골] 고든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석골 [골] 무릎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 안에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성골 [골] 산이 성을 쌓은 것처럼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통골 [골] 고든치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 태종이 그의 스승 운곡 원천석을 만나지 못하고 이 골로 원통하게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현1리>

고무골 [골] 계소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곰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암골 [골] 밤고개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박달골 [골] 고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박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현2리>

산지당골 [골] 달읍밭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채당골 [골] 상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근면(公根面)

<가곡리>

꽃밭골 [골] 장터 뒤에 있는 골짜기로, 봄이면 꽃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전동'이라고도 한다.

두째골 [골] 절골 안 첫째 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두 번째 있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유장골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뒷골과
웃뒷골이 있다.

막장골 [골] 배설에 있는 골짜기로, 막바지에 있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세째골 [골] 두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세 번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머니고개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첫째골 [골] 절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첫 번째 있는 골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공근리>

구용골 [골] 절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국자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입구가 길고 좁으나 안은 제법 넓어 모양이 마치 국자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국제골'이라고도 한다.

논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작은 논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능안골 [골] 별묘에 있는 골짜기로, 초계(草溪) 정씨들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촌리>

상장골 [골] 호진에 있는 골짜기로, 맨 위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칠봉산
밑에 있다. '상재골'이라고도 한다.

안호진 [골] 호진에 있는 골짜기로, 호진 안에 있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도곡리>

공알골 [골] 성재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여자의 성기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못골 [골] 하우고개 올라가며 옆에 있는 골짜기로, 연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쇠골 [골] 여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무쇠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점말 원유근 댁 뒤에 있는 골짜기로,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골고개 [골] 아랫말에서 학담2리 성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여바우골 [골] 매덩이골 위에 골짜기로, 여우가 이 골에 있는 바위에서 새끼를 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바우골'이라고도 한다.

호랑골 [골] 장막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잘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화약골 [골] 가부남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일정 때 광산에 쓰는 화약을 이 골에 두었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뿔돌배기 [골] 무쇠점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서 회(灰)를 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서는 회를 캐고, 굽는 곳은 신촌리에 있었다고 한다.

<매곡리>

가장골 [골] 산뒤골에서 올라가며 우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어린이가 죽으면 가매장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굴바우골 [골] 진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에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추나무골 [골] 독재봉 턱진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대추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다랭이골 [골] 세다랭이 아래 있는 골짜기로, 두 다랭이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뿔골 [골] 요골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가나무골 [골] 굴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물가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번개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마을] 요골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첫논다랭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큰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번개바우골 [골] 소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장마 때 이 골에 있는 바위에서 폭포수 같이 물이 흐르는데, 번개가 치면 이 바위에 자주 맞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호랑바우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섬바우골 [골] 호진 위에 있는 골짜기로, 바위 두 개가 엮혀 있는 것이 마치 섬을 쌓은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세다랭이골 [골] 수백리 경계에서 산뒤골로 내려오며 오른쪽으로 있는 첫 골짜기로, 예전에 논 세다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똥골 [골] 가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소를 많이 매어 놓았던 까닭에 소똥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장골 [골] 농막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6.25 때 좌익들을 처형한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팔바우골 [골] 산지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이팔' 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곱다랭이골 [골] 이팔바우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일곱 다랭이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요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첫논다랭이골 [골] 일곱다랭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산뒤골 초입에서 첫 논이 있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물가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턱진골 [골] 오리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턱이 저서 붙여진 이름이다.

턱진골 [골] 녹재봉 질재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턱이 저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바우골 [골] 턱진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새끼를 친 골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진 [골] 소통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호국(중국) 놈들이 이 골에 진을 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창리>

가래울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가래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옷가래울과 아랫가래울이 있다.

가재골 [골] 골짜기의 형상이 가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 중에 간질병이 발생한다고 한다.

공자무골 [골] 학골에 있는 골짜기로, 선비가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끝썰매골 [골] '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가파른 관계로 나무를 해서 내려올 때는 지개를 끌고 내려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학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조그만 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느릅나무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느릅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삐뚜리골 [골] 학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꼬불꼬불하여 나무를 지고 내려올 때는 삐딱한 자세로 내려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밭골 [골] 새이삼군리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삼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서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은 국유림으로 예전에 영이 내려져야 갈을 찍을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응달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세골 [골] 안삼군리에 있는 골짜기로, 자세봉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배리>

갈골 [골] 터안에 있는 골짜기로, 갈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박골 [골] 옷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동백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목골 [골] 터안에 있는 골짜기로, 멧돼지를 잡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마당터골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머느리골 [골] 쇠경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쇠경골에 사는 소경의 머느리가 살던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바지가닥골 [골] 터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바지 가랭이처럼 둘로 갈라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망골 [골] 터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집을 짓고 살면 죽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속개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에서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쇠경골 [골] 터안에 있는 골짜기로, 소경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수골 [골] 옷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용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세골 [골] 옷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자세봉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재삼밭골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삼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바우골 [골] 궁터에 있는 골짜기로,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화전을 하다가 굴러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아랫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탐골 [골] 옷삼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동리>

가는골 [골] 조촌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골 [골] 상개울 옆에 있는 골짜기로, 갈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루골 [골] 어영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노루를 많이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골 [골] 조촌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울곡'이라고도 한다.

배나무골 [골] 조촌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조골 [골] 동미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서씨와 조씨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골 [골] 늘미에 있는 골짜기로, 설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양골 [골] 조촌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안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내골 [골] 흥천과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로, 냇가에 여우가 떼내려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삼원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치마주름 [골] 사시락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산이 치마주름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창봉리>

곰내미 [골] 지경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로 곰이 내려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작은배당이 위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릅지기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많이 내려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무릅지기와 작은무릅지기가 있다. '누릅지기' 라고도 한다.

배당이 [골] 회관 뒤에 있는 골짜기로, 천지개벽 때 서원에서 배를 끌고 와 이곳에 배를 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배당과 작은배당이 있다.

빨갱이골짜기 [골] 이십난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빨갱이가 이 골에 숨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기점골 [골] 상창봉리와 창봉리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사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치나무골 [골] 지오리골 초입에서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사치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큰배당이 위에 있는 골짜기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밭골 [골] 뒷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산삼을 캐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죽은골 [골] 사치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소를 때어 놓았는데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골 [골] 지오리골 신창식 택 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여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십난골 [골] 입벌 위에 있는 골짜기로, 용이 못된 이십이가 있던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좁다리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산바우골 [골] 마당재 옆에 있는 골짜기로, 화산이 터질 때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백리>

고리장골 [골] 고려장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고려장 했던 흔적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 있다. '구리장골' 이라고도 한다.

고사리골 [골] 대성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치골 [골] 승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가파르므로 치올라 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촌리>

가운데다리골 [골] 아랫다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가운데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띠밭골 [골] 마차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도롱이 등을 만들던 띠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다리골 [골] 다리골 뒤에 있는 골짜기로, 아래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덧밭골 [골] 띠밭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 화전을 할 때 골 전체가 밟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둔리>

밤골 [골] 세개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개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가늘고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시개골', '세개곡' 이라고도 한다.

웃어둔리 [골] 세개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어둔리 위에 있는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어둔리 [골] 샘말 뒤에 있는 골짜기로, 어둔리골에 비해 골이 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사는골 [골] 셋말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중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산리>

바른골 [골] 오미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바르게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바른골 [골] 동박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바르게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덕골 [골] 동박골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장빠진골 [골] 작장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묘에 구멍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개골 [골] 동박골 바른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하얀 개가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움무골 [골] 넘어땀 절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오미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피접시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턱진골 [골] 동박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똑바로 가다가 턱이 꺾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피접시골 [골] 넘어땀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전염병이 돌 때 이 곳에 환자를 옮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창봉리>

가골 [골] 사기점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사기점골 가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멍이골 [골] 여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구멍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다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락골' 이라고도 한다.
 물푸레골 [골] 여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물푸레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사기점골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기점골 [골] 평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사기점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밭골 [골] 여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재삼을 많이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석이버우골 [골] 담바우 안에 있는 골짜기로, 석이버섯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골쟁이 [골] 너러실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골 세개가 모여서 한 골을 이루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쇧가마골 [골] 개건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철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골 [골] 사기점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큰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골 [골] 아랫버덩에 있는 골짜기로, 청동오리들이 많이 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사기점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계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지계처럼 골이 갈라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경골 [골] 너러실에 있는 골짜기로, 상창봉리와 경계를 이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집뒤골 [골] 담바우 안에 있는 골짜기로, 집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횃가마골 [골] 개건네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회(灰)를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곡1리>
 재넘애골 [골] 작은시동에 있는 골짜기로, 산 너머에 있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는골 [골] 지우리재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가늘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초원1리>
 고사리골 [골] 북개뫼산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골 [골] 너븐밭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다리가 아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달밭구덩이 [골] 우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달이 이 골에 먼저 비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잡아박골 [골] 덕심이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만두골 [골] 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만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먼골 [골] 승마넘은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마을에서 멀리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못다리골 [골] 입벌 응달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 안에 연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갈골 [골] 입벌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로, 윈터와 통한다. 물갈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골 [골] 치매바우 옆에 있는 골짜기로,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성마나무개 옆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골 [골] 사기점터 옆에 있는 골짜기로, 뱀처럼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발 [골] 새비질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뱀처럼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벌통골 [골] 매망태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벌통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탄골 [골] 너븐발 마을 맞은 편에서 윈터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큰 불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비질골 [골] 물갈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장골 [골] 갯강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소를 많이 묶어 놓고 풀을 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나무골 [골] 벌통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골 [골] 윈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오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미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우뚝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르매기 [골] 덕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질러 가는 길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덕재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오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원면과 통한다.
 치매바우 [골] 뱀발 옆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치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초원2리>
 뒤통나무골 [골] 상아터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뒤통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보래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새터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뱀든골 [골] 새원 농업비료공장 뒤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상화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선이 [골] 새원 앞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학담1리>

논골 [골] 초당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태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난골 [골] 초당에 있는 골짜기로, 임진왜란 때 이 골로 피난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횃가마골 [골] 초당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회(灰)를 구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학담2리>

구시매기 [골] 물애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 길이가 90리가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성골 권기성 뒤편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성골 [골] 큰성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큰성골에 비해 골이 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초매박골 [골] 작은성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치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성골 [골] 성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행정리>

뒷골 [골] 너머행정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막바우 [골] 사시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명매기가 집을 짓고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기재 [골] 셋말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는데 불이 나서 다 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시나무골 [골] 셋말에 있는 골짜기로, 사시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골 [골] 셋말에 있는 골짜기로, 연못에 오리들이 많이 날아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당골 [골] 셋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샘골 [골] 너머행정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

둔내면(屯內面)

<궁중리>

견훤골 [골] 이 골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지붕이 날아갈 정도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벼락박골 [골] 갑천리 상대리와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벼락을 맞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친구비 [골] 궁중리 마을 도로와 6번 국도가 만나는 곳에 있는 계곡을 가리키는 것으로, 계곡이 깊고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궁중리 3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원1리>

웅장골 [골] 예전에 이 골에서 웅기를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원2리>

상막골 [골] 마을에서 맨 위에 있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골 [골] 설통을 많이 설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둔방내2리>

당골 [골] 넓은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무골 [골] 범이 이 골에서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암1리>

말무덤이골 [골] 옛날 백씨 집에 아기 장수가 태어났는데 집안을 망칠 우려가 있다고 맏놀로 눌러 죽었다. 그 후 백마가 나타나서 삼일 동안 울고 다니다가 이곳에서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예전에 돌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장골 [골] 검두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백장수가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삽교1리>

너러지 [골] 골안이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주봉 밑에 있으며 골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옷나무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옷밭골 [골] 골안이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옷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삽다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당골 [골] 큰국지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삽교2리>

갈밭구렁 [골] 삽다리재 옆의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갈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독양지 [골] 곧은골저수지(자포저수지)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지쪽에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계터골 [골] 곧은골저수지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풍수지리상 산지형이 좋

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른골 [골] 곧은골을 지나 매봉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바로 올라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태골 [골] 선애재 왼쪽으로 있는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다리골짜기 [골] 매봉에서 삼교1리와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숫가마골 [골] 삼다리재 옆에 있는 골로, 예전에 이 골에서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봉평면과 통한다.

주전터골 [골] 곧은골 둔내유스호스텔 안 양지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골에서 돈 찍는 기계를 가지고 돈을 찍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골 [골] 선애재를 넘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뒤골 [골] 선애재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는 큰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삼교3리>

갈골 [골] 구두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단지골 [골] 건중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마치 단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건중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채동림이미골 [골] 건중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채동림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전밭골 [골] 구두미 더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화전을 하던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문1리>

뱀애골 [골] 꽃벼루 용고개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뱀이 새끼를 배서 쌍룡고개를 넘어 삼교리 용소에 가서 용이 되어 승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문2리>

맹자골 [골] 사태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이 골에 있는 호랑이가 담뱃

대를 물고 맹자책을 읽었다고 한다.

여우밭골 [골] 양지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콩을 심던 농부가 한 여자에게 밥을 주고 그 사례로 콩 심는 일을 돕게 하였는데, 소가 여자를 자꾸 피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농부가 채찍으로 여자를 때리니 여자가 여우로 바뀌어 도망갔다고 한다. 이 곳을 여우가 밭에서 일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수골 [골] 물안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설에 의하면, 태기왕이 태기산으로 가는데 주력부대는 갑천·청일을 경유해 가고 일부 병력은 둔대로 들어와서 석문리 원수골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갔다고 한다. 당시 인솔자가 '원수'였다고 하여 원수골이라고 전한다.

<영랑리>

뒷골 [골] 추동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막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마지막 골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방골 [골] 피나무골에 있는 골로, 매를 놓아 사냥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박씨네사이골 [골] 피나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박씨들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아다리 [골] 피나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방아다리처럼 갈라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골 [골] 피나무골 안에 있는 골로,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썰기골 [골] 뒤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썰기처럼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나무골 [골] 추동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난골 [골] 피나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난을 피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수네집골 [골] 피나무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수네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용1리>

가운데골 [골] 큰골과 호랑골 사이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곳집골 [골] 땅중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곳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당중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이골 [골] 우용1리 4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소 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숲새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골 [골] 가운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골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이다.

<우용2리>

등골 [골] 문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형상이 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문탄에서 주봉으로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포곡2리>

건년골 [골] 아랫자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개울 건너 편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알가지 [골] 알가지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전에 여러 가구가 살았으나 현재는 없다.

산막골 [골] 옷자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아랫자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나무골 [골] 옷자필 선의재를 넘기 전에 정면으로 보이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웃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래골 [골] 옷자필 선의재 좌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짜기에 바위동굴이 있는데 그 곳에 자라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나무골 [골] 아랫자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항1리>

숫가마골 [골] 중간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숫을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시골 [골] 중간말 둔내초등학교 조항분교(1999년 폐교)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사람이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초골 [골] 중간말 인시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주초라는 약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항2리>

도둑골 [골] 아래동박에서 안흥면 지구2리 상터와 통하는 골로, 예전에 도둑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터골 [골] 아래동박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안흥면 지구2리 상터로 통하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옷동박에서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와 통하는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나무골 [골] 도둑골 옆에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천1리>

두멍골 [골] 용수목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두멍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천2리>

뒷골 [골] 거릿말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박골 [골] 범바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여우가 자주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주골 [골] 범바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촘촘이 자주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머니골 [골] 범바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머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천3리>

직골 [골] 뿔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똑바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천4리>

더가니골 [골] 자작정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더가니 더가니”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골 [골] 삼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머니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주머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흙다리골 [골] 삼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돌은 없고 흙만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원면(書院面)

<금대리>

가새바우골 [골] 명천동 우측 첫 번째 골짜기로, 가위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당터골 [골] 비등목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 안에 넓은 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먹은골 [골] 진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명천동(明泉洞) [골] 검두 동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명천(明泉)'이라는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대나무골 [골] 새원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로, 박달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돌자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골 [골] 돌자골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안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천주교 금대공소 뒤에 있는 골짜기로, 우묵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횃개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은 빈대로 망했다고 한다.

진골 [골] 가새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산지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화1리>

다리골 [골] 안팎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나무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터골 [골] 옷스무나리에 있는 골짜기로, 골 안에 좋은 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수골 [골] 아랫스무나리에 있는 골짜기로, 약수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아터골 [골] 아랫스무나리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장작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푸나무골 [골] 안팎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짜작나무골 [골] 아랫스무나리에 있는 골짜기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화2리>

논골 [골] 돌곶이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택지조성하는 곳이다.

뒷골 [골] 약산전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돌곶이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약산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처대이 [골] 약산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돌부처가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시랑골 [골] 새점터에 있는 골짜기로, 쇠스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새점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돌곶이 논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약사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화3리>

곶은골 [골] 거슬치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곶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현2리 수구대와 통한다.

꼬부랑골 [골] 사장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꼬불꼬불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선섬내기 [골] 거슬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조 50섬을 농사 지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언덕골 [골] 작골에 있는 골짜기로, 언덕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미기 [골] 작골에 있는 골짜기로, 유현2리 피미기와 통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압곡리>

강아지골 [골] 동당미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이홉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굴 입구는 하나인데 들어가면 9개의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래바우골 [골] 골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에 넓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바우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말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당미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무당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뺨골 [골] 동당미에 있는 골짜기로, 뺨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골 [골] 동당미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바우골 [골] 금대리와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시나무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사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나무골 [골] 동당미에 있는 골짜기로,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싸리밭골 [골] 물골에 있는 골짜기로, 싸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애미골 [골] 물골에 있는 골짜기로, 중을 묻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쟁이골 [골] 개근네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계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오상동을 질러가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박서방네 [골] 물골에 있는 골짜기로, 박서방네 만형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옥계1리>

곤달 [골] 대산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고무래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괘달'

이라고도 한다.

뒷골 [골] 대산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맥작골 [골]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잡곡을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람골 [골] 옥지기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앞에 있으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새절골 [골] 옥지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심사곡' 이라고도 한다.

아흔아홉골 [골] 대산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골까지 포함해서 99개가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옥지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절골' 이라고도 한다.

절터골 [골] 명명바우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텃골 [골]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대산 중심이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통골 [골] 대산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하나로 쪽 뻗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옥계2리>

논골 [골] 뱀골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마을 앞에 해당되는데 예전에 마을이 이 골 앞에 있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방개미골 [골] 뱀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방씨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골 [골] 사질리에 있는 골짜기로, 뱀처럼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베틀골 [골] 송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굴이 있는데, 일제 때 공출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굴에서 베를 찢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복박골 [골] 햇골에 있는 골짜기로, 복바위라고 여기는 바위 두 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루골 [골]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참나무골 [골] 뱀골에 있는 골짜기로,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풀베세운골 [골] 뱀골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풀이 많아서 예전에 풀을 베어 세워 말리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햇골 [골]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해가 정면으로 뜨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유현1리>

고슴도치골 [골] 용수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고슴도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나무골 [골] 절터앞 위에 있는 골짜기로, 구남토토리가 열리는 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골 [골] 산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흘러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른골 [골] 진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곧게 뻗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느루개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용수골을 오르며 우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밭골 [골] 수리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삼(대마)을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판대기 [골] 용수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새풀(억새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리바우골 [골] 물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수리가 새끼를 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숫가마골 [골] 구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싸리골 [골] 바른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싸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탕골 [골] 숫가마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약수가 나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수골 [골] 느루개에 있는 골짜기로, 용이 승천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앞 [골] 용수골을 오르며 좌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조씨물어간골 [골] 떡갈매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밭에 있던 좁쌀 자루를 물고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일안동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현2리>

강릉넘이 [골] 윈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을 통해서 강릉을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매딸기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고매딸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곶은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곶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화3리 거슬치와 통한다.

광대바우골 [골] 풍수원에 있는 골짜기로, 큰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가마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숫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가마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심밭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산삼을 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우묵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칭칭나무골 [골] 풍수원성당 뒤에 있는 골짜기로, 칭칭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난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6.25 때 피난을 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호랭이잡은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호랭이를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현3리>

가래나무골 [골] 여내골을 올라가며 좌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가래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사리골 [골] 여내골을 올라가며 우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곰내미 [골] 가래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복지골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탄산 [골] 화채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홍천군 남면 시동과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명당 [골] 지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곳은 농사도 잘 되는 등 살기가 좋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화전정리로 마을이 없다.

셋골 [골] 유현3리 1반에 있는 골짜기로, 오상동과 짜리골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짜리골 [골] 우무개에 있는 골짜기로, 짜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채바우골 [골] 중방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상여 뚜껑인 화채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촌1리>

거목바우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검은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곰내미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곰이 넘어 다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소나무와 흙으로 만든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둑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도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시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지개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쇠지개가 나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난리 때 움집을 짓고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수골 [골] 창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 사냥을 할 때 원수가 왔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점말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옹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햇골 [골] 매자골에 있는 골짜기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창촌2리>

곰내미골 [골] 장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곰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대장애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골 [골] 장골에 있는 골짜기로,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다리골과 큰다리골이 있다.
 면화밭골 [골] 셋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면화를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굴밤나무골 [골] 논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밤이 알차게 열리지 않는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흥면(安興面)

<가천리>

금정골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금을 캐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골짜기가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른골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평평하고 넓으며 바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셋골 [골] 뒷골로 들어가며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반대골 [골] 다복상회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은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옷셋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아래셋골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안1리>
 오두개골 [골] 영월군 운학으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섯 개의 골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상안2리>

가는골 [골]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재골 [골] 문재로 통하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현재 문재로 가는 42번 국도를 지칭한다.

밤나무골 [골]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골 [골] 장자덕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골에서 약물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골이 깊어서 붙여진 골짜기 이름으로, 그 골의 길이는 약 30리 정도 된다고 한다.

피나무골 [골] 약물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산리>

곧음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가파르고 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장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화전을 할 때 이 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장방에 곡식을 쌓아 놓고 지낼 정도로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아서 불려진 이름이다.

소사리골 [골] 양지말에서 소사3리를 거쳐서 소사1리로 통하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소죽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역사적 인물인 이인거와 그 부하들이 이 골에서 훈련을 하면서 소죽, 말죽을 끓여서 주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나무골 [골] 큰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신배나무가 없다.

췌기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췌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자주 췌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움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난리 때 이 골에서 움집을 짓고 살면서 난을 피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도 움터가 있다고 한다.

정골 [골] 예전에 보습을 만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밭에서 가끔 솟물 끈은 것이 나온다고 한다.

진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곡 [골] 하영에서 지구2리 상터를 질러가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사1리>

물골 [골] 지구리로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치 말이 물을 먹는 형국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

산지당골 [골] 물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동지골 [골] 송한리와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시대 때 원주 원씨가 이 골에서 귀리 천 석을 생산하여 나라에서 동지라는 벼슬을 받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점심터골 [골] 난리 때 이 골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사2리>

영랑이골 [골] 소사3리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면 영랑리로 통하는 길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소사3리와 성산리에서는 '소사리길'이라 부른다. 현재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소사3리>

작은골 [골] 진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짧고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안갈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주위의 골보다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한리>

뫓골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골이 막혀 있다.

설통바우골 [골] 자작나무골 옆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통을 많이 해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가매골 [골] 아랫골 안에 있는 골짜기 중 하나로, 성씨 성을 가진 사람이 그 곳에 묘를 써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봉분이 두 개가 있다고 한다.

아랫골 [골] 안흥 중고등학교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이 골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움골 [골] 아랫골 안에 있는 골짜기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나무골 [골] 샷갯소 옆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골에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골 [골] 지구리와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흥1리>

다리골 [골] 노인회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짜기가 사람 다리처럼 양쪽으로 벌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다리골과 작은다리골이 있다. '원골'이라고도 한다.

중사리골 [골] 안흥초등학교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서 중이 살인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흥2리>

공동묘지골 [골] 안흥모텔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뚝기 [골] 예전에 단지골에는 논이 없었는데, 이곳에 유일하게 논이 있어서 붙여진 골짜기 이름이다.

당지골 [골] 단지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당이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없다.

뒤골 [골] 단지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밀밭골 [골] 단지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밀밭이 있다고 해서 이름이다. 지금은 안 심는다.

벼락바우골 [골] 공동묘지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벼락을 맞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숫돌바우골 [골] 당지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숫돌로 쓸 수 있는 돌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덕이 [골] 단지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덕이 옆에 있는 것으로 발 한 뼘이 작은 덕이 것보다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장골 [골] 안흥 주유소 뒤 절이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이 곳에서 전쟁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신선봉 밑에 있는 골짜기로, 넓고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덕이 [골] 단지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로 발 한 뼘이 만평이 되는 것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흥3리>

구라골 [골] 큰구라골, 작은구라골이 있으며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앞골'이라고도 한다.

불당골 [골] 예전에 그 골에서 불이 자주 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빈두굴 [굴] 산양봉에 있는 굴짜기로, 경사가 심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바우굴 [굴] 큰선바우굴과 작은선바우굴을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굴 안에 바위가 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막굴 [굴] 숫가마굴 아래에 있는 굴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이곳에 갔다가 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가마굴 [굴] 예전에 이 굴에서 숫을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양굴 [굴] 큰굴 위에 있는 굴로 덕새재 넘어가는 곳에 있는 굴짜기를 가리킨다. 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외양굴'이라고도 한다.

작은가는굴 [굴] 큰가는굴 옆에 있는 굴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굴이 짧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가는굴 [굴] 굴이 깊고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굴 [굴] 오양굴 밑에 있는 굴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굴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흥4리>

갈밭굴 [굴] 말무덤이에서 송한리를 올라가며 오른쪽에 있는 굴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갈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굴 [굴] 말무덤이에서 송한리를 올라가며 왼쪽으로 첫 번째 굴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굴 [굴] 소라니굴 안에 있는 굴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산지당이 없다.

설통바위굴 [굴] 소라니굴 안에 있는 굴짜기로 자작나무굴 옆에 있다. 설통을 많아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라니굴 [굴] 지금은 이곳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으나 예전에는 많이 다니던 길로, 송한리와 통하는 굴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한리뒤굴 [굴] 소라니굴 안에 있는 굴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송한리 뒤에 있는 굴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소굴 [굴] 용소 위에 있는 굴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나무굴 [굴] 소라니굴 안에 있는 굴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구1리>

대골 [골] 골이 깊고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골 [골] 메네버딩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사1리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터골 [골] 물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구2리>

미골 [골] 이 골짜기에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낭골 [골] 이 골짜기에 범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산터 [골] 피아골과 큰재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을 가리는 것으로, 이곳에서 소를 살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랑이골 [골] 학교 위 양지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면 영랑리와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것으로, 옷상터 양지쪽(왼쪽) 마지막 골을 가리킨다.

주전골 [골] 예전에 이 골에 사는 사람이 돈 만드는 틀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응달쪽 첫째 골을 가리킨다.

채골 [골] 상터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채장사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터골 [골] 현재 양계장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터가 좋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예전에 서낭당도 있었다고 한다.

피아골 [골] 안흥재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쟁 때 이 곳에서 전투가 벌어져 피를 흘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천면(隅川面)

<두곡리>

뒤골 [골] 밤버루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독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상골 [골] 독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세 명의 재상이 나올 명당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독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재골'이라고도 한다.

참새골 [골] 밤베루 노인회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유난히 참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초당골 [골] 독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 골 초입에 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암리>

능골 [골] 자작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소골 [골] 골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샘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달리>

배내미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천지개벽할 때 배가 넘어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별주리>

뒤골 [골] 바라골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다.

시랑골 [골] 모시골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랑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묘가 있
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전리>

가재무덤이골 [골] 가재무덤이 원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골 초입에 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
름이다.

광산골 [골] 가재무덤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은광이 있어서 붙여진 이
름이다.

구용골 [골] 덕밭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녹하리 [골] 설통바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세가 사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밭골 [골] 덕밭골의 원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덕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땃골 [골] 가재무덤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땃을 놓아 돼지를 잡았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골 [골] 양지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당골 [골] 가재무덤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바우 [골] 닥밭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가마골 [골] 샘덩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승지골 [골] 닥밭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감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들이골 [골] 가재무덤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길이 골을 안고 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샘덩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절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춘외골 [골] 가재무덤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마을에서 젊은 색시를 물어다가 이 골에서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아골 [골] 닥밭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난리 때 피난을 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상대리>

고매골 [골] 수명태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곰이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용골 [골] 수리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추나무골 [골] 신배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추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둥지골 [골] 고매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 매가 자주 앉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떨어지는골 [골] 새반대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락동'이라고도 한다.

밤나무골 [골] 메내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골 [골]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뱀처럼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경로당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신배나무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반대골 [골] 귀뚜라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풀을 베어다가 지붕을 했다고 한다.

서낭당골 [골] 석애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애골 [골] 승냥재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바우골 [골] 이 골짜기에 있는 바위가 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리터골 [골] 물떠러지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수리가 새끼를 처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나무골 [골] 서낭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큰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당골 [골] 산막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하가리>

가는골 [골] 가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래골 [골] 가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가래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능안 [골] 술안말에 있는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왕의 태를 묻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골 [골] 구렁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못촌골 [골] 가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막골 [골] 복가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막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물은골 [골] 가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병들어 죽은 소를 묻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장골 [골] 달구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송장을 묻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둔골 [골] 능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낮에도 어둡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적리>

구용골 [골] 아랫양적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소 구유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골 [골] 아랫양적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골 [골] 붓둔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사이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골 [골] 아랫양적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 중간에 있는 바위에서 약물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물골 [골] 약물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웃오른 사람이 이 물로 씻고 먹으면 웃이 없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물골 [골] 약물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원1리>

바른골 [골] 골이 곧게 뻗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태난골 [골] 예전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골 [골] 작은송골과 큰송골이 있으며, 골짜기가 송곳처럼 뾰족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골 [골] 섬바우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아골 [골] 이 골짜기에서 곡식을 심으면 피가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장터골 [골] 예전에 이 골짜기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원2리>

건넌골 [골] 논골 건너 편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골짜기 이름이다.

뒷골 [골] 통골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골짜기 이름이다.

먼드래골 [골] 논골 너머 왼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등 너머 멀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사휴게소 뒤편에 있다.

백장골 [골] 줄봉으로 가며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백정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리취골 [골] 논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수리취라는 취나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짜작나무골 [골] 논골 초입 왼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자작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줄바우골 [골] 연화사 위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줄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대원정사가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덧골 [골] 통골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집터가 몇 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랭이잡은골 [골] 통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호랑이를 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원3리>

곰내미 [골] 쇠호랭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곰이 넘나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골 [골] 전채 약수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큰다리골과 작은다리골이 있다.

동백나무골 [골] 여내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백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서죽은골 [골] 삼곶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서 둘이 나물 뜯으러 갔다가 이 골에서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서골'이라고도 하며 작은동서죽은골과 큰동서죽은골이 있다.

산지당골 [골] 여내골로 들어가 왼쪽 마지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삼곶골 위에 있으며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곶골 [골] 산지당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호랭이 [골] 여내골 안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호랑이가 사람을 마을에서 물어다가 이 골짜기에서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차골 [골] 전채를 올라가며 중간쯤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곳에 사람이 살 때 웅덩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아차' 하면서 다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준기죽은골 [골] 여내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준기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준기골'이라고도 한다.

혼인바우골 [골] 개미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사이를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을 정도로 넓다고 한다. 예전에 이 바위에서 노총각이 장가들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둔리>

가는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가늘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광대네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광대씨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대논골'이라고도 한다.

노루종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노루를 많이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논 두 마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달롱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달롱이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장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장을 새기는 나무인 회양목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골 [골] 못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막골 [골] 못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언곡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쓸만한 묘자리가 없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밑에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밑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안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젊은 남자가 연애를 하다가 나무꾼에게 들켜서 미안해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뺏나무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뺏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섬밭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섬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재밭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엇짐자리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논의 있었는데 벼 생산량이 지게 여섯 짐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소리바우골 [골] 광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위에 오소리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물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물골 [골] 못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초입에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푼은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움집이 있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고개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웃고개에 있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나무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나무골 [골] 오재울 석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저고리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고 저고리를 나무에 걸어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쥐이산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쥐 이빨처럼 생긴 산골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직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바르게 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매기네미터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진매기네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서방네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골 초입에 최서방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텃개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집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향2리>

구용골 [골] 백달리 역골 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형태가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구용골과 큰구용골이 있다.

못골 [골] 물언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조그마한 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밭골 [골] 수재울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삼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금1리>

가래나무골 [골] 어둔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밭골 [골] 어둔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넘어가면 갑천면 포동리 저고리골이 나온다. 갈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넘어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에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머우나무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머위라는 풀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어둔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큰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재안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나무골 [골] 어둔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신배나무골과 작은신배나무골이 있다.

움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움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밭골 [골] 어둔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긴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금2리>

골안 [골] 응달말에 있는 큰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마을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밀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췌골짜기 [골] 골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형태가 췌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나무배기 [골] 골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웃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골 [골] 대숲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움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골 [골] 밀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대숲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독골 [골] 밀밭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서나무골 [골] 골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어서, 그 시체를 이 골에서 화장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궁1리>
 검은동굴 [골] 움치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는 해가 잘 안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매골 [골] 호병매기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동묘지골 [골] 이 골에 마을의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씨미골 [골] 예전에 이 골에 광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나무골 [골] 유죽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단지골 [골] 송곳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단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구리 [골] 황고개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이 굴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먼골 [골]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무개골 [골] 호랭이바우 앞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개를 물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무개골과 큰무개골이 있다.
 박달골 [골] 유죽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박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바우골 [골] 절터버덩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심밭골 [골] 이 골에 가삼이 잘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탕골 [골] 고매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약물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외밭자국골 [골] 이 골에 집을 새로 짓고 이사 온 첫날밤에 호랑이가 부인을 물고 한 밭자국으로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치골 [골] 약물탕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움집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너미골 [골] 용이 이 골로 넘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죽골 [골] 움치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대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나무골 [골] 다래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봉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던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정패랭이골 [골] 고들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씨가 이 골에 살았는데 패랭이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폭포수골 [골] 봉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폭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병매기 [골] 선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호리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궁2리>

개나미네집골 [골] 가래나무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황개네미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양지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처골 [골] 부처를 모셨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안진장골 [골] 골이 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내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 정상에 올라가면 횡성 앞내가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구메골 [골] 앞내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용구라는 사람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대리>

갈밭골 [골] 사태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갈이 많고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구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샘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태골 [골] 험한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살구나무골 [골] 구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살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골 [골] 덩바우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장골 [골] 중산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형이 송장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구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에서 제일 큰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힘한골 [골] 구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험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일면(晴日面)

<갑천1리>

갈밭골 [골] 절바우골을 올라오며 오른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갈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새바우골 [골] 맹매기바우골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우가 마치 개 혀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시골 [골] 차조밭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고시리와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고야나무골 [골] 들어갔다못나오는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고야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푸네골 [골] 설통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노풍원이라는 분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덕샘이골 [골] 노푸네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덕삼이라는 분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봉덕초등학교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는 골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뒷골과 작은뒷골이 있다.

뒷골 [골] 복네미 고야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들어갔다못나오는골 [골] 짜작나무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골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맹매기바우골 [골] 덕샘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제비와 비슷하게 생긴 맹매기가 이 골에 있는 바위에서 집을 짓고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른골 [골] 움무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바르게 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갈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큰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바우골 [골] 바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설통을 많이 설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짜리밭골 [골] 움무골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짜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탕골 [골] 윤걸이죽은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약물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골 [골] 절바우골에서 텃골로 통하는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에서 중심이 되는 큰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윤걸이죽은골 [골] 호랭이밥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윤걸이라는 사람이 이 골에서 굴러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짜작나무골 [골] 약물탕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랭이밥터골 [골] 화수네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이 골에서 사람을 잡아 먹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갑천2리>

검두골 [골] 물골에 있는 골짜기로, 갑천면 하검두(하대리)와 통하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응골 [골] 강선대에 있는 골짜기로, 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줄골 [골] 구수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연이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피난터골 [골] 솔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로 피난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시리>

가운데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호랭이죽은골과 큰골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늪둔지 [골] 잣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늪처럼 땅이 질어서 발이 빠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골 [골] 장귀철 덕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큰고시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귀철 덕 옆에 있다.

범바우골 [골] 청뚜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나타난 골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숫골 [골] 뒷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탕골 [골] 범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약물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바우골 [골] 청뚜루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여우가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태장모골 [골] 주봉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태장 벼슬을 한 이씨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수골 [골] 큰고시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땅에서 솟아올라 붙여진 이름이다. 그 옆에 작은 수골이 있다.

<봉명리>

덧바우골 [골] 뒷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돼지뒫을 놓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명이치 이경복 댁 뒤에 있는 골짜기로, 집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맹천골 [골] 배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약수가 나오는데 예전에 소경이 이 약수를 마시고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작삼목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재골 [골] 절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여우가 자주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당골 [골] 소경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안구집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폭포가 있다고 한다.

큰당골 [골] 작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난골 [골] 곱돌재 옆에 있는 골짜기로, 동학군이 이곳에 피난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속실리>

곱은골 [골] 피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곱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골 [골] 주막거리 위 먼드래재를 가며 우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다래와 머루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단풍바우골 [골] 통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단풍나무가 많고 예뻐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국사랑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주막거리 위 먼드래재를 가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벌막 [골] 성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벌을 많이 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막', '큰골' 이라고도 한다.

벌아홉골 [골] 주막거리에서 먼드래재를 올라가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벌 아홉 통을 받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람골 [골] 벌아홉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사람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락골 맞은 편에 있다.

사무실골짜구니 [골] 먼드래재를 가며 물공장(샘물나라)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금속 광산 사무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골 위에 있다.

성골 [골] 치마바우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골 [골] 광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보습을 만들던 곳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나무골 [골] 황장골에 있는 골짜기로, 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장골 [골] 예기소 위에 있는 골짜기로, 황장목으로 쓰는 나무가 이 골에서 나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대리>

가래소골 [골] 박야암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가래소골과 작은가래소골이 있다.

가삼밭골 [골] 홍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가삼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방골 [골] 샘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말을 키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야암 [골] 청진암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박야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우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법당골 [골] 한남대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봉복사 법당과와통하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보매기골 [골] 성골 초입 왼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를 막은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태골 [골] 배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구골 [골] 신대분교 뒤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삼을 삼았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골 [골] 화장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샘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덕재 [골] 가삼밭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덜기(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골 [골] 큰성골과 작은 성골을 함께 아우르는 골짜기명으로 성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두라우 [골] 한남대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골에서 대장간에서 쓰는 숫돌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고운 숫돌이 아니고, 거친 숫돌이 난다고 한다.)

숫가마골 [골] 송소아리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면 화동과 통한다. 예전에 이곳에서 숫을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두어니 [골] 속실리와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해가 일찍 지며, 한 여름에도 오후 4시경이면 어두워지고 다른 곳보다 어둡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한남대 안 법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뒤골 [골] 절안으로 접어들어 좌측 첫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봉복사 뒤에 있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안 [골] 봉복사로 난 큰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좌우로 많은 골짜기가 있다. 절로 가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낭골 [골] 큰가래소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승들의 배설물이 그곳에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진암 [골] 마방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청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핏골 [골] 공동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피 농사가 잘되고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핏골과 큰핏골이 있다.

해운암 [골] 정낭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해운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장골 [골] 절안으로 접어들어 우측 첫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이 죽으면 예전에 그곳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동1리>

불당골 [골] 무랑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불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제당골 [골] 무랑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애고지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유동3리>

굽은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굽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능산골 [골]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원래 100개의 골짜기를 아우르고 있는 곳에 능을 쓸 수 있는데, 이 골은 모두 99개이므로 능이 들어서지 못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방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매우 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둑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도둑이 은거하고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두째골 [골] 첫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두 번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밥자리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호랑이가 염호장의 머느리를 물어다가 이 골에서 잡아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세째골 [골] 두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세 번째 있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췌기골 [골] 능산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과 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첫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첫 번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유평리>

막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무골 [골] 연안이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움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응달말과 소구니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통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초현리>

넘산골 [골] 안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을 통하여 청일시장 및 학교를 넘어 다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성가마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조그마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논골과 작은논골이 있다.

동박골 [골] 개동박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동백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당골 [골] 누네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돼지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수아지 시온성교회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나도백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골 [골] 뒷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설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구목이 [골] 설통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장구처럼 길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예전에 이 골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산골, 남산골, 누네기, 새대기, 돼지당골을 함께 아우르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짐생이골 [골] 장구목이를 달리 부르는 말로, 예전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춘당1리>

골말 [골] 푸산밭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살던 이진사가 자신이 직접 '골말'이라고 지어 불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곳집골 [골] 옥밭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곳집이 있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곳집골 [골] 개수원에 있는 골짜기로, 곳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악밭골 [골] 두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옥을 썼다고 한다.

다리골 [골] 너렁바우에 있는 골짜기로,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다리골과 작은다리골이 있다.

두령골 [골] 골말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아서 돌두령을 이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골 [골] 개수원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앞골 [골] 장개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골 초입에 묘가 여러 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람부리 [골] 관악밭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쟁이 [골] 사재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주위에 있는 여러 개의 봉우리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사재울 응달쪽으로 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냥터골 [골] 천상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사냥하던 복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재골 [골] 불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당골 [골] 집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뭇들어가는골 [골] 바람부리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고 경사가 심해 소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오소리바우골 [골] 바람부리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오소리가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옥밭골 [골] 봉쟁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옥을 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수굽이 [골] 개수원에 있는 골짜기로, 용이 승천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움무골 [골] 개수원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개골 [골] 텃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장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점침지미골 [골] 바람부리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점쟁이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집골 [골] 점침지미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상골 [골] 곳집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주위에 있는 골의 봉우리보다 높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사재울 양지쪽으로 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텃골 [골] 서낭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집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푸산밭이 [골] 큰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풀을 해서 삼(대마)을 많이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춘당2리>

광산골 [골] 석벽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광산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골 [골] 석벽골에 있는 골짜기로,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텃골 [골] 주막거리에 있는 골짜기로, 봉우리가 여러 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미골 [골] 주막거리에 있는 골짜기로, 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이바우골 [골] 굴바우에 있는 골짜기로, 석이버섯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산골이라고도 한다.
 순애골 [골] 석벽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순애라는 과부가 혼자 살다가 죽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장골 [골] 주막거리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용마가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움무골 [골] 둔덕이에 있는 골짜기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승골 [골] 석벽골에 있는 골짜기로, 장승재와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갑천면 병지방리와 통한다.
 지당골 [골] 석벽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목은선생영당(牧隱先生影堂)

이 희 구(공근면 수백리)

江原道 橫城郡 公根面 水白里에 있으며 李穡(牧隱, 1328-1396)의 후손 李元植씨가 癸酉 1933년(음력)9월20일 이곳에 影堂을 건축하여 牧隱선생을 봉안하고 해마다 (양력)10월3일(開天節)에 祭享을 올린다. 祭享 행사에는 韓山 李氏門中은 물론 부근의 유생들이 참사하여 牧隱선생의 유덕을 추모한다.

李元植씨가 橫城 牧隱 影堂을 세우게 된 연유는 '牧隱先生影堂落成詩'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韓山 李氏가 관동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의정공이 원주를 위시하여 제례를 드린 후 자손들이 일도에 번영하여 嶺성에 사는 사람들만도 백명이 넘는다. 모두 근신 근면하여 능히 가업을 지키고 한 사람이라도 조상에 누를 끼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목은 선조의 명복이 미친바가 아니겠는가!

무릇 목은 선조의 자손된자는 日夕으로 우리 조상에 平日에 儀容을 얻은 즉, 그 추모와 덕을 닦는 법도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제 敬성 수동에 한산, 영모, 덕산, 누산, 청주, 주성, 안동, 소호, 마전, 노동, 회양, 진평, 해주, 영귀정, 장단, 오이는 및 敬성에 이르기까지 영당을 세워 翫모하는 정성을 드리었다.

그 중에도 嶺성의 자손들이 뜻이 있었으나 오래도록 정성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 1997년도 宗중이 분명히 발의하여 敬성하기로 하고 영당을 嶺성 칠봉산 아래 세우고 당우도 마련하여 받들게 되었다. 삼가 수동의 영분을 본 떠서 봉안하고 1997년(음) 九月 仲丁日에 차례를 거행하게 되었다.

슬프다, 목은 선조의 도덕 문장 절의가 回星과 같이 빛나서 百世에 사범이 되었다.

이제 前覽에 定論이 되었다. 불초한 내가 어찌 감히 다행하다고만 하겠는가!

우리들이 살아온지가 五百年 후인 지금 五百年 전에 사신 얼굴을 보게 되었다. 하물며 長

夕으로 받들어 모시고 경고와 後談을 친히 이어나감으로서 장차 아름다운 발자취를 추모하는 정성을 이어갈 것이라 하는 것을 유연히 발흥됨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마땅히 상호 영당을 모시는데 힘써서 도를 현양한즉 이것이 어찌 이씨 집안에 다행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世道에 이익이 되어 크게 되었다

장하다. 영당을 세우는 의의가 실로 여기 있음을 밝혀 두노라"

그러면 李穡은 어떤 인물이었나를 살펴 보고 또한 영당을 건축하게 된 연유를 살펴 보기로 한다.

李穡은 韓山人으로서 高麗 충숙왕 15년에 출생하여 太祖 5년까지의 사람으로 高麗末 3隱의 한 사람으로 號는 牧隱이다. 14세에 成均館에 합격했으며 中端司典簿로 元에 있던 父親으로 인하여 元의 國子監 生員이 되었고 3년간 中國에 유학했으며 父親의 喪으로 귀국하였다.

공민왕 2년(1353) 魁科에 들었으며 다시 征東省 鄉試에 壯元으로 합격되어 서장관에 임명된 후 元나라에 다시 들어가 文科에 급제하여 翰林知制誥가 되었다.

귀국하여 內書舍人에 올랐으며 그 후 밀직제학동지춘추관사가 되어 국정에 참여했다.

공민왕 16년(1367)에 성균대사성이 되었고 정몽주, 김구용 등과 명륜당에서 학문을 가르치니 이에 정주의 性理學이 처음으로 일어났다. 공민왕 20년(1371)에 政堂文學이 되고 문충보절찬화공신의 호를 받았으며 공민왕 22년에는 韓山君에 봉하였고 다시 우왕 3년에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의 호를 받고 우왕의 스승이 되었으나 吳思忠의 상소로 長端으로 귀양을 가게되었다. 유배지에서 돌아와 藝文春秋館으로 임명되었다.

정몽주가 피살되자 관련되어 여천으로 유배되었다.

朝鮮의 개국 후 太祖는 그의 인품을 아껴서 太祖 4년(1395) 韓山伯으로 봉하며 禮를 다하여 出仕를 중용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였다.

이듬 해 5월 여주에 있는 신흥사에서 피서하려고 驪江에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던 중에 왕(이성계)이 보낸 술이라는 것을 마시고 중독되어 신흥사를 십리쯤 남겨놓은 제비여울(연자灘) 배 위에서 '死生之理吾無疑矣' (죽고 사는 이치를 나는 의심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과란 많던 생애를 마감하였으니 태조 5년 5월7日 享年 69歲였다. 일설에 의하면 선생에게 보냈다는 술은 실은 태조 이성계는 알지 못하는 일이요 정도전이 태조 모르게 태조

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라 한다.

후에 西 厓는 后漢의 楊 虎에 비겨서 그의 절개를 특필하였다.

門下에는 權 近, 金宗植, 卞季良 등을 배출하여 朝鮮 性理學에 주류를 이루게 하였으며, 한편 불교에도 조예가 깊어 高麗 末期에 학문과 정치에 거족을 남긴 사람이었다. 시호는 文靖公이다.

그의 시조로

백설이 자겨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牧隱의 影堂은 서울의 壽松影堂, 충청남도 서천군의 永墓影堂, 충청북도 청원군의 酒城影堂, 충청남도 예산군의 樓山影堂, 경상북도 안동군의 西山影堂, 경기도 연천군의 麻田影堂, 충청남도 대전시의 大田影堂, 충청남도 부여군의 鴻山影堂, 강원도 횡성군의 牧隱影堂, 경상남도 하동군의 河東影堂, 전라남도 나주군의 牧影祠, 경상남도 사천군의 景白祠가 있고

書院으로는 충청남도 서천군의 文獻書院, 전라남도 장흥군의 내양書院, 장단 臨江書院, 평산 雲峰書院, 경북 영해의 丹山書院, 公州 東鶴書院, 경기도 여주군의 梅山書院, 鎭川 百源書院, 靑州 華巷書院에서 享祀하고 있다.

橫城 牧隱선생 影堂의 影幀은 坐像으로 길이 1.5m 폭 1m 정도이고 祭享의 경비는 畓, 田, 塚地 등의 위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牧隱선생의 작품으로는 詩文 50餘 북에 이르는 詩文集과 5970餘 수의 詩와 230餘 편의 散文이 있다.

※ 참고문헌

1. 횡성군지, 제1장 文化遺跡 763쪽 : 1986. 6. 20
2. 횡성군교육청, 고향(鄕土教育資料) 300쪽 : 1966. 2. 10

어사매 (제16호)

IV. 향토문학 동호인 작품
어사매 문화마당

■ 隨 筆

■ 詩

■ 漢 詩

■ 鄉土文化踏查記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



정금자

내가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 나의 어머니는 서른 다섯의 젊은 나이였다.

도회지와 거의 단절된 조그만 시골로 시집 오셔서 넉넉지 않은 살림에 아이 셋을 낳아 기르시며 그 시대를 용감하게 살아내셨다.

그 시절의 험난하고 고된 생활을 견뎌낸 우리의 어머니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내가 마알간 얼굴로 근심 걱정 모르고 살았던 것도 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이제 나는 안다.

딸은 아이를 낳아서 길러봐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하더니, 엄마가 되고 나서야 그 사랑의 깊이를 가슴 저리게 느꼈고, 주름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면 그 세월에 대한 회한으로 붉시 마음이 아파 온다.

나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그리 자랑할 만 한 것이 없는 듯 하다.

학교 공부보다는 소설책이나 만화책을 더 열심히 봤고, 텔레비전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다 섭렵했으며 늘 무언가를 끄적거리고 그리기를 좋아했던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던 것 같다.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지는 않았지만 하라고 시키시는 것 역시 그리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는 아이였다.

어머니는 공부를 강요하는 '극성' 맞은 엄마는 아니었지만 때때로 어머니의 어린시절을 비교하거나 힘겨운 삶에 대한 넋두리를 하시곤 했었다.

'엄마가 너만 했을 때는....., 다 너 잘되라고.....'로 시작되는 말씀은 늘 지루했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었다.

부모의 희생을 자식들에게 동정 받거나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쯤으로 여겼던 나는

'나는 이다음에 내 아이들에게 그러지 않을 거야' 다짐하곤 했었다.

스무 해가 훨씬 넘는 세월 속에 예쁜 엄마를 내어주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 지금.

가끔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속절없이 어머니가 그리워지곤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리움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어머니는 당신의 아픔을 자식에게 동정 받거나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 기억 저편에서 밀려 온 어머니가 있고 있던 그리움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주는 깊은 믿음을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나 역시 내 아이들에게 일등을 강요하는 엄마는 아니지만, 가끔은 그들에게 구차한 애기를 늘어놓으며 그들을 지루하게 하기도 한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무엇을 하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반짝거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지금에 내가 그렇듯이 그들도 훗날, 엄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집착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으며 나의 잔소리를 그리워 할 것이다.

“애들아,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한 시절이란다.”

부엌에서 부지깥이로 장단을 맞추며 부르시던 어머니의 구성진 노래 소리와 그 지루하기만 했던 잔소리가 무척이나스럽다.

老人어르신을 敬愛하고 사랑도 맺자



이승운 / 횡성읍 정암1리

오십여년만에 南北이 손을 잡고 꿈에 그리던 離散家族이 相逢하여 내 父母 兄弟 姉妹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 感動의 드라마를 演出한 한해이기도 하며 새 1年 새 歷史를 創造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번가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歲月속에 人生無常함을 느낍니다.

늙고 병들어 生老病死의 可恐할 終末을 告하게 되는 까닭에 슬픈 人生이기도 하며 누구라
도 그 뒤를 따라야하는 索漠한 人生觀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項羽壯士도 그러했고 忠信
烈士도 紳士淑女도 피할 수 없는 境地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幽明을 달리해야할 宿命的인 人生이고보면 어찌하여 우리 老人들께서는
짧은 生涯속에 젊음을 불태우고 메마른 토대위에 日帝桎梏속에서 벗어나 祖國光復과 더불어
어 원치않는 6·25事變으로 말미암아 同族相殘의 民族的悲劇을 몸소 體驗하여왔고 駭려된
戰痕의 상처를 딛고 鄉土를 지켜 後日일 다짐하는 復舊建設에 이바지하여온 愛國的本能의
脈을 이어온 오늘의 老人像이기도 합니다.

歷史가 흐르는 와중에 流水와 같은 歲月은 덧없이 흘러 青春은 가고 白髮만이 오는 疎外
된 老人어르신들께서는 山戰水戰을 겪은 나머지 얼굴엔 주름뿐인 어르신들이 한데모여 머
리를 맞대고 餘生을 보내려는 곳이 敬老堂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農村地域社會 老人어르신들께서는 平生동안 山間마을 비탈진 언덕위에 우연히 定着
하여 農事꾼의 명예를 벗을 날이 없이 온갖 風霜속에 山진 거북이와 같이 고장을 지키고 祖
上들의 얼이 담긴 내고향을 思慕하면서 삶의 터전을 地上樂園으로 삼아온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새소리 시냇물소리 들리지만 어르신들께서 依支해야할 子女들의
복소리를 자주 듣기 어려운 核家族時代에 사시고 계신가하면 世情따라 人情이 메마르고 老
人들에게는 무조건 敬遠하는 風土속에 疎外感을 씻을 수 없는 寂寞한 心情이기도 합니다. 한

時代는 가고 能力不在의 우리 老人어르신들께서는 城 쌓고 남은 돌이 되었으나 다만 敬老堂을 찾아 天恩萬考의 시름을 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겠습니까?

洋의 東西를 莫論하고 人間은 生活能力이 없으면 國家社會의 保護를 받는다는 共通된 理念으로 우리나라에서도 老人福祉法이 制定되었고 固有의 家族制度아래 道德的 倫理觀을 바탕으로 하는 福祉政策에 따라 老人을 保護하고 敬老하는 美風良俗의 美德을 심어 老人生活를 安樂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目的이 있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大韓老人會가 發足됨에 따라 正菴里敬老堂을 建設하여 老人生活과 더불어 老人會運營에 會長 總務 監事어르신들의 솔선수범 아래 拍車를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參與意識을 높여 同志愛를 도모하고 있는 現實입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는 섭리속에 農耕社會와 달리 生活文化次元에서 豐饒로움은 즐길 수 있지만 物質萬能의 利己主義의 思考와 不信思潮에 따른 道德上人情이 각박한 世波속에 既成世代니 新世代니 하는 世代間의 갈등 老少間의 反目 따위는 止揚하고 老人을 敬愛하고 相互信賴하는 溫情속에 더불어사는 德目으로 孝道도 하고 敬老도하고 사랑도 맺는 社會氣風이 造成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우리는 人生教育의 陶冶를 위하여 더욱 더 배우고 깨달아야 할 格言에 이르기를 “감박이는 한점의 불티가 能히 넓은 숲을 태울 수 있고 반마디 그릇된 말이 平生의 德을 허물어 뜨린다.”는 뜻 모두가 人間社會에 左右銘이 될 忠言이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나라가 있음으로 내가 存在하고 내가 있음으로 國家社會가 形成된다는 엄연한 事實에서 視野를 넓혀 먼 眼目으로 世界를 展望하여 보십시오. 異域萬里地球上에는 數百里를 달려가도 물한방울 없이 太陽熱이 이글거리는 沙漠의 나라도 있고 泡泡한 바다물결이 출렁이는 세계에서도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다만 꽃이피고 새가우는 溫和한 祖國땅 봄이 가면 여름 가을이와 豐饒로운 自然의 結實을 맺고 겨울이 오면 온 금수강산이 눈꽃으로 장식하는 天惠나라 幸福한 國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겸허히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면에 관심을 갖고 복잡한 社會現實을 지켜보면서 融和團結하고 國家社會에 貢獻하는 國民으로서 共存共榮을 도모하는 旗幟아래 老人會가 發展되고 時代흐름에 副應하는 福祉社會가 現實되기를 期待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萬壽無疆을 빌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침 목



박 현 숙 (북천리 태우아파트)

산은
말 없이 하늘을 지고
아침 해
떠 오르는 능선따라
골 패인 깊이만큼
그림자 풀어낸다.

안개로 드리운
웅장한 산봉우리들
살 비비는 햇살로
몸 풀어내고
순간 순간 침묵으로 들려오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

무성한 잡초
속까지 태우고
이제
경직된 우주는
말 없이 하얗게만
너울거릴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침묵을 깬

.....
자유로운 평화

천마(天馬)는 자작나무 숲에서 산다



김연일 (강림 중학교 교사)

자작나무 숲에 가면
경적 같은 천마의 울음소리 들린다.
불멸의 생명 태우고 천수백년 달려온
싱싱한 말발굽 전설이 흐른다.

자작나무 숲에선
아랫도리부터 허영게 벗으며 질긴 살갓 벌러
천마 잉태하는 소리 들리고

자작나무 숲에선
마디마다 별꼴게 실핏줄 세우고 태(胎)를 키워 가는
서릿발 같이 치켜 뜬 나무의 눈꼬리 보인다.

자작나무 숲에 가면
결코 잠자지 않는 날들이
잠들 수 없는 천마를 빚어 낸 신화가
하늘로 말울음처럼 날아다닌다.

자작나무 숲에 가면

* 신라의 천마도는 자작나무로 만든 말의 안장에 새겨진 회화 작품이다.

엄마는

김정자

나들이 가실 때 마땅한 옷이 없다고
장날 아침 엄마는
마늘 걸어둔 벽에서
한참을 서성이셨다.

속옷도
아버지 입던걸 입으셨던데
막내 운동화도
배꼽 보이는 둘째 윗도리도
눈으로 재어 가셨는데

엄마는 아마도
엄마 옷을 살 생각이 없으셨을거다

엄마가 너무 늦는다
오늘 가져간 마늘이
제값을 못 받았나보다

初冬 十二月

정 병 류

秋往冬來日照微	추 왕 동 래 일 조 미
斗杓建亥夜光輝	두 표 건 해 야 광 휘
納農示月安閒適	납 농 시 월 안 한 적
涉史三更靜寔圍	섭 사 삼 경 정 막 위
雪麤窮址鳥飛絕	설 표 궁 지 조 비 절
落寒天人跡稀葉	엽 낙 한 천 인 적 희
蟄蟲瑾戶蟲聲寂	침 충 근 호 충 성 적
萬里長空塞雁歸	만 리 장 공 새 안 귀

가을가고 겨울오니 햇빛쇠미해지고
두표가 건해하니 밤하늘 휘황하다
시월에 농사다 거두어서 한가히 편안이지내고
삼경에 경사를 섭렵하니 짐막이 두루네
눈 날리는 궁지엔 나는 새도 아니오고
낙엽진 한천이니 인적이 드물구나
침충이 문닫고 움추렸으니 벌레소리 고요한데
만리장공 북역기러기 도라오네

충절(忠節)의 고장 영월을 다녀와서



한 현 숙

지난 9월 5일 황성문화원 회원님들과 문화학교 학생들 합해 백여명이 새천년관광버스로 단종임금이 잠들어 계신 영월에 다녀왔다.

여행하기에 딱 알맞은 기온에 하늘 또한 드없이 맑고 푸르고 몇 개의 구름이 그림처럼 떠 있었다. 조태진 황성군수님의 잘 다녀오라는 따스한 전송을 받고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다. 산꼭대기부터 나무들은 점차 빨강고 노란옷으로 갈아입는 중이었다.

전방으로 더욱 유명해진 안흥면에 도착해 마치 땅콩처럼 두 개가 사이좋게 담겨 있는 안흥편빵 한 봉지씩 받아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라 하며 음료수와 곁들여 간식을 하며 강대덕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로부터 황성과 영월의 명칭의 유래와 두 지역이 강원도를 이끌어 갈 훌륭한 곳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어느새 버스는 평창군을 지나 영월에 들어섰다.

영월역을 지나 영월읍 영흥리에 '국제현대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찬갑 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경남 산청출신으로 57세이신 관장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각가로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 해외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신다 한다.

초등학교 분교를 개조해서 꾸민 미술관은 교정에 외국 조각가들이 직접 와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3개의 교실을 터서 만든 전시실에는 작은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작품 하나 하나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개관하는데 드는 비용 절반은 영월군에서 지원해 주셨고 반은 관장님 자비로 2년여의 준비 끝에 개관하였는데 아직도 더 갖추어야 할 것이 많다 하셨다.

다음엔 하동면 와석리 김삿갓유적지로 향했다. 김삿갓 본명은 김병연(金炳淵), 호는 난고(蘭阜)로 경기도 양주 출생이다.

본명보다 김삿갓으로 더 알려져 있는 것은 그가 20세 때 과거 시험에서 할아버지 김익순을 욕되게 한 내용으로 장원급제한 후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이라는 자책과 양반사회의 멸시

로 샷갓을 쓰고 죽장을 짊은 채 방랑을 했기 때문이다.

입구에 커다란 돌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돌마다 그의 대표적인 한시(漢詩)가 새겨져 있었다.

그의 시비(詩碑)는 가까이서 보았으나 묘는 옆에서 굴삭기가 공사 중이라 먼 발치서 건너다 보는 것으로 그쳤다.

다시 버스를 타고 조금 나오다 '조선 민화 박물관'에 도착했다. 제법 높은 언덕 위에 있어 숨가쁘게 걸어 올라갔다.

통나무집으로 예쁘게 꾸며진 조선 민화 박물관은 작년 7월에 개관했는데 주로 백년에서 사백년 전의 작품들이고 민화 외에도 고가구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고 야외에는 분재 작품들이 작은 공원을 이루고 있었다.

오석환 관장님의 자세한 작품 설명을 듣고 나서 한쪽에 마련된 판매 코너에서 '김삿갓의 한시'라는 책과 기념볼펜을 샀다.

버스를 타고 고른 배를 억지로 달래가며 하동면 면사무소 옆에 있는 식당에 도착하니 시계는 어느새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겨우 자리를 잡아 미리 놓여져 있는 밥을, 모두다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퍼먹었다.

반찬이 모자라 주방에서 직접 가져다 먹으면서 갈비탕이 나오기도 전에 밥은 이미 다 없어졌다. 나중에 나온 갈비탕은 후식(?)삼아 먹으며 웃어댔다.

다시 버스를 타고 '책박물관' 관람은 생략하고 영흥리에 있는 조선조 6대임금 단종의 능인 장릉에 갔다.

단종은 문종의 아들로 세종 23년(1441년)에 탄생,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위에 있던 중 세조 2년(1456년) 성상문 등이 꾀한 상왕복위 계획이 탄로되어 1456년 6월 22일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다가 1457년 10월 24일 세조의 사약을 받고 17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시신을 치우는 사람이 없자 영월부사 엄홍도가 시신을 거두어 모신 곳이 장릉이다.

1967년부터는 단종제를 매해 거행하고 있으며 정자각, 단종비각, 매년 한식 때 제향을 올리는 제단인 배식단, 재실, 영천, 홍상문 등이 있으며 주변이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고 역사문화관 건립 공사가 한창이었다.

특히 영천은 장릉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깊이 약 2m의 우물로, 보통 때에는 물이 조금씩 나오다가 한식제와 단종제를 지낼 때는 많은 양의 물이 솟아난다 한다.

단종임금께서 잠드신 묘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고객숙어 인사하고 문화원 진기범 부원
장님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장릉을 뒤로 하고 버스를 타고 한참을 오다 보니 책박물관 팹말이 보였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붓내 아쉬웠지만 다음 기회에 혼자서라도 찾아오리라 생각하며 마음
을 달랬다.

사실 '책박물관'에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만 일정이 바뀌어 버렸다. 바깥 풍경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버스는 문화원앞에 도착했다.

어찌다보니 영어반에서는 오로지 나 혼자였다.

조금은 쓸쓸하기는 했지만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보람도 컸다.

특히 '김삿갓 한시'도 살 수 있었고 훌륭한 조각품들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김삿갓의 한시 속에는 뛰어난 해학과 풍자,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매우 높
라왔다.

그 분야야 말로 전설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회자된 시인은 없을 것이다.

가히 천재시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향토답사를 다녀와서

한 엄 희 (횡성중 2학년)

9월 17일 아침, 학교 가는 날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짜여진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등 대체로 수업을 하지 않는 다는 것에 들떠있었다.

나는 평소 보다 약간 느긋하게 준비를 하고 아빠 차를 타고 횡성문화관 앞으로 갔다.

거기에는 벌써 대부분의 아이들이 와 있었다.

우리는 횡성문화관 앞에서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차를 타고 출발을 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태종대를 향해 출발하였다. 가는 동안에 횡성문화관에서 나오신 아저씨는 친절하게 여러 유적지를 설명해 주셨다. 그런데 아저씨께서 힘이 드셨는지 나보고 입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종이에 나와 있는 글을 읽으면서 태종대까지 갔다. 내가 직접 읽어서 그런지 머리속에 더 잘 남았다.

첫 번째 유적지인 태종대에 도착했다. 여기는 몇 번 와봤지만 여전히 경치가 좋았다.

그 밑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산과 어울려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태종대를 모두 둘러보고 다음 목적지인 봉복사로 향했다.

우리는 봉복사까지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약간의 거리를 걸어갔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돌탑이나 부도를 보았다.

경치도 보고 산 속에 맑은 공기도 마셔서 그런지 걸어가는 동안에 몸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봉복사에 도착했다. 봉복사는 아담한 절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조금 쉬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신대리 3층 석탑으로 향했다. 봉복사에서 내려가다가 조금만 꺾으면 나오는데 발 한 가운데 있어서 약간 놀라웠다. 나는 그 탑을 보면서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발에서 나와 다시 내려갔다. 그 다음 우리는 망향의 동산으로 향했다.

우리는 망향의 동산에서 내려 우선 증금리 3층 석탑을 마추했다.

쌍둥이처럼 서있는 중금리 3층 탑은 모양은 신대리 3층 탑과 약간 비슷했다.
중금리 3층 탑은 원래 탑둔리에 있었던 것이 탑둔리가 수몰지가 되면서 방향의 동산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나는 중금리 3층 석탑은 두 개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쓸쓸해 보였다.
그 이유는 고향 잃은 사람처럼 그곳에서 계속 자기 자신이 있던 자리를 쳐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특이하게 생긴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박물관처럼 옛날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잘 모르는 것은 그곳의 관리하시는 분에게 여쭙었더니 잘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배고파서 그런지 맛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구를 약간 하다가 횡성담으로 갔다. 횡성담은 완공된 후 처음으로 가는 것이었다.

물이 정말 깊었다. 보기만 해도 빠질 것 같아 약간 겁이 났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장송모 도자 연구원에서 도자기를 구경했다. 도자기가 정말 깨끗해서 보는 동안 눈이 부실 정도였다.

그리고 우리는 상동리 석불좌상을 보러갔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것이 있었다. 머리의 돌색이 몸의 돌색과 달랐다. 그리고 아예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책을보니 머리 부분만 도난당했다고 써여져 있었다. 나는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갈 생각을 했는지 그 사람은 정말 양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된 석불좌상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약간 기분이 이상했다.

그다음 우리는 풍수원 성당으로 향했다. 풍수원 성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쉬었다. 그리고 성당도 구경하다가 나와서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나는 처음에 수업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했었던 나는 정말 좋은걸 배웠다고 생각했다. 우리 고장에 이렇게 많은 유물, 유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내가 부끄러웠다.

이번 향토답사로 인해 나는 우리 고장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되었다.

이번 향토답사야말로 나에게 좋은 것을 일깨워 주고 많은 것을 알게한 뜻 깊은 향토 답사였다.

향토문화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김 미 옥(둔내고 2년)

우리 학년이 46명이라 버스 한 대에도 모자라 학교 의자까지 동원하여 탄 버스는 시원스럽게 도로를 달렸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풍요롭기 그지 없었다. 늘 보고 지내온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부모님의 손길을 접하고 자란 농작물이 더욱 가깝게 다가온다.

오늘은 우리 고장의 향토답사를 하는 날이다. 다소 서늘한 날씨로 인해 봄은 움츠러 들 수 밖에 없었지만 들뜬 마음으로 출발하여 첫 목적지인 태종대에 도착하였다. 태종대를 향하여 조금 걸어가자 우거진 산림 숲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늘 가까이 산림을 대하면서도 새로운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다.

포장도로가 아닌 흙을 밟으며, 새소리를 들으며, 우거진 나무숲에 싸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걷는 기분은 참 상쾌하였다.

태종대는 조선 태종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의 스승인 원천석을 찾아 이곳에 왔으나, 만나길 원하지 않는 스승은 산 속으로 피신하였고 태종은 이곳에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이곳에 머물면서 말을 매어 두었던 곳이라 해서 '주필대'라 불러오다가 그 후 이곳을 태종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주필대라고 쓰여진 비석이 비각 안에 보호되어져 있다.

비각 옆에는 예전에 세운 비석 자리가 현재에도 선명히 남아 있었다.

우리는 이 비석과 비각을 보고 냇가 쪽의 암벽에 새겨진 글자(태종대라 쓰여 있음)를 살펴 보았다.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주위엔 군데군데 검은 빛깔이 많이 묻어있었다.

그것은 탁본을 하면서 묻혀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선조께서 남긴 문화 유적이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훼손되어 짐을 안타깝게 느끼면서 탁본을 하더라도 조심해서 하면 후에 접하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다시 시간이 주어 진다면 화선지와 먹물을 챙겨와 탁본을 해보아야겠다

고 생각하였다.

다시 차에 올라 우리가 도착한 곳은 군청 뒷편의 읍하리 석불좌상과 3층 석탑이 있는 곳이었다. 석불좌상은 그 얼굴의 형태가 선명하지 못하였으며, 광배의 모습 또한 많이 훼손되어 그 형태가 잘 나타나 보이지 않아 안타까웠다.

세월이 흐르면서 풍화작용과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 훼손되어 내려오다 지금은 보호각 속에 보호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처음에 불상은 어떤 미소를 담고 있었을까?

얼마만큼 온화할까? 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스쳐 지나갔다.

3층 석탑은 지대석과 기단부가 상실되어 현재 없었으며, 3개의 탑신과 3개의 옥개석만 있었다. 탑신과 옥개석은 각각 1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예전에는 도구도 발달하지 못하였는데 저렇게 불상과 불탑을 잘 다듬을 수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 조상들의 솜씨가 대단하였음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미리 답사 지역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본 내용중 내가 제일 관심이 있어한 풍수원 성당으로 향하였다. 그곳에 도착하여 우리는 문화원에서 준비한 김밥을 먹었다. 모처럼 들녘에 나와서 먹는 식사라서 인지 모두들 맛있게 먹었다고 한마디씩을 하면서 비탈진 성당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이 성당은 전국에서 4번째로 세운 성지이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로 형성된 성지라고 한다. 고딕식 건물 양식으로 장엄한 느낌을 주는 벽돌 건물이었다. 그곳에는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이 와 있었으며 순례미사를 올리고 있는 중이었다. 너무나 많은 인파들로 인해 미사 드리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하고 미사가 끝난 후에야 성당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겉에서 보기보다 성당 안은 크지 않아 아담해 보였다.

성당 안의 모습중 눈에 띄는 것은 창문에 장식된 스테인 글라스였다.

그곳을 통과한 빛은 웬지 모를 숭고함과 경건함을 성당에 더해주는 느낌이었다.

벽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과 관련한 벽화도 있었다.

성당 뒤로 또 다른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은 유물관이었다. 어두컴컴해서 조금 음침한 분위기가 느껴졌으나 볼 것이 많이 있었다. 예전에 성당에서 쓰던 갖가지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라틴어로 씌여진 성경책이었다.

겉 표지 밖에는 볼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 겉 표지에는 어렸을 때 만화 속에서 본 마법서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어서 친근감이 가면서도 신비스럽게 느껴졌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장승모 도자 연구원으로 향하였다. 그곳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비술을 되살린 장승모 선생님이 운영하는 예술체험의 공간이다.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서자 갖가지 형태의 도자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특이한 자기 형태와 확 들어오는 강렬한 색(빛깔)은 없었지만 소박하고 은은함이 배어 나오는 것에서 이것이 우리 선조께서 추구한 멋과 색이 아니가 라는 느낌이 와 닿았다.

우리는 짜여진 일정(장승모 선생님의 강연시간)으로 인하여 전시실에 모두 모여 서서 장승모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이곳은 우리의 전통기법을 체험하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색감도 조상들께서 사용한 방법대로 자연 속에서 찾아낸 색감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내가 처음 전시실에 들어서면서 느꼈던 느낌이 조금이나마 일치했음을 확인하면서 참 좋은 일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상동리 3층 석탑과 석불좌상이 있는 공근면 상동리이다.

도로 옆의 길에 덩그러니 놓여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석불좌상은 얼굴을 도난 당해 다시 조각하여 붙여 놓아 안타까웠으며 광배의 일부분도 얼마 전 기록에 의하면 주위의 논 가장자리에 있었다는 데 지금은 찾아볼 길이 없다는 아쉬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소실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유물 유적지를 아끼고 잘 보존하여 후대에 전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스에 올랐다.

그다음으로 간 곳은 횡성댐이었다. 그곳에서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물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생각하고 연구하면 더 요긴한 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물의 풍부지대가 아닌 부족지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층 비디오실에서는 우리 모두가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용하는 데 대한 반성과 물의 소중함에 대한 각오를 비디오를 보면서 새롭게 다져보았다.

다음 목적지인 망향의 동산으로 향하면서 후대에 물려줄 이 강토에 대한 생각을 하였다. 당대의 제 욕심만으로 자연을 너무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길이 길이 후대에 물려줄 강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훼손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망향의 동산은 횡성댐이 축조되면서 실항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장소로 조성된 곳으로 주위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었지만 전시관은 활성화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

다.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인다면 그곳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고장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전시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위에는 석탑 2기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것은 횡성댐이 축조되면서 중금리에서 옮겨온 것이라 한다. 그 사찰은 쌍탑 형식의 가람 배치로 중부지역에서 흔치 않은 중요시되는 유적지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원 위치에서 옮겨져 제 위치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음이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석탑은 이중 기단위에 세운 삼층석탑으로 상층기단의 각 면에 팔부신상을 양각하였고 탑신과 옥개석의 비례는 전체 균형을 살펴 볼 때 1층의 탑신을 높게 형성되어 다소 불안한 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도 상동리에서처럼 석탑의 몇 곳이 새로운 석재로 대체되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감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더 훼손되지 않게 잘 보존하여 후세에 전해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계속되는 반성과 다짐 속에 어느덧 예정된 순서가 모두 끝나 우리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오늘 하루, 우리 고장의 유적지 탐방을 하면서 우리 고장에도 많은 유적지가 있음을 새삼 깨달았으며 우리 고장의 예술적 감각과 미를 느껴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무척이나 기뻐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 관찰하는데 소홀하였지만 나름대로 진지하게 살펴보고 노력한 하루였다.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본뜰어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 탐방을 있게 해준 횡성 문화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횡성의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조인정 (둔내고 2학년)

가을 바람 스산하게 불어오는 9월의 한낮, 구름이 많이 낀 아침이었다. 날씨도 알맞게 감상적인 오늘 우리 둔내고 2학년 학생들은 향토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기로 한 날이다.

횡성 문화원에서 마련한 버스가 도착하고 문화원 사무국장님의 인사와 둔내 지역 문화원 이사님의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뒤로하고 우리는 태종대로 향했다.

편향으로 유명한 안흥을 지나 강림으로 향하였다. 가는 도중 좌측 강변으로 의좋은 형제 모양 어깨를 나란히 한 삼형제봉은 작지만 빼어난 산세를 자랑하는 진경이었다.

강림 우체국을 조금 못 미친 길옆 한녘에 의병총이 보였다.

그 곳에는 항일 의병 대장 민금호를 비롯한 십여명의 의병을 합장한 곳이라고 한다.

조국을 위해 복숨을 바친 의병들의 고귀한 뜻을 새삼 새기면서 태종대로 향하였다. 태종대는 의병총에서 치악산 방향으로 냇가를 끼고 올라가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이곳은 운곡 원천석 선생과 조선태종 이방원과의 이야기가 얽혀있는 곳으로 바위 위 전각 안에는 주필대라는 비석이 안치되어 있었다. 바로 이곳이 태종이 자신을 만나기를 꺼리는 스승 원천석이 산 속으로 피신하자, 그를 뒤쫓아가다 이곳에서 말을 매어놓고 스승이 간 방향을 향하여 삼배를 드리고 되돌아갔다는 곳이다.

그 아래의 절벽 바위면에는 '태종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자신의 생각을 굳굳이 행한 원천석 선생의 도도한 선비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횡성 군청 뒤였다. 무심히 군청 앞쪽으로는 많이 지나쳐 다녔는데, 뒤쪽에 문화재가 있으리라는 생각지 못했다. 이 곳은 읍하리 석불좌상과 읍하리 3층 석탑이란 명칭으로 불려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공근면에 있던 것을 이곳에 옮겨와 전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보호각 속에 안치되어 있었다. 불상과 광배는 많이 마모된 상태였다.

광배를 살펴보니 연꽃부너와 아래쪽에는 작은 보살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3층 석탑은 기반부가 없어 탑신과 옥개석만이 보존되어 있었다. 이 석탑은 가늘게 처리되어 안정감이 없어 보였다. 그곳에서 조금 뒤쪽으로 올라가니 충혼탑과 3·1운동 기념비, 횡성 군민 만세 운동 기념비, M·P 오우덴 중령 현충비를 볼 수가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국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국가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근래에 복원한 태풍루에서 조선시대 현령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마음 실제로는 백성들의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으리라.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지 못한 면도 있어, 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 있기도 하다.

풍수원 성당으로 향하면서 금대리 의병총과 서원 압곡리 백로·왜가리 서식지도 면발치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성당 가까이 이르러 휴게소에서 문화원에서 마련한 김밥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성당으로 향하였다. 천주교의 성지로 널리 알려진 풍수원 성당은, 고딕식의 예쁜 벽돌로 된 건물이었다. 성당 안에는 스테인글라스로 장식한 창문도 있었고, 아이취 형태를 이용한 실내 모습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유물관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역사를 대변 하듯 시대를 가름해 볼 만한 십자가, 촛대, 등에 성물과 성경책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 성당은 당시 심한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깊숙한 외간 산지인 이곳까지 숨어들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건설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과 신앙의 깊이, 믿음을 느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장송모 도자 연구원이었다. 초등학교였던 곳에 위치한 그곳은 전통 도자기로 가득했다. 은은한 빛을 자연스럽게 발하는 도자기들이 눈길을 끌었다. 화려한 빛깔이 나 윤이 나는 것도 아니데도 정취가 풍기면서 마음에 와 닿았다.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절로 생겼다. 뒤에 친구들과 해본 이야기지만 모두 그러한 생각들을 하였나 보다. 상업 도자기에 밀려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이 많이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도 장송모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잊혀져 가는 전통기법을 되살려 재현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려는 생각을 갖고 이 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도자원을 지나서 간 곳은 상동리 석불 좌상과 3층 석탑이었다. 도로변에 위치하여 있었는데 석불 좌상의 머리 부분은 도난 당하여 없어진 것을 후에 새로 조각하여 맞추어 놓았다고 한다. 지금의 석두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인지 도난 당한 석두가 아쉽기만 하였다.

다음으로 간 곳은 횡성댐이었다. 원래는 봉복사 지역이 답사 코스에 잡혀있었는데, 방학 기간 중 지역 유적 답사 기행문 과제가 있어서, 우리 학년은 많이 다녀온 곳이기도 하고, 시간

상 문제로 변경하여 가게 되었지만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가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댐 위에 올라서니 산과 물이 모아져 펼쳐지는 환경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었다. 홍보관도 있었는데 시설이 꽤 잘되어 있었다. 물의 다양한 원리와 물을 이용한 시설 등을 통하여 물에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마련되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망향의 동산이었다. 댐 공사로 인해 수몰 지역에서 옮겨온 증금리 3층 석탑 2기가 그곳에 있었다. 건립 연대가 통일신라 때로 추정되고 중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쌍탑 형식의 석탑이라는 점이 중요시 된다고 한다.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존재하였다면 사료적 가치가 더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양증하 할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 분은 회다지소리 선소리 보유자로 정금을 지나면서 우연히 마주쳐 차를 세우고 모실 수가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전통의 소리를 전수하고자,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를 찾으려하여도 없다는 것과, 젊은이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어 달라는 취지에 말씀을 하여 주셨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군에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관심만 가지면 찾아 볼만한 곳이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과, 답사를 통해 횡성에 대해 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청일면을 제외한 우리군의 모든 지역을 다닐 수 있었고 각 유적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다.

특히 3·1공원내의 충혼비, 기념비, 강림 의병총, 서원 의병총을 보면서 우리군이 애국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횡성에도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정말 오늘 유익한 하루였던 것 같다.

우리 친구 모두들 오늘 열심히 답사에 임하였고 노력한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고 이러한 행사를 있게 해준 횡성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V. 문예백일장 입선작품

향토문화행사

■ 제15회 태기문화제

- 초등부
- 중등부

■ 이연승시비건립

4주년기념 학생백일장

- 동시
- 산문



※ 제15회 태기문화제 ※
초등부 최우수

봄 친구

이 현 경 (안흥초등학교 4학년)

봄 친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풍갔던
새싹이
돌아온데요

'쿨쿨쿨'
잠다던
개구리도

봄 친구
마중 나온데요

아이들도
내 동생도

반가운
웃음을 띄며
돌아올
봄 친구가
기다려 진데요.

새싹처럼...

박 인 영(안흥초등학교 6학년)

새싹이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 날 무렵, 난 우리 학교에서 최고로 높은 학년인 6학년이 되었다. 제일 높은 언니가 된 만큼 의젓한 모습을 안고, 교실에 들어섰다. 교실에는 친구들이 난로가에 둘러앉아서 '6학년 선생님은 누가 될까?' 하는 궁금한 마음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기대감과..., 설렘과..., 들뜬마음을 안고, 입학식이 시작되었다.

제일 먼저 우리 안흥초등학교의 새로운 새싹인 1학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최고 학년이 되는 순간, 우리 선생님은 뚱뚱하신 남자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정든 5학년 교실을 떠나서 새로운 보금자리인 6학년 교실에 들어섰다. 그때, 진짜로 내가 6학년 언니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선생님과 첫 만남인 만큼, 선생님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 보기도 하고, 선생님과, 교실과의 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차근차근 쌓아갔다.

그리고 난 새로운 학년인 6학년이 된 만큼 새로운 다짐을 했다. 제일 먼저 우리 학교의 최고 언니이니까 1학년 동생을 잘 보살피 주어야겠다고 6학년이니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한해가 끝나면 어린이를 벗어나 청소년이 되니,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마지막 다짐은 우리 안흥초등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것이다.

이 다짐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난 내 마음과 약속했다. 내가 지키겠다고 한 다짐들을 꼭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난 이제 안흥초등학교를 떠나 중학생이 된다. 내가 6학년 때 다짐한 것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하는 계단을 난 한번에 올라가려고만 한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으니, 다시 새로운 새싹이 돌아나면 그 새싹들처럼, 한해마다 새로운 마음을 키우도록 노력해야겠다.

새로운 저 새싹들처럼.....

※ 제15회 태기문화제 ※
초등부 우수(동시)

정월대보름

박 수 연 (횡성초등학교 4학년)

온 가족 웃음 꽃 피는
정월 대보름

하얗게 썬 눈썹
정월 대보름

하늘높이 태극연
정월 대보름

오곡밥 한 솥 가득
구수한 냄새

제기차기 한 마당
우렁찬 함성

꿈을 싣고 날아라
태극연아

함성을 싣고 올라라
오색 제기야

※ 제15회 태기문화제 ※
초등부 우수(동시)

봄

박수진 (우천초등학교 5학년)

따스한 봄 바람이
뜰앞을 지나갔나 보다

따스한 바람소리에
꽃잎들이
기지개를 펴고 돌아난다,

뜰앞을 뛰어 다니는
아이들도
꽃잎들을 기쁘게 맞이 하였다,

길고긴 겨울을 땅속에서
지내다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꽃잎들……

짧은 봄 이라도
기쁘고 신나게 봄을 맞이한다

꽃잎들은……

※ 제15회 태기문화제 ※
중등부 최우수(산문)

흐르는 고향

김 영 지 (대동여중 2학년)

나의 고향은 강원도 산골입니다.

나의 고향에는 지금도 내겐 백두산 보다 높게 여겨지는 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어미산'이라 불렀습니다.

그 '어미산'의 중턱에서 샘솟는 냇물이 '어미산'을 따라 아래로 조용히 흐르는 모습이 마치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의 모습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흐르던 냇물은 나의 고향 집 바로 앞으로 흘러옵니다. 그리고는 작은 웅덩이를 만납니다. 그 작은 웅덩이와 무슨 얘길 그리 재밌게 하는지 한참 동안이나 웅덩이를 돌고돌더니 갑자기 심술이 난 듯, 냇가 옆, 높이 북뻐고 서있는 갈대들을 한번씩 후려쳐 봅니다. 웅덩이가 또 냇물을 꿰려 주었나 봐요. 하지만 곧 부끄러운 모양인지 빨갛간 낙엽으로 얼른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곤 다시 빙빙 돌고 돌며 어른이 되는 길을 재촉합니다. 다시 '어미산'으로 오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겠죠.

나와 언니 오빠들은 이 작은 냇가에서 만든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아기냇물'이 한번, 두 번 계속 여행을 갈 때마다 우리들도 그 만큼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른 봄이 되면 냇가에는 얇은 살얼음이 노래를 부릅니다. 살얼음이 둥둥 떠다니며 마음 내키는 대로 은행나무에 부딪쳤다, 바위에 부딪쳤다 하며 한가로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그 위에 작은 종이배를 띄우고 곧은 냇물을 따라 누가 먼저가나 시합을 했습니다. 아주 가끔 알미로운 오빠들의 심술에 얼음이 깨져 바닥에 배가 가라앉기도 했지만 즐거움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냇물이 재미난 이야기를 주고받던 작은 웅덩이에서 시원하게 먹을 갑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언제 봤는지 노랑머리 외국인을 흉내낸다며 멋지게 다이빙하려다 그만 큰 엄마께 혼쫓이 납니다. 그 모습이 우스워 배꼽을 잡다가 어느새 다가온 큰오빠가 내 눈앞으로 들이댄 물방개를 보고는 소리 지르며 펄쩍 뛰고 맙니다. 그러다가 주위를 돌

아보면 언니가 없습니다. 또 물 속으로 잠수했나 봅시다. 뭐, 피부에 물을 공급하면 피부가 좋아 진다나? 그런 소리를 곧이 믿고는 1분동안 잠수하며 피부에 물을 공급합니다. 아마 1분 뒤에는 나를 집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알미운 바람이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냇물 위에는 단풍잎과 은행잎이 때를 지어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물놀이는 고사하고 소꿉놀이를 합니다. 물위에 떠다니는 단풍잎을 집어다가 가위로 송송 잘라 국수를 만들고, 굵은 모래를 씻어 고슬고슬한 밥을 짓습니다. 갈대잎은 진흙으로 만든 된장국의 양념이 되고, 갈대 줄기는 젓가락이 됩니다. 갈대만 큼 유용하게 쓰이는 소꿉놀이 재료도 없을 거예요. 큰오빠는 아빠, 언니는 엄마가 되고 나랑 작은오빠는 아기가 되지만 언젠간 나도 엄마가 되리라는 생각에 언니가 퍼주는 밥을 10공기나 먹습니다. 하지만 배는 부르지 않아 속상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이 되면 할아버지께서는 푹푹하며 팽이와 썰매를 만들어 주십니다. 서로 큰 썰매를 갖겠다고 싸우지만 언제나 덩치큰 큰오빠의 차지가 됩니다. 아침 일찍 조반을 먹고 신나게 냇물 위를 달리고 나면 얼굴은 뽀뽀 얼어 버립니다. 그래도 뭐가 그리 신나는 건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뽀뽀 언 얼굴과 손을 뒤로 한 채 썩썩 달립니다. 그러다가 감기에 걸리면 할머니 손에 이끌려 감기가 나을 때까지 뽀뽀없이 아랫목에 앉아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난 냇가가 좋습니다. 아무리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독감이 온다해도 냇가 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일부러 만들려 하지 않아도 그 작은 냇가는 내 가슴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빠를 불러 내 고향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곳에 가면 제일 먼저 썰매를 타야겠습니다. 이제는 큰 썰매가 내 차지가 되겠죠?

고향 실뭉치

송 셋 별 (대동여중 2학년)

음력 1월1일 설날이다.

최대 명절이기에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여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나의 고향 경기도 문산으로 향했다.

경기도 하면 모두 변화한 곳으로 생각하기 일쑤지만, 할머니와 큰집이 사는 그 곳은 황성 못지 않은 정겨운 풍경을 한아름 지고 있다. 옛날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나 나의 기억 한편에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는 할아버지 과수원이 있던 곳만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것 같다. “옛날 옛날에…….”라고 시작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지금은 나를 “우리 예쁜 손녀” 하시며 반겨주시던 주름살의 할아버지의 그리운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오빠 언니들,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 어른들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나의 고향마루에서 실뭉치를 풀어볼까 한다.

내가 4~5살 되던 해 엮을 것이다.

할아버지 과수원이 있는 곳은 집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 오빠 언니들이 날 불렀다. 어렸던 나는 그들의 부름을 놀러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신발을 신고는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 쫓아갔다.

언니 오빠들이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포도 과수원 그쯤에서 짐작했어야 했건만 나로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오빠 언니들은 포도과수원 한 가운데로 뛰어갔다. 나는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쫓아갔고, 어느새 멈춰 서서 한참 익어 달고 맛있는 때라 포동포동한 포도들을 마구 따서 먹는 것이었다. 언니 오빠들이 먹어보라고 주는 한 알의 포도가 입을 거쳐 목구멍으로 쏘~옥하고 들어가는 그 상큼함은 지금도 그리고 후일이지나 늙어도 잊지 못하리라.

한 번 유혹에 빠져버린 나로선 절대 헤어날 수도 없는 늪에 빠져버린 것과 같았다. 워낙 어

렸을 때부터 포도를 접하며 자랐는지라, 그 맛의 깊음을 알기에 모두들 다 정말 잘도 먹었다. 씨도 뺀지 않고 말이다. 누가 더 빨리 먹나 시합이라도 하듯...

거의 다 된 시간에 왔었기에 어느덧 빠알간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해와 달의 일과가 바뀌어갈 쯤 우리의 배가 산만하더라, 우리는 그래도 그만 놓으라고 소리지르는 배의 이야기는 들은 채, 만 채, 입의 말을 듣는다. 입은 맛을 보는 곳이니, 그이 욕구는 당연하므로 또 쏘~옥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어' 점점 빨라지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언니가 도망가자 한다. 그때 벌써 발자국 소리가 줄어 멈추니 불길한 예감에 모두들 한곳을 쳐다본다. 눈 한번 깜짝하기도 전에 언니 오빠들 날 안고 사정없이 달린다. 할아버지였다. 한 손에는 봉둥이를 -내 팔뚝 만 했다- 한 손에는 신을 드시고는 "이놈들아~ 거기 서라."하시며 쫓아오셨다. 결국은 붙잡혔고, 우리는 하루 종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 언니, 오빠들에겐 미안했지만 나는 그 고운(?)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친척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우리가 종일 꾸중을 들을 동안 계속해서 배꼽잡고 웃으시곤 즐거운 하루였다고 놀리신다.

그 뒤로는 내가 명절 때마다 큰집에 가면 어른들이 꼭 그 옛 추억을 끊임없이 말해주신다.

잊어버릴 새라하면 "이놈! 너희들 아주 깃곳었어."하시며 꿀밤 한 대 뇌주시지만, 그 고향의 추억으로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우리 할아버지와 친척분들 그리고 나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언니 오빠들, 포도 과수원을 잊지 않을 것이다.

※ 이연승 시비 건립4주년 입선작 ※
최우수 (중시)

바 다

배 정 남 (안흥초등학교 6학년)

난
바다를 향해
힘껏 달려본다,

엄마 품처럼
포근 하고

하늘처럼
높고

내 꿈처럼
넓은 바다로

슬픈 마음
비행기 접어
멀리 날리고

즐거운 마음
활짝 펴
마음 속에 넣는다,

※ 이연승 시비 건립4주년 입선작 ※
우수 (동시)

산길 따라 ...

이 하 나(성북초등학교 6학년)

산길따라 올라가면
누가 살고 있을까?

음... 아무래도
새싹들이 나를
반겨주겠지?

산길따라 걸어가면
누가 살고 있을까?

음... 아무래도
동물들이 나를
맞이해 주겠지?

산길로 산길로
계속 걸어가면

새랑 나랑
새싹이랑 나랑
아무래도...
친구가 되겠지?

※ 이연승 시비 건립4주년 입선작 ※
우수 (중시)

여 행

박 선 아(우천초등학교 4학년)

남한친구 평양친구
모두같이 손을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롤루랄라 여행가요

북한에는 백두산이
남한에는 한라산이

아름다운 우리강산
알록달록 우리강산

알록달록 아름다운
백두산에 여행가자

알록달록 아름다운
한라산에 여행가자

남한친구 북한친구
모두같이 손을잡고

백두산과 한라산에
재미있게 여행가자

이연승시비 건립4주년 입선작
우수 (동시)

고향의 노을

조 용 호(덕성초등학교 6학년)

고향 뒷산의
노을빛 아름다워
도둑질 하고싶네

불붙는 저 붉은색
멋있어 눈부시네

사람을 부끄러워해
도망가네

고향 노을이 그리워
먼산 보면 한숨짓네

나의 살던 고향은

박 혜 림 (우천초등학교 6학년)

나는 태어난 곳은 원주이지만, 고향은 정선군 사북이다. 원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정선에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향을 난 잃어버렸다. 고향을 잃어 버린 것은 1월, 아니 그 전부터 였다. 우리는 사북의 산골에 살다가 이사를 다녔는데 사북의 집은 팔지 않고 그대로 놓았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때 이웃에 살던 아저씨께서 전화를 하셨다. 바로 우리집 동네가 다 강원랜드(카지노)에 팔려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 마감이라는 것!

다음날 일찍 일어나 마구 달려가 마감 1시간 전에 도착하였다. 고모부를 만나 보상을 받으러 갔다. 전 3학년 때 갔을 때 약간 헐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값이 깎여서 보상받은 것은 2백여만원, 저번에 가보신 고모부께서 "집도 다 헐리고 땅도 다 파헤쳤어."라는 말씀에 그곳에서의 추억이 사라지는 듯 했다. 유치원이 끝나고 신나게 그네 타던 일, 강아지들과 뛰어 놀던 일, 친구들과 유치원 가던 일, 그럼 아마 내가 다니던 병설유치원도 지금쯤 사라졌겠지?

마음이 덜컥하고 내려 앉았다. 슬픈 마음이 눈을 따끔거리게 했다.

갑자기 생각 난 것이 있었다. 바로 3학년 때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반지가 생각 났다. 그 반지는 친구가 처음으로 준 선물이었던 것이다. 땅을 팔 때 마구 섞겼겠지? 미나면 고향을 그리듯 마음속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던 어린 아이였던 그 시절을 되돌려 보았다. 내 입속에 맴돌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 하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그리 잘 부르지는 못 했지만 하늘 끝까지, 우주 끝까지 울려 퍼졌다. 바람에 실려 내 노랫소리가 퍼지고 있다. 멀리 멀리 저 넓은 세상으로 퍼져 갔다. 우리 일행은 점심을 먹으려고 '강원랜드식당'이라는 곳에 가서 불고기를 먹었다. 나는 '자꾸 카지노가 확산되면 환락의 도시, 나라가 될까야?' 라고 생각했다. 고모댁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조용하게 아무도 말이 없이 간다. 나의 고향은 언제나 나의 마음에 영원할 것이다.

아름답던 그 추억들은 나의 마음이 어느 한 쪽 추억의 방에 영원할 것이다.

※ 이연승 시비 건립 4주년 입선작 ※
우수 (신문)

우리들의 고향

이 지 혜(성북초등학교 6학년)

나는 인심 좋고 살기 좋은 횡성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의 고향은 횡성이다. 내가 생각 한 고향의 느낌은 도시처럼 시끌벅적 하지 않고 조용하며 향긋한 꽃 냄새가 솔~솔 풍기는 마을 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마을에서 항상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나와 다른 곳에서 태어나시고 생활하셨다. 우리 아빠는 강화도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나셨다. 강화도에서 오랜 세월동안 지내셔서 그런지 강화도 음식을 참 좋아하신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와 같이 어릴적부터 횡성에서 사셨다.

나와 같은 횡성에서……

나의 고향에서 봄에는 향긋한 꽃냄새를 맡으며 여름에는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가을에는 푸릇푸릇한 단풍나무의 조화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장 있어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겨울에 아빠에게 항상 스키장을 가자고 떼를 쓴다. 그래서 나는 도시보다 이런 4계절 내내 즐거운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나의 고향이 도시보다 참 좋다.

고향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공기가 생각난다. 도시처럼 차가 쌩쌩 달리고 항상 차로 북적 북적 거리는 도시에는 공기에 병균들이 똥똥 떠있다. 하지만 우리 고향에는 차도 그리 많지 않고 공장도 별로 없어 공기가 참 맑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은 콩콩얼은 얼음판에서 즐겁게 나무 썰매를 타고 팽이치기를 하는 것이 생각난다.

내가 어릴적에는 저수지에 가서 친구들과 팽이치기를 하며 “내가 이겼어!” “아니야, 내가 이겼어!” 하며 싸우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 거린다.

서로 밀어주기 싫어 가위바위보를 하고 즐겁게 밀어주고 얻어지던 생각도 난다. 또, 눈이

많이 내렸을 땐 친구들에게 전화해 '집합' 한후에 눈싸움을 하고 내 덩치의 배로 큰 눈사람
을 만들고는 마음속 깊이 친구로 새겨 둔다.

이렇게 좋은 내 고향!

한시도 잊어 본적 없는 내 고향!



VI. 부록 및 문화원 소식



■ 부록 (족보상식)

■ 2001 주요사업

- ▶ 지역사회교육사업
 - 전시회
 - 음악회
 - 문화예술제
 - 문화 및 향토사 강좌
- ▶ 향토문화교육사업
 - 문화학교운영
 - 문화유적지답사
- ▶ 향토문화보존전승
 - 태기문화제
 - 향토문화기록촬영
- 전통민속예술경연출연
- ▶ 애향활동전개사업
 - 애향지 “어사매”발간
 - 문학지 발간
 - 향토인물선양
- ▶ 향토사료조사사업
 - 향토사료집 발간
 - 향토사료 발굴 및 연구
- ▶ 기타특별문화사업
 - 구비문학조사
 - 학술세미나

부록 - 족보상식(문화학교 한문·보학반 교제)

1. 성, 씨, 족의 기원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칭호(稱號)는 한국 고유의 전래적 족칭이 있었으나 시대의 발전(發展)에 따라 중국(漢唐)으로부터 문화적 내지 정치적 사유로 수입되어 한자화(漢字化) 또는 한성화(漢姓化)한 되어 오늘날 불리워 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고유 전래의 씨족명칭과 중국식 성의 칭호(稱號)와는 구별하고 있다.

1) 성(姓)이란 글(字)의 유래

씨(姓)자의 원의(原義)는 출(出)자와 상호 통하고 가녀(家女)가 출가하여 출생한 男女 및 孫을 생(甥)이라고 부른다. 씨족특질의 점차로 소멸함에 따라 출자(出自)를 표시한 명호(名號)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필경 姓은 부계적 혈족의 표시라고 한다. 즉 성(姓)의 본의(本義)를 부계적(父系的) 혈족(血族)의 표식(標識)이라고 한다. 중국의 성칭(姓稱)은 부계씨족(父系氏族)의 혈족(血族)을 표시하는 명호(名號)에서 시작된 것이다.

2) 씨(氏)의 기원

고염부(顧炎武)의 所說에 의하면 (氏)란 卿大夫에서 생긴 것이요 웅이나 제후에게는 氏가 없고, 王侯의 子孫이나 公子, 公孫까지도 씨가 없었다고 한다. 氏가 생긴 것은 봉건적 영토가 확립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씨의 칭호는 대개 地名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아 姓은 혈족적(血族的) 씨족제의 산물이고, 씨(氏)는 영토적 씨족제의 산물로 보고 있다.

3) 족보란

족보는 일가(一家)의 역사를 표시한 것이요, 가계(家系)의 연속(連續)을 실증하는 것이므로, 가계의 영속(永續)을 존중하는 사회에 있어서 계보의 기록을 정중(鄭重)히 보존하는 것은 문중의 당연한 책무로 여기고 있으며, 더욱이 그 선조 인물중에서 국가사회에 많은 공적을 남기어 세상의 숭경(崇敬)을 받기에 명망있는 인물이 있을 때는 그 유업(遺業)을 찬양(讚仰)하고 스스로 그 후예인 것을 과시(誇示)하는 것이 후손들의 긍지로 중요시 하였다.

족보는 한말로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家系)를 존속(存續)하며, 동족(同族)을 단결(團結)하고, 세족(世族)의 번세(繁細)를 정(定)하며, 소목(昭穆)을 변(辨)하는 등 가족집단(家族集團)의 본질(本質)을 여실(如實)히 구체현(具體現)한 것이다.

4) 족보의 기원(由來)

원래(原來) 족보의 기원(起源)은 중국의 육조(六朝: 吳, 東晉, 宋, 齊, 梁, 陳)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북송(北宋)의 대 문장가인 구양수(歐陽修)와 소순(蘇洵)과 그의 아들 식(軾, 轍)이 편찬된 것이 가장 잘된 족보의 모범이라고 칭하며 이를 일명 소보(蘇譜)라고도 한다. 족보는 나라에 있어서 사승(史乘)과 비등(比等)한 것이며, 승조(崇祖), 경족(敬族), 수족(收族)의 의(義)를 명백히 한 것이다.

2. 한민족과 족보 유래

우리민족의 족보 유래는 본래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고려 중엽이후 즉 1047년부터 1082년 고려 제11대 문종조(文宗朝)에 이르러 성씨가 없는 사람은 과거응시를 못하도록 제도화(制度化)함에 따라 성씨가 많이 생겨났다고 한다. 역대 문헌에 의하면 역대 왕실에는 세보(世譜)가 있었으며, 사대부(士大夫)의 가문(家門)에는 가승(家乘)이 있었다. 성씨는 사용하여도 족보에는 기술하지 않다가 족보를 체계화한 것은 성종(成宗)초기라고 한다.

1)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연혁)

현재 전하여지고 있는 족보중에는 서기 1423년 조선 세종5년 계묘(癸卯)년에 발간된 문화유씨 영락보(榮樂譜)인바, 구월산(九月山) 대승공(大丞公)묘하 재실(齋室)에 보관중이나 서문(序文)만 전하고 실물(實物)은 없다.

그 후 1476년 成宗7년 丙申년 발간된 안동권씨의 성화보(成化譜)인데 이 성화보는 태종조 집현전 대세학이었던 권세(權)와 세종조 영의정이었던 소한당(所閑堂) 권람(權擧)부자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족보의 서문은 세종조의 거유(巨儒) 서거정(徐居正)이 썼으며 (서거정은 여말선초의 석학(碩學)이며 太祖朝의 大提學이었던 양촌 권근의 外孫임)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奎章閣)에 희귀고본(稀貴古本)으로 진장(珍藏)되어 있다. 그 이후 1562년 명종 17년 임술년(壬戌年)에 발간된 문화류씨(文化柳氏) 가정보(嘉靖譜)에는 자손은 처손 외손을 포함4대조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현존하고 있다.

그 후 1792년 정조16년 임자년(壬子年)에는 씨족령(氏族令)을 공포하여 각 씨족별로 족보발행에 착수하였으나 약 70년간은 보책을 출간하지 못하였다.

2) 조선 왕조의 세보(世譜)

조선 왕조의 세보는 왕조별로 각각 분류하여 기록 보존되어 왔으며 김관의(金寬懿)가 지은(王代實錄)과 1987년 광무원년 정유년에 기록된 임경숙(任景肅)의 조선왕실록인 <선원록(璿源錄)>등의 世譜를 모체라 하여 이 자료 기록 내용에는 왕실의 친족인 종실(宗室), 종자(宗子), 종녀(宗女)를 기입하고 각 파별 세보는 없었다.

조선왕조의 선원록은 숙종연대에 보간(補刊)하여 왕이 즉위할 때마다 보간하여 오던 것을 1897년 과우원년 정유년에 17권을 改刊한 것이 오늘날 조선왕조의 대표적 족보이다.

족보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조선조에 들어와 상신록(相臣錄), 공신록(功臣錄), 자인록(將臣錄) 등이 정리됨에 따라 각 씨족의 시조나 부자관계를 어느 부분이나 系統을 알게된 것을 기초로 하여 편찬하게 되었다.

3. 족보의 종류

1) 족보

족보는 관향(貫鄉)의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보첩으로서 이 성격 내용은 가문의 역사를 의미하고 가문 씨족의 연결을 실증한 것으로 족보란 말은 모든 보첩의 대명사(代名詞)로 쓰이는 말이다.

족보란 말 이외로 계보(系譜), 보첩(譜牒), 세보(世譜), 세계(世系), 세지(世誌), 가승(家乘:계도(系圖)의 외에 선조의 전설, 사항에 관하 기록을 수집(蒐集)한 것을 지시하는 것), 가첩(家牒:동족 전부를 수록하지 않고 자기일가 직계(直系)에 한하여 발취抄錄(拔取抄錄)한 세계표(世系表:대개 한 장의 단첩식(單疊式)으로 되어 있음), 가보(家譜), 성보(姓譜)라는 말로도 통한다.

2) 가승(家乘)

가승이란 자기를 중심으로 편집하되 우선 시조(始祖)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직계존손(直系尊屬)과 비속(卑屬)까지 각각 휘자(諱字) 및 사적(事蹟)을 기록한 보첩의 기본자료이다. 이

는 중시조(中始祖)로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3) 파보(波譜)

파보는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만의 각 휘자(諱字)와 사적(事蹟)을 수록한 족보를 말한다.

4) 세보(世譜)

세보는 두과 이상의 파속(派族)이 동보로 제작되었거나 어느 한 파속(波屬)만이 수록되었을 경우라도 파보(波譜)라는 문구를 피하기 위하여 세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5) 계보(系譜)

계보는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각 휘자(諱字)만을 계통적으로 표시된 도표로서 가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한 부분만이 작성되어도 이 형식의 보첩(譜牒)을 계보(系譜)라 한다.

6) 대동보(大同譜)

대동보란 같은 비조(鼻祖) 밑에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동보(同譜)로 종합 편집된 보첩을 말하며, 본관은 다르되 비조(鼻祖)가 같은 종족이 통합해서 동보(同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대동보라 한다.

7) 가보(家譜) / 가첩(家牒)

가보(家譜)나 가첩(家牒)이란 말은 편찬된 내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안에서 자기 중심 위주로 작성하여 별도로 소장되어 있는 보첩을 말한다.

4. 족보용어

1) 본관(本貫)

본관을 관향(貫鄉)이라고도 칭한다. 일반적으로 시조(始祖)의 출신지(出身地)나 시조(始祖)의 정착(定着) 세거지(世居地)를 말한다. 각 성씨의 씨족보에 기록된 본관의 연원(淵源)

내지 (沿革)을 살펴보면 국가에 공훈(功勳)이 있어 ○○백(伯) 또는 ○○군(君)이 봉(封)해 줬으므로 봉군(封君) 받은 지명(地名:食邑地)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을 정하는 가문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가문에서는 시조로부터 누대에 걸쳐 살아왔으므로 그 지명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을 정하는 가문도 있다. 동성(同姓)만으로는 동족(同族)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관이 필요로 하게 된다.

◦ <본관의 본질:분류>에 대한 상식

동성이본(同姓異本)이란 : 동성(同姓)의 기왕지(既往地)에 새로 내주(來住)한 후, 그 지명을 관향(貫鄕)으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즉 동성 동족(同姓 同族)중에서 중시조대에 분기(分歧)되어 각자 관향을 달리 취한 경우를 말한다.

이성동본이란(異姓同本)이란 : 원래 동성동본(同姓 同本)이었는데 사성(賜姓) 또는 개성(改姓)등 특수사정에 성이 변해진 경우를 말한다.

氏族.本.(異族)=同姓異本 예 : 연안이씨, 한산이씨, 관산이씨.

氏族.本.(異族)=異姓同本 예 : 경주최씨, 경주이씨, 경주김씨.

氏族.本.(異族)=同姓同本 예 : 남양홍씨(土洪, 唐紅)

同族=同姓異本 예 : 양주조씨(楊洲趙氏), 풍양조씨(豐陽趙氏), 한양조씨(漢陽趙氏)

同族=異姓同本 예 : 안동김씨(安東金氏), 안동권씨(安東權氏)

同族=同姓同本 예 : 상기 예를 제외한 여러 각 分派 성씨

2) 시조(始祖)

시조란 이론상으로는 각 종족의 제일 초대 선조로서 각 성시는 문헌상으로 최초로 나타난 각 종족의 첫 번째 조상을 칭한다.

3) 비조(鼻祖)

시조 이전의 선계 조상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시조 이전에 선계(先系)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를 비조(鼻祖)라고도 표현한다.

4) 중시조(中始祖)

始祖 이외에 쇄퇴하였던 가문을 증흥시킨 조상을 말한다. 쇄퇴한 가문을 증흥시킨 조상을 중시조(中始祖)로 추존(推尊)하는 것인데 이는 종중의 공문에 따라 인정하며, 이는 자파 단

독만의 결정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대중회의 결의에 따른다.

5) 선계(先系)

선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말한다.

6) 세계(世系)

세계라 함은 시조로부터 대대로 내려가는 계통의 차례를 의미한다.

7) 세(世)와 대(代)

시조를 일세(一世)로 하며 차례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 세이고,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차례(次例)를 따지는 것이 대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자의 차이가 卍로는 2세이지만 代로는 1代이다. 시조로부터 30대손이 되는 사람은 시조가 29대조이고 시조에게는 29대손이 해당된다.

8) 선대(先代)

본래 선대는 조상의 여러 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보첩(譜牒)에 있어서 선대(先代)라 함은 시조이후 상계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계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말이다.

9)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현재 한국사람의 이름은 호적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아명(兒名), 관례(冠禮)를 거행하면 관명(冠名) 즉 자(字)이고 다음에는 보첩에 등재하는 행명이 있었다. 관명은 관례시에 주례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예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즉석에서 자(字)를 지어주는 것이다.

(例: 아명은 대모, 冠名 즉 자는 의상(衣裳), 행명(行名)은 성진(性眞), 아호(雅號)는 卽 재춘(再春)등으로 표기 사용하였다.)

10) 호칭방법

웃어른의 명자(名字)를 말할 때에 생존하신 분에게는 함자(銜字)라 부르며, 이미 작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휘자(諱字)라고 부르며, 이름자를 부를 때에는 글자 사이마다 “자(字)”자를 넣어서 부른다.

○○○氏 : 姓 또는 이름 밑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선생 : 성, 성명 또는 아호 밑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공 : 남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및 관위(官位) 밑에 붙이는 말이다.

○○옹(翁) : 남자 노인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장(丈) : 남자의 직함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로써 보통 노인장(老人丈), 존장(尊丈), 형장(兄丈) 등이다.

11) 종규(宗規)

종규는 일족단체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며 동성동본인 사람은 한결같이 농족의 의(誼)를 지켜 一門의 종규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2) 종가(宗家)

종중에는 종손이 있는데 부락 또는 동족(同族) 내지 파벌(波族間)에 있어서 최존선조(最尊先祖)의 가독(家督) 상속자로서 가묘(家廟)를 가지고 제사를 주재하는 종손(宗孫)의 집을 종가(宗家), 내지 종가(宗家) 집이라 칭한다.

13) 都有司 내지 門長(族長)

종중에는 종손외에 종장(宗長 내지 宗會長) 또는 문장(門長)이 있다. 문장은 일문의 장자(長子) 내지 대표이사이며 종손이라 할지라도 종중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지시와 지배를 받아야하는 문중 최존의 관리자이며 권위자를 일반적으로 도유사(都有司)로 칭한다.

14) 유사(有司)

문장 내지 도유사 밑에 몇 사람의 유사(有司)를 종규(宗規)의 의거 두고 유사는 문장(都有司)를 보좌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유사의 선임의 공존(公選)이 보통이나 문장(都有司) 또는 파의 족장이 지명하기도 한다.

15) 종회(宗會: 門會)

도유사 내지 족장이 중무를 집행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종회를 개최하여 문중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종회는 매년 제향 전후에 개최하는 것이 상례이나 긴급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유사가 의제를 준비하여 임시회의를 수집한다.

16) 시향(時享)

시향은 시제(時祭)와 공통된 말로 문중의 대제(大祭)이다. 문중별로 정해진 날에 시향을 지내는바 대개 매년 2월, 5월, 8월, 11월중 정하여진 날(初丁, 中丁, 末丁)들 정하여진 날에 산소나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祭祀)를 말하기도 하며,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의 산소 또는 재실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를 時祀라고도 하며 제사는 일정한 의식(일명 홀기: 笏記)에 따라 행사하게 된다.

17) 기제(忌祭)

기제는 5대이하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조상에게 조상의 亡命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근래에는 제례의 간소화에 따라 합동으로 時享(時祭, 時祀)이나 기제를 모시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18) 향렬(行列)과 향열자(行列字)

향렬은 같은 혈족사이에 계통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이는 그 문중만이 가지는 고유(固有)의 특징이며 율법이다. 향열자는 각 가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게 된다.

가: 갑, 을, 병, 정, 십간(十干) 순(順)에 의거 정하는 가문

나: 자축인묘(子, 丑, 寅, 卯)의 12지(支)순에 의거 정하는 가문

다: 음양오행설에 따라 자손의 창성과 부귀영화(富貴榮華)를 의미하는 金水木火土의 글자 부수를 선정하여 순환적으로 정한 가문

라: 숫자적으로 1, 2, 3, 4를 포함하여 향렬자를 무궁무진하게 자손창성을 축원하는 뜻으로 정하는 가문이 있다.

19) 화수(花樹)

화수라는 말은 가계(家系)를 꽃나무에 비교하여 한 성씨를 하나의 나무로 생각하고 나무 뿌리를 근원으로서 조상을 나타내고 여러 갈래의 가지는 분파 또는 지손(支孫)을 말하며 꽃이나 잎은 많은 자손을 뜻하고 있다.

20) 생졸(생졸)과 향(享), 수(壽)

보첩에는 한 인간의 생졸을 반드시 기록하는 바 생은 출생으로서 생년월일과 간지(干支)를 적고, 졸은 사망한 연월일 및 간지를 표시하는 바, 20세 전후로 사망한 사람은 조사(早死)라 하여 조오(부夭), 60대에 사망하면 향년 XX(享年XX) 또는 향○○, 70세 이상 사망시는 수(壽XX)이라 기입한다.

21) 배필(配匹) 또는 비필(妃匹)

배필이라 함은 배위(配位) 즉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데, 그표시방법은 생존한 배위(配位)는 실인(室人)이라 하여 <室>이라 기록하고, 사망한 配位는 <配>자로 표시하여 생존과 사망을 구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22) 묘소(墓所)

묘소란 사망한자의 분묘(墳墓)의 소재지를 말하는데 보첩 수록시에 <墓>를 상기(上記)하고, 반드시 주소지와 좌향(坐向)과 石物(表石, 碑石, 文官石, 望柱石)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표시하고 합장(合葬)의 여부(雙墳, 同原)등을 분명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23) 종중(宗中)

동족이 1부락 또는 한 지역을 형성한 동족간에는 고래로 관습에 의하여 반드시 1족의 團長 또는 族長중심으로 1개의 단일 조직 모임체가 조직되어 있다. 이 조직 단체를 종중 또는 문중이라 칭하며 어느 종족 단체에도 대부분 공통된 宗規가 정해지고, 동 종규에 의거 동족과 선조의 제향과 승업찬양을 목적으로 조직된 대종회 또는 종회 내지 화수회가 조직되어 종중 발전을 위한 선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4) 대중회(大宗會)

중증, 종친간의 기관으로서 대중회가 조직 운영하는바 이를 대중 종약소(大宗宗約所), 대중회(大宗會), 대동종약원(大同宗約院)을 조직하는 바, 이들 조직은 동일(同一) 시조(始祖)에서 나온 남계 혈족중의 남자인 정원으로 구성한다.

5. 사성(賜姓)과 사관(賜貫)과 귀화성(歸化姓)등 성씨의 유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원시부족사회인 서라벌(徐羅伐:斯羅)는 6촌 씨족으로 구성되었고, 신라 삼대 유리왕9년 즉 서기32년에 이르러, 6촌에 각각 손(孫), 이(李), 최(崔), 정(鄭), 배(裴), 설(薛)씨등 6성을 사성(賜姓)하였다고 한다.

증보문헌비고(46, 帝系考7 附氏族1) 임상덕(林象德)의 동사회강(東史會綱),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등에 의하면 단군(檀君)시대에 여수기(余守己)가 예국(濊國)의 군장(君長)이 되고, 그의 구자(九子)<제군(諸郡)을 분장(分掌)하여 중민(衆民)에게 공이 있어 중인변(衆人邊)에 따라서 성(姓) 서(徐)시를 사하였다고 하고, 기자(箕子)시대에 사사(士師) 왕수궁(王受兢)이 그 거처(居處) 일출지사(日出之上)에게 그 방점(傍點)을 올려 황으로 길게 하여 왕씨(王氏)를 하사(下賜)하였다고 기록한 사실 있다. 또한 덕양(德陽) 기씨보(寄氏譜)에 의하면 한(韓), 기(奇), 선우(鮮于)의 삼성(三姓)은 동계(同系)의 시조로 하였고, 석학(碩學) 윤근수(尹根壽)의 월정집(月汀集)에 의하면 鮮于씨를 기자(箕子)의 후예라 하였고, 韓씨는 기준(箕準)의 후예라고 기록하였다. 충주어씨(忠州魚氏)는 본성이 지씨(池氏)였다가 겨드랑이에 비늘 셋이 있다하여 고려태조(왕건)가 魚氏로 하사(下賜)하였다는 설이 있고, 그 외 徐, 王, 金, 南, 安, 仁川李氏, 高, 車, 權, 韓씨 등도 성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로 忠肅王때 왕빈(王彬)에게 관(貫)을 하사했으며, 고려사에 의하면 청주고씨 여계(麗季)에게 관(貫)을 장흥(長興)으로 하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1) 귀화 전래성(歸化姓)씨와 전설

문헌비고(文獻備考)나 전고대방(典攷大方)등의 문헌에 의하면 柳氏, 全氏, 吳氏, 黃氏, 嚴氏, 林氏, 姜氏, 南氏, 安氏, 文氏, 長氏, 呂氏 등은 중국인이 동래귀화(東來歸化)한 성씨라고 기록 되었다.

제주도의 삼성(高氏, 梁(良)氏, 夫氏)는 삼신이 나왔다는 토굴(土穴)이 있어서 이를 삼성

사(三姓祠)라 칭하고 있으며, 남평문씨족보서문에 의하면 남평문씨의 시조는 암혈(巖穴)에서 나왔다는 전설을 적고 있으며 현재도 후손들은 암굴에서 분화(焚火)봉사(奉祀)한다고 한다.

창녕조씨의 시조는 갈비대밑(脅下)에서 ㄸ字를 가지고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성을 능(稜)으로 사(賜)하였다고 하며, 함중어씨(咸從魚氏)는 잉어(鯉魚)로써 祖를 삼고 그 후손은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6. 족보의 체제(體制)

족보에 기록된 내용은 족보의 조직이나 종류에 따라 대소의 차이가 있으나 편집제작에는 일정한 원칙과 공통된 방식에 의하여 구성된 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서(序)와 발(拔)

어느 족보에서나 그 권두에는 서문을 신되 족보일반의 의의와 종족의 연원 내력 편성의 차례등을 기술하여 있다. 서문은 대개 직계후손중 덕망과 학식있는 자 중에서 이를 기술하는 것이 상례다. 연대가 지남에 따라 수차에 걸쳐 수정 증보할 때마다 구보(舊譜)의 서발(序跋)을 수록하고 支(派)譜에 있어서는 종보의 것을 그대로 재록한다. 발은 서와 거의 다름이 없으나 다만 편찬의 경위를 좀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족보 일반에 관한 연구상 중요한 자료이다.

2) 기(記)와 지(誌)

서와 발의 밖에 시조 또는 중시조의 사전(史傳)을 기재한 것으로 그 중에는 현조(懸祖)의 전기(傳記), 기지(基誌), 제문(祭文), 행장(行狀), 언행록(言行錄), 연보(年譜) 등이 있으며, 더욱이 시조(始祖)의 전설(傳說), 득성사적(得姓事績), 향관(鄉貫), 지명의 연혁, 분과의 내력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조정에서 조상에게 사부(賜付)된 고칙(誥勅), 서문이 있으면 이를 명예롭게 수록한다.

3) 도표(圖表)

시조의 분묘도(墳墓圖), 시조발상지(發祥地)의 지도, 종사(宗師)의 약도, 선조의 화상(畫像)

4) 편찬(編纂, 編修)인의 명기(明記)

족의 편찬업무에 종사한 유사(有司)로서 편수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명예를 포창하여 또 그 기록의 정확을 기한다.

5) 범례(凡例)

편수기록의 차례(次第)를 명시하는 범례는 기록의 내용을 아는데는 중요한 자료이다. 동 범례는 가규(家規) 또는 家憲과 같은 범례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6) 계보표

1)부터 5)까지의 기록은 겨우 수권의 일부를 이룬다. 계도(系圖)기록의 양식은 명청(明清)의 범례를 모방하여 내용을 수록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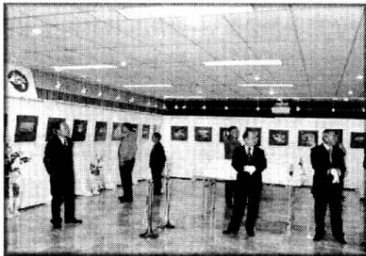
문화원 소식

지역사회 교육사업

전시회

가중작품 발표 및 전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과 창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본 문화원은 관내 문학예술 활동 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 후원하는 등 향토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18회 백합영상회 사진전 후원 (11/2~6)
- 제17회 그림샘 미술전 후원 (11/30~12/2)
- 제 9회 연목회 서예전 후원 (12/7~12/9)
- 제 2기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발표전 (12/19~12/22)



문화예술제

본 문화원에서는 “청소년 건전 가요제”를 개최하여 고장의 청소년들에게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순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유수의 국악인과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하고 있는 “전통문화 예술공연”은 군민에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게하는 송년 축제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 제5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5/19)
- 전통문화 예술대공연 (12/21)



.....



문화 및 향토사 강좌

21세기 우리 향토문화의 현대적 계승 발전을 위해 강원대학교 강대덕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향토사 강연회에 관내 300여 고교생들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됐다.

- 횡성문화원 향토사 강연회 (11/27)



- 일본어 교실
- 영어 교실
- 수목화 교실
- 국악 교실
- 한문·보학 교실



문화유적지 순례

향토문화교육사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내·외 문화 유적지 답사에 문화학교 수강생을 비롯한 관내 중고교생 250여명이 4회에 걸쳐 문화유적지의 문화유산들을 연구·관찰하였다.

-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9/5)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둔내고 (9/14)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횡성중 (9/17)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서원중 (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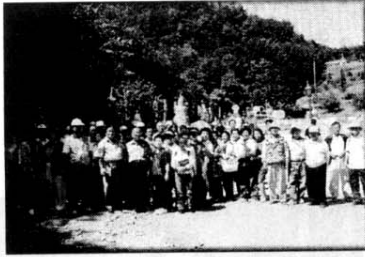
향토문화 교육사업

문화학교 운영

지역주민으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학교 운영은 군민의 취미 생활과 문화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참여의 폭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본 문화원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문화학교가 되기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관심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사물놀이 교실
- 서예 교실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문 화 제

우리고장의 독창적인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는 문화원에서는 마을 단위 전국유일의 문화행사인 제 15회 태기문화제를 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향토유적 등을 영구적인 기록물로 보전하기 위해 향토유적, 유산에 대한 촬영을 연중 실시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 제 15회 태기문화제 (2/6~2/7)
- 향토문화기록 촬영 (년중)



전통민속예술공연

각종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본 문화학교 사물놀이 수강생들이 출연하여 수준높은 우리고장 고유의 전통민속사물놀이를 선보이고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6월 개최된 제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 출연한 어사매 풍물패 단원들이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풍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대회에서도 딸림상을 수상하는 등 향토문화를 전승,보전하기 위해 기울인 그간의 노력들이 대외로부터 알찬 결실로 열매 맺고 있다.

- 제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출연 (6/7)
황성문화원 어사매 풍물패 출연 우수상 수상
- 제5회 강원도 풍물(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11/10)
황성문화원 어사매 풍물패 출연 딸림상 수상



애향활동 전개사업

향토애향지 및 기념행사

우리고장의 대표적 향토지로 자리하며 향토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어사매 16호”를 발간하고 출향인사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교육기관 등에 배포 하였다. 16호에는 횡성지역에 산재해 있는 골짜기에 대한 지명의 이름에 대한 유래를 밝혀주는 향토사학자 이영식씨의 연구문이 수록되어 군민의 애향심을 북돋아주고 정주의식을 함양하는 등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구문들이 수록됐다.

- 어사매 제16호 발간
- 횡성문학지 제8집 발간 후원
- 故이연승 동시비 건립 4주년 어린이 글짓기 대회 (5/24)



향토사료발굴조사사업

향토사료집발간

9개읍면 172개리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 지명에 얽힌 전설과 설화 등의 사료를 발굴 체계적으로 정리한 “횡성의 지명유래”를 발간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횡성의 각종사료 등을 수집 정리한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횡성”을 발간하여 관내 초·중·고교생들에게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관심사업으로 지속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향토사료 발굴 및 연구

향토사학자 이영식씨의 “횡성의 골짜기 명명(命名)에 대한 유래의 유형 및 특징” 연구문이 제11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 발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향토사료 발굴 조사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러한 향토사료 발굴 조사사업은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한차원 높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본 문화원은 앞으로도 향토문화를 전승 보존시키는데 주도적 노



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제11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 (11/14)
 - 횡성의 골짜기 명명(命名)에 대한 유래의 유형 및 특징
 - 이영식(향토사료 조사위원)장려상 수상

기타 특별문화사업

구비문학조사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횡성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할 이야기 전승(신화, 전설, 민담, 설화 등), 노래전승(민요, 무가, 동요, 만가 등), 놀이 전승(가면극, 인형극 등), 말 전승(속담, 수수께끼 등) 4개분야에 걸쳐 횡성군의 구비문학을 채록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책으로 발간하게 될 “횡성군의 구비 문학 조사서”는 그동안 말로만 전해오던 지역의 각종 전통생활문화 방식과 선인의 생활발자취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사기간 : 7/1~12/31 (6개월)
- 조사범위 : 9개읍면 172개리

학술세미나

본 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

하여 도내 유수의 대학교수들을 초빙, “횡성의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앞으로도 본 문화원은 지방문화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학술세미나 등을 더욱 폭넓게 개최하여 향토문화진흥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한차원 높게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횡성의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학술세미나) (12/14)
 - 기조강연 : 원영환(강원대학교수)
 - 주제발표 : 김의숙(강원대학교수)
오영교(연세대학교수)
강대덕(상지영서대강사)



횡성문화원 임원 및 직원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장 명	직 장	자 택
원 장	심 전 황	횡성읍 읍하리 380-6 삼강△1동 203 011-361-7841	횡성문화원	343-2271	343-7841
부 원 장	진 기 범	횡성읍 읍상리 278-8	알고파서점	343-2687	343-3334
"	조 경택	횡성읍 읍상2리 274	자영업		343-2742
이 사	정 재 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A동 201 011-367-3618	성북초등학교	343-2242	343-3326
"	우 광 수	태백시 황지동 황증관사1동 105 011-9791-1446	태백중학교		343-1446
"	전 인 환	횡성읍 조곡리 433 017-375-2070	횡성국민건강공단		343-7700
"	이 석 원	횡성읍 읍상1리 346 011-361-3488	횡성새마을금고	343-3526	343-3518
"	김 광 수	횡성읍 읍상리 284 011-371-2618	백우사장	343-2618	343-5100
"	민 경 철	횡성읍 북천리 태우△3동 308 016-378-8781	홍천석화초등학교		343-8781
"	정 두 영	횡성읍 읍하리 299-6	서원사인쇄소	343-2404	343-0694
"	윤 춘 식	횡성읍 읍상1리 333	횡성감리교회	343-1286-8	343-3349
"	이 일 영	횡성읍 읍하1리 69	크로커다일	343-2669	
"	유 관 중	횡성읍 우천면 용둔리 017-338-2706	사물놀이강사		342-2706
"	정 병 익	횡성읍 입석리 132	농업		343-2390
"	김 상 겹	횡성읍 마산리 451-3	농업		343-3514
"	오 세 민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08-9 011-361-2633	태기산부동산	342-5888	342-1019
"	한 상 래	횡성읍 입석리 162-8	횡성군노인회	343-3553	343-2670
감 사	도 회 관	횡성읍 읍상2리 1번 019-243-2376	자영업	343-2376	343-2964
"	전 상 국	횡성읍 입석리 65 019-316-8181	자영업		343-2466
사무국장	홍 성 진	횡성읍 목계리 011-362-3120	횡성문화원	343-2271	343-3120
간 사	허 미 선	횡성읍 북천리 중앙아파트 3-402 017-377-2553	횡성문화원	343-2271	343-2553

횡성문화원 회원명단

2001년 12월 현재

성 명	주 소	직 업	자택 ☎	직장 ☎
고 한 석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295	농업	343-6336	
구 본 섭	횡성읍 읍하3리 251-54 동화회원	동화회원	343-2752	343-2752
권 용 환	원주시일산동 233-22		343-7135	
김 광 수	횡성읍 읍상리 284	백우사장	343-5100	343-2618
김 상 겸	횡성읍 마산리 451-3(말미)	농업	343-3514	
김 윤 수	횡성군 공근면 학담2리 성골		342-2181	
김 정 용	횡성읍 읍상리 315-8	김약국	343-2707	
김 창 식	횡성읍 읍하리 73-6	국도광고	343-4900	343-2100
김 철 호	횡성읍 북천리 영진(A)B-101	횡성군청	343-2689	
김 현 주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농업	342-6518	
김 남 준	횡성군 횡성읍 읍상2리	상업	343-3603	
김 진 혁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 55	농업	342-6019	
김 동 근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217	농업	343-3959	
김 순 남	횡성군 둔내면 자포1리	아이세상	342-6925	
이 병 오	횡성읍 북천리 영진(A)A-302		343-6789	
김 천 수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493	농업	343-3434	
남 진 향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 409	유미양품점		342-2205
도 회 관	횡성읍 읍상2리 1반	회원	343-2964	
도 광 태	원주시 단계동 롯데(A)3동 504	중고등문화 사무국장	742-8229(원주)	343-0207
류 봉 만			343-4253	
민 경 철	횡성읍 북천리 태우(A)3동 308	교사	343-8781	342-5553
이 각 구	횡성군 횡성읍 목계리 106	횡성군청	343-2071	
윤 만 복	횡성군 횡성읍 읍하3리 215-3	농업	343-2575	
박 제 향	횡성군 둔내면 마암2리	가사		343-6584
박 정 예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95	가사	343-7814	

횡성문화원 회원명단

2001년 12월 현재

성 명	주 소	직 업	자택 ☎	직장 ☎
박 인 평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57	한정농장	714-0088	342-2526
박 태 식	횡성읍 가담1리 468	농업	342-2609	
방 규 진	횡성읍 북천리 148 총무계	횡성읍사무소	343-9661	343-2482
심 진 황	횡성읍 읍하4리 석강㉠ 1-203	횡성문화원	343-7841	343-2271
송 인 석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 539	농업	343-1774	
신 구 선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115-37	갑천면사무소	343-1350	
양 우 환	횡성읍 읍하리 대동㉠ 101-707	횡성한의원	343-9526	343-7364
양 중 하	우천면 정금리 849-3	농업	342-2602	
우 광 수	태백시 황지동 황중관사 1동 105호	교사		
원 종 춘	횡성읍 읍하1리 110 한림서당	한림서당	343-3162	
유 인 상	횡성읍 읍하1리 115-11	횡성치과		343-8890
윤 춘 식	횡성읍 읍상1리 333	자영업	343-3349	
이 석 원	횡성읍 읍상1리 346	횡성새마을금고	343-3518	343-2833
이 일 영	횡성읍 읍하1리 69	크로커다일	343-0808	
이 장 우	횡성읍 가담1리	횡성골재	343-2723	
이 제 구	횡성읍 읍하1리 305	화성컴퓨터학원	343-2434	343-1202
이 철 우	우천면 정금리 507	농업	342-2665	
이 승 호	원주시 흥업면 흥업2리 748-2		763-7386(원주)	
유 병 규	홍천군 남면 명동리		432-4252(홍천)	
유 관 중	우천면 용둔리		342-2706	
안 병 화	횡성읍 읍상리 원흥㉠ 102-505		343-0641	343-6975
김 광 남	원주시 단구동 142-245/1	초등교사	763-4890(원주)	343-2311
임 종 홍	횡성읍 읍하4리 6번지	농업	343-2056	
최 기 섭	우천면 상하가리 170	농업	342-6294	342-8923
신 규 영	둔내면 자포1리		342-5889	

횡성문화원 회원명단

2001년 12월 현재

성명	주소	직업	주택 ☎	직장 ☎
전석희	둔내면둔방1리	가사	342-1403	
양희자	둔내면자포1리 409	태영미용	342-1884	342-1884
김형래	둔내면우용1리 365-12	사업	344-5500	732-2124
윤국영	둔내면	학원운영		342-0127
김영선	둔내면자포곡리 380		342-1072	
이대선	둔내면화동리 280-1	농업	342-2405	
원종훈	횡성읍대동㉠ 101-304	자영업	343-7920	
양기호	원주시명륜2동 현대2차㉠ 202동 1007		762-8328	
오세민	횡성군둔내면둔방내리 108-9	상업	342-1019	342-5888
전상국	횡성읍입석리 65	농업	343-2466	
전인택	둔내면자포1리 409	도의원	343-0601	
전인환	횡성읍조곡리 433	횡성국민건강공단	343-7700	
정두영	횡성읍읍하리 299-6	서원사인쇄소	343-0694	343-2404
정병익	횡성읍입석리 132		343-2390	
정삼영	횡성읍읍하리 214-6	상업	343-3130	
정재영	횡성읍북천리 영진㉠ A동 201호	교사	343-3336	
정우철	횡성읍읍하리 대동㉠ 103-306		343-2818	
정병유	횡성군공근면공근리		342-3217	
정왕택	횡성군공근면덕촌리		343-6494	
정계철	원주시개운동 444-15		761-1063	
정인영	횡성읍읍하택지 550-3		343-8698	
조경택	횡성읍읍상리 274		343-2742	
장태준	횡성군서원면석화3리		342-5077	
박봉순	둔내면자포곡리	가사	344-0522	
조규선	홍천군남면유치2리 575	농업	432-4802	432-8400

횡성문화원 회원명단

2001년 12월 현재

성명	주소	직업	주택 ☞	직장 ☞
진기범	횡성읍 읍상리 278-8	알고파서점	343-3334	343-2687
채금순	둔내면 자포리 455-2	새마을둔내면부녀회	342-1245	
정미호	둔내면 동산 ㉠ A동 308	상업	342-0387	342-7892
한상국	둔내면 둔방내리 382	농업	342-1516	
한상동	횡성읍 읍상2리 276-15	농업	342-4019	
한상래	횡성읍 입석리 162-8	횡성군노인회	343-2670	343-3553
홍성익	우천면 정금2리	농업	342-2671	
함기중	횡성읍 읍상3리 313-7		344-2543	
김판수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농업	343-6821	
임종훈	횡성군 둔내면 자포리 2리 643	농업	342-1555	
김두선	횡성군 횡성읍 읍상4리 동원 ㉠ 209	건설업	343-2495	345-8504
고명규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11-16	상업	343-3337	345-1013
박동근	홍천군 남면 시동리	농업	432-4529	
김용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농업	342-6135	
이영식	횡성군 안흥면 안흥4리 2반 214		342-2094	
최필수	원주시 봉산동 동신 ㉠ 101-1203		744-6510	
정영철	횡성군 읍 읍하리 대림연립 303호		343-0310	
조원용	횡성군 읍 대동아파트 101-1307			
이돈영	횡성군 읍 북천리 영진 ㉠ 가동 503			
원종택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75-5		343-2653	
정남진	횡성읍 읍하리 대동 ㉠ 101-206		343-0056	
유태선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90-2		343-6717	
서제원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2차 103-907		343-5812	
박판수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민족사관고	교사	343-6255	343-1115
이송윤	횡성군 횡성읍 정암1리 206		345-9905	345-9905

문화원 회원 입회안내

황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입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20,000원)

안 내 : 황성문화원 ☎ 343-2271

이사매 제16호

발 행 일 : 2001. 12
발 행 처 : 황성문화원
발 행 안 : 심진황
편 집 : 황성문화원
기획 · 인쇄 : 누리기획

(비매품)



황성문화원

TEL. 033-343-2271

FAX. 033-343-7652